

# MAXIM

KOREA

## 잘 심어야 잘 산대!

그녀가 원하는 백 어택은?  
장기아식 가이드

## 잘 뽑아야 잘 산대!

여성들의 비밀스런 욕망의 세계  
칼의 세계: 도(刀) VS. 검(劍)

왼손잡이가 진짜 야구를 더 잘하나?

## MIKE TYSON

비둘기를 사랑하는 남자

## IDOL'S LIFE

섬나라 아이돌 AKB48  
제국의 아이돌 광희  
신인그룹 코인잭슨

## MAXIM'S QUEEN OF APRIL

당구 여신 차유람

## MEN'S ULTIMATE SKILLS

남자라면 영춘권  
하드 디스크 철벽 사수

## MOTOR

기아 모닝 vs 쉐보레 스파크  
코란도 시승기  
미녀와 캐딜락  
분노의 질주 5

ICON: 제이크 질렌할



MAXIM 2011  
정기공채



2011년 4월호  
정가 5,400원

# MAXIM

발행인/ 대표이사 이예성

전무이사 김경선 / 이사 양재용 / 이사 황해민 / 이사 소상범

편집장 부임 이영미  
수석에디터 최정 고경희  
과장 유승민  
대리 김성현  
대리 강진욱  
사원 김희성  
이사진트 박민빛/누리  
조유림  
객원에디터 김재영 / 이남훈 / 장미희

## EDITORIAL / 편집부

je@maximkorea.net  
kko@maximkorea.net  
sm@maximkorea.net  
psycho@maximkorea.net  
14@maximkorea.net  
alice@maximkorea.net  
ru@maximkorea.net  
new@maximkorea.net

## DESIGN / 디자인

디자이너 주임 장지현  
sara 장미연  
sara 이윤하

## STRATEGIC PLANNING / 기획 전략

이사 소상범  
과장 진우빈  
과장 유승민  
주임 최정영

##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대리 김중국  
대리 김진욱  
대리 홍승미

## WEB SERVICE / 웹

웹상 서정민

사진 ARC STUDIO [www.artstudio.co.kr](http://www.artstudio.co.kr)

공업 신상경 kshn0111@daum.net

인쇄 · 할색출판 (주)상현출판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1 인제인 유성근  
유형 승주출판부형



발행처 ㈜에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1~4층  
TEL. 02-323-182 / FAX. 02-6465-0183  
2018년 4월호 통권 제2호 / 등록일자 2009년 2월 1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MAXIM KOREA는 세계 20개국 편집부에서 발행하고 30개국에서 판매하는 글로벌 남성 월간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에이미디어 그룹은 2009년 1월 2일부로 대한민국의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할 라이선스 계약자이며, MAXIM의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에이미디어 그룹과 와이미디어에 의해 어휘한 제2호도 MAXIM의 로고(드라마)와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MAXIM 본사인 에이미디어 그룹과 ㈜Y Media에 귀속되며 허락 없이 옮겨 쓸 수 없습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JOSEPH MANGIONE  
CHIEF REVENUE OFFICER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 MAXIM INTERNATIONAL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 DIGITAL ASSET MANAGER  
MARIESA CONWAY  
INTERNATIONAL FINANCE MANAGER  
ERIK VANVOORHEES

DENNIS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YC 10017, USA

## MAXIM INTERNATIONAL EDITION / EDITOR IN CHIEF

-  USA JDE LEVY
-  ESPANOL-US HISPANIC ANDRÉ FÉLIX DIAZ ROJO  
Dominican Republic
-  UNITED KINGDOM BEN RAWORTH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  FRANCE FRANÇOIS DE GUILLEBON  
Belgium, Switzerland, Canada Quibec
-  GERMANY MIKE BLEIBTREW  
Austria, Lichtenstein, Switzerland
-  CZECH REPUBLIC PAVEL VONDRAČEK  
Slovakia
-  SERBIA LAZAR JOVANOVIĆ  
Montenegro, Bosnia, Herzegovina, Frym
-  TURKEY KAAAN KUSTUTAN  
Cyprus

-  ITALY CARLO CROCI
-  PORTUGAL PEDRO JAVALOYES
-  RUSSIA SASHA MALENKOV
-  ARGENTINA GERMAN PITTELLI
-  BRAZIL ROMARIO OLIVEIRA
-  BULGARIA HRISTO ZAPRYANOV
-  GREECE GEORGE FOTINOPOULOS
-  INDIA VIVEK PAREEK
-  INDONESIA TITAN HARINDA
-  THAILAND SIROTHE PETCHJAMROANSUK
-  UKRAINE SASHA MALENKOV

국가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copyright©(2011)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ll the MAXIM Korean-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are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 ESSENTIAL GEAR.

Invented in the United States. Made in Switzerland. [www.luminox.com](http://www.luminox.com)

The Luminox Navy SEALs No. 3089, 44 mm, carbon reinforced polymer injection molded case, crown protection, unidirectional ratcheting bezel, tempered scratch resistant mineral crystal, carbon reinforced case back, signature black PU strap, 200 meters water resistant, Luminox self-powered illumination, Swiss Made. Preferred timepiece of U.S. Navy SEALs.



**ALWAYS  
VISIBLE**

#### 루미nox 판매처

광명점: 02-757-9866, A5센터점: 02-735-9880, [www.milmwatch.co.kr](http://www.milmwatch.co.kr)

직접 판매처: 부산 지프센터(루미nox지) 02-772-2181 / 판매처: 강원도: 루미nox지 031-909-2181 / 판매처: 대구: 루미nox지 053-660-3122 / 판매처: 부산광역시 051-678-4039 / 판매처: 서울: 신촌점(루미nox지) 02-3436-0798 / 신도림 지점(루미nox지) 02-2111-1130 / 양재 지점(루미nox지) 02-3434-7072 / 용인: 양재(양재점) 1588-8796 / 호프: MCA(호프점) 02-737-3627 / 호프: 신촌점(호프점) 02-3398-7577 / 호프: 영등포점(호프점) 02-474-5607 / 호프: 신도림점(호프점) 02-565-9897 / 호프: 서울: 동대문점(루미nox지) 02-971-5334 / 호프: 서울: 영등포점(루미nox지) 02-956-5581 / 구로점(루미nox지) 02-452-4067 / 호프: 서울: 여의도: 영등포점(루미nox지) 02-272-2686 / 여의도점(루미nox지) 02-771-7033 / 호프: 서울: 용인점(루미nox지) 02-737-7033 / 호프: 서울: 용인점(루미nox지) 02-747-9678 / 여의도점(루미nox지) 02-794-7930 / 서울: 용인점(루미nox지) 02-2051-6244 / 서울: 경기: 고양점(루미nox지) 031-221-4997 / 고양: 일번지점(MAR) 031-936-1644 / 고양: 일번지점(루미nox지) 031-441-0158 / 고양: 일번지점(루미nox지) 031-466-1014 / 부산: 삼정점(루미nox지) 052-962-2026 / 고양: 평택점(루미nox지) 031-391-5555 / 인천: 화재점: 지프센터(루미nox지) 032-490-3866 / 인천: 동남점: 지프센터: 루미nox지 032-578-7002 / 인천: 세운점: 루미nox지 042-480-2538 / 인천: 영등포점: 루미nox지 042-601-2384 / SF: 영등포점(루미nox지) 053-295-6940 / 인천: 인천: 영등포점(루미nox지) 041-564-5465 / 인천: 화재점: 영등포점 063-789-3530 / 인천: 화재: 영등포점 035-942-8521 / 부산: 금정점: 루미nox지 051-245-7200 / 부산: 영등포점(루미nox지) 051-746-6112

82  
차유람

누가 그녀를 얼짱이라고 말했나?  
큐대를 내려놓은 당구선수  
차유람은 여신 그 자체였다.

## 62 LOVE 그녀의

## ‘뒤’를 공략하는 법

개도 소도 말도 다 한다는, 바로 그 자세 말이다.

## 76 ICON

## 제이크 질렌탈

도대체 왜 여자들은 이 녀석한테 환장하는 걸까? 눈, 코, 입, 팔, 다리, 손가락 개수. 다 당신 이랑 똑같은데

## 90 상속의 장식

상속 헬센 피 튀기는 거룩법 이야기. 당신 룬은 얼마?

## 94 발기부전 퇴치작전

강한 남성을 위한 약물/비아그라/시알리스/레비트라/자이데나/100% 환불/정품구매... 어떻게 먹는지도 가르쳐줄게

## 100 진짜배기

## 국산 자주포 K-9

스타급 자주포의 위열 연병도 사연에서 삼질하기 전까진 그렇게 불렀었다.

## 114 MAXIM 도감

## : 刀劍

당신은 도(刀)를 아십니까? 아니면 검(劍)이라도?

## 118 엘사 파티키

(문노의 질주: 언리미티드)의 엘사 파티키는 지금 당신을 향해 달려갈 출발 신호 대기 중.



# 남자의 피부는 비즈니스다

그의 비즈니스 아이템, 맨즈클래식 더블 이펙트 비비크림



MEN'S CLASSIC  
회원용 받기



**자외선 차단 SPF40 PA++**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UV A·B 동시 차단은 기본!  
SPF40 PA++의 든든함까지



**화이트닝**

[미백 기능성 화장품]  
칙칙한 피부를 맑고 환하게!



**트러블 방지**

미숙트 주출물이 보루지로  
자극받은 피부를 편안하게!



**세뱀 컨트롤**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력과  
피지 조절 기능으로  
깨끗한 피부 유지

ACTIVE YOUTH OF STYLISH SKIN

행복하고 여유있는 삶과 성공에 대한 열정을 가진 당신에게 제안하는 세 about style, 유니섹슈얼의 진정한 그루밍을 Men's Classic 이 지원합니다.

## 104 + 다이오라 베어드

그녀가 황무지 같은 당신의  
마음에 화려하게 피었다.  
당신은 그저 물만 주면 된다.

다같이 만세삼창  
하겠습니다.



CONTENTS  
↓

### 14 CIRCUS MAXIMUS

질그름 코인엑스, 피의 유통기  
한, 섬나라 아이돌 AKB48 파  
운, 식육일 기념: 장기 이식 가  
이드, 잉여로운 범죄일지, 우승  
컵 사이즈 대결, 그녀들의 거기  
왕십법, 제국의 아이들 권희와  
보낸 마지막 하루

### 30 DRINK

스미노프 블랙으로 만든 보드  
카, 각테일 진창 마시고 블랙데  
이 같은 거 다 잊어뿌라.

### 33 RATED

베네사 허친스, (씨커 편차)의  
여배우 5인, 리메이크 대기 중  
인 영화와 이달의 영화와 연극,  
음반, 그리고 연애를 위한 책

### 40 MUSIC

수컷을 듣게 만드는 밴드가 뿌어

### 43 SPORTS

2011년 프로야구 개막 이모저  
모, 이달의 스포츠 소식, 원소  
잡이는 뛰어난 야구선수라는  
게 레알? MAXIMI 알아봤다.

### 48 STUFF

당신을 유혹하는 메탈 시계, 아  
리따운 야가 씨외의 야구장 데  
이트, 스마트한 블랙 기어, 축  
구화 잘 고르는 법, 애구영(영  
성)이 담긴 하드 관리법, 마이  
크 타이슨의 비둘기 사랑

### 66 MO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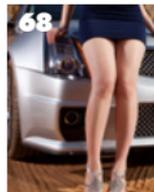
제네바 모터쇼의 르노 DeZir, 모  
닝 vs 스파크 구매기 ROUND1,  
은빛 그릴과 그물 스타킹, 캐딜  
락 CTS-V, 쌍용 코란도C 시승  
기, 시판차량 리스트

### 110 IN DA CLUB

독자와 함께 파티

### 122 STYLE

미친 존재감 운동화, 남자의  
색 블랙, 풀 피부 만드는 환절  
기 그루밍 프로젝트, 비즈니스  
맨의 스타일, 그녀가 더 밝게는  
뽀뽀, 클럽에서 돋보이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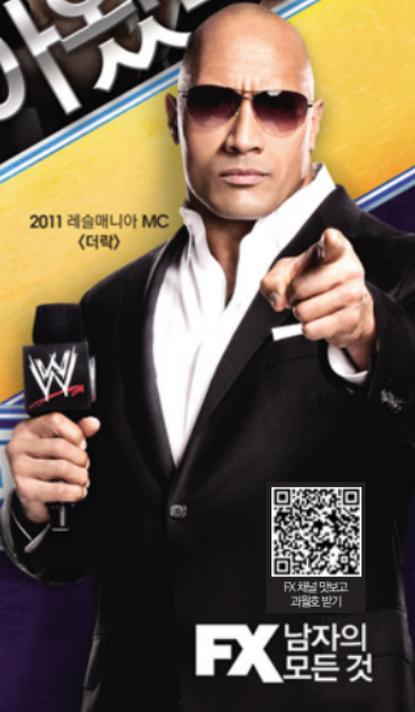


더락이 돌아왔다!

2011 레슬매니아 MC  
(더락)

WRESTLEMANIA  
XXVII

4월 23일(토) 밤 10시



FX 채널 맞고  
과월도 받기

FX 남자의  
모든 것

tcast

channel Scomcast FlixN comcast onnetcube FOX FOXLife FX

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1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 채널

# LETTER FROM MAXIM

▶◀ 일본대지진으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니다. ▶◀

**아** 주 잠깐 일해볼 생각으로 MAXIM에 입사했다. 미국에서 잠시 지낼 때 MAXIM의 열렬한 독자였던 나는 취직을 해야할 무렵 '그렇게하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제이웃' 직장에서 시간을 때워보자는 심산으로 MAXIM에 입사지원서를 냈다. 하지만 인생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도 흘러가는 법. 한 달, 두 달, 3년, 4년... 다른 에디터와 스태프들이랑 같았다고 놀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다. 그렇게 MAXIM의 팬에서 MAXIM 에디터로, 이번 달에는 MAXIM 한국판의 편집장으로 발령 받았다. 기사를 쓰고 회보를 찍으며 먹고살 줄은 몰랐다. 그 일을 주업으로 하는 잡지사에서 쫓겨 나고 나에게는 편집장이라는 절대반지를 끼워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이제 나 꼴리는 대로 해도 되는 거?) 어쨌거나 골룸처럼 될 때까지 잡지집을 할 필자인가보다. "마이 프레셔스"

예초에 거르고 했던 '그렇게하면' 직장은 없었다. 돌아서 보면 가시 없이 속직하고, 거침없이 자유로운 한판으로 살기에 MAXIM보다 그렇게하면 직장은 없었던 것 같다. 자본과 힘의 논리에 못이겨 원치 않는 글을 쓸 일도 없고, 어울리지 않는 허세를 떨 필요도 없다. 실제로 MAXIM 에디터들의 면면을 보면 보수적인 조직에서 뛰쳐나온 오덕류, 클럽에서 놀 때만 생각이 흥민한 죽순이, 태생적으로 웃된 생각만 떠올리는 위험인물, 엉뚱한 새콤물뿐이다. 그들은 여기서 능력 있는 에디터로 인정 받으며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MAXIM이 더욱 도약하려면 그런 도리야는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4월에 MAXIM이 2011 신입 에디터 정기 공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MAXIM이 대규모 공채를 실시하는 건 작년이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월급 받고 풀차하고 싶은 사람 다 모여라. 채용부터 모든 조건을 갖춘 완전체를 찾진 않았다. 가능성을 보겠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원가에 출런 듯 찾아와서 아이없게 말뚝 박는 사람도 있을 테니 말이다. MAXIM을 원하냐? 지원하라.

아침, 우리 모 방송국처럼 전 채용 과정을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만천하에 방송할 생각은 없으니 안심하시라.

MAXIM은 그렇게까지 자책이 심하진 않다. 어우, 쪽팔리게

편집장 이영비

아영비

너도 말뚝 박을래?



## 2011 MAXIM KOREA 정기 공채

### ☛ 채용 직군

소속	지원 부문	모집 인원	서류 접수 기간	접수 서류
편집부	수습 피쳐 에디터	0명	2011 4/2 ~ 4/10	입사지원서
	일러스트레이터	0명	2011 4/2 ~ 4/30	입사지원서 및 포트폴리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aximkorea.net) 참조

### ☛ 채용 일정

- 수습 피쳐 에디터
- ▶ 1차 서류전형
  - ▶ 2차 필기 전형
  - ▶ 3차 면접 전형

### 수습 일러스트레이터

- ▶ 1차 서류전형 (포트폴리오 심사)
- ▶ 2차 면접 전형





# Got MAXIM?



경고 ①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앱스토어에서만 그립니다. MAXIM은 폐양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은 아니어도 내 가족, 이웃까지도 물리게 합니다. 아이패드용 MAXIM에는 중독성 물질인 불용영상, 미공개컷, 독한농담, 우수암컷, 때깔기게, 교미사실, 독점해법, 거친수컷, 폐인!게임, 총질잡질, 프로운동, 새만차량, 오드바이, 만취음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국내 유료 아이패드 매거진 중 매출순위가 부동의 1위인가 봅니다.

지진에 이웃 나라 일본이 지진 때문에 휘청하는 걸 보니 우리 독자들의 인위가 각정된다. 다들 잘 살고 있나!

## ▶ 왕편 김 대리님, 맥심 왔따!

맥심 맥심을 읽는 직장인입니다. 맥심 정기 구독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만 구독 주소가 직장입니다. 맥심 오는 날이면 우편물을 가져다주는 여직원인 '김 대리님' 맥심왔어!라고 평소보다 크게 이야기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우리 색시가 "말 그렇게 보나요" 하고 물으면 얼굴이 조금 화끈거린답니다. 원래~ 부끄~ 신기하게도 꼭 그렇게 때려요! 뜨거운 기사를 읽고 있어요. 그럴 땐 대외용 위표지를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남자가 궁극할 만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도 있어요." 오늘따라 책을 훑어서 표지를 유심히 보는군요. **라이라코, e-mail 시연**

MAXIM의 위표지는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과 집중력을 갖고 고마워 필요한 고급 정보를 읽게 돕는 방법에도 쓰이지요. 그게 아세요? 읽은 정성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면 백 캐피가 (좋은 생각) (굿모닝 타임) (365 교재)로 3년 번신합니다. 일단 표지를 책상 위에 대고 초상 1번 이상 비비는 속도로 3일 이상 부패하면 슬슬 연기기 오로비 표지가 보수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우실력주상생이! (연상을 보면 큰 도움이 될겁니다.)

## ▶ 풀이 안 좋네

지난달 오벌 색스에 관한 기사 중 철쭉 선을 이용한 '남성의 정맥'에 관한 최신 연구를 잘 보았소요. 이걸로 여친에게 사기를 치기에 쓰는 옛날의 맥심 과외용 광고가 너무 걸리요. 차라리 다른 광고를 뒀는데 싶었다리만 좀 더 완벽했음은 거 같습니다.

평균보다 5% 저렴, 스마트한 댓글, 웃고 들었소요. 그 기사를 찾아서 활활 타일들 갖게 된 독자들이 너무 뿌듯한 나머지, 여성 분이 MAXIM 과외용 광고를 보고는 늘 주문하신 그거 잘 읽어서 그 혜택?를 토해가 하려고 수작을 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 ▶ 여제가 부족하다

에디터님들 입가에 물 담고 있는 독자로서요. 오래전부터 여제의 미학을 탐구하기에 맥심 만큼 유용한 잡지를 달리 구할 수 없어서 늘 구비하고 있었소요. 현대 최근 실례는 사진은 스탠다드 상태의 사진이고 남성의 들끓는 철혈기를 자극하는 구도나 연출이 예전보다 좀 더 길어진다 칼도요. 기본 테이러니 하고 보좌. 다들 달도요 다시 맥심을 찾게 됨을 알기에 그거 자연으로도 좋은 소재를 투척 해주지만 기사야 받아 먹도록 하겠소요. 부디 후회를 위해 앞으로도 사각적·감각적·정신적으로 가진 글과 조만한 시연 기대하겠습니다.

**야비호, 스마트한 댓글**  
MAXIM 편집부가 정성차·육체적으로 늘 바빠 흥분된 상태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 줘

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텔의 안전을 위해 촬영 중엔 모든 스태프의 사자를 경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의 마음을 왜 물러주겠나  
+ **만 거 내놔**  
점심 먹고 근무하려 하는데 MAXIM에서 클럽 이벤트에 당첨됐다. 문자를 받았소요. 너무 좋아 복도에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녔소요. 클럽 연세도 찾보고 같이 갈 사람도 구하고 다 했는데... 클럽 차녀 출장인이라 막상 가려니 슬슬 두려워라 다른 분게 양도했지요. 전 그 시간의 행복으로 만족했소요. 클럽 티켓 대신 좋은 여자 포실 수 있게 선물이라도 주세요.

**해영진, e-mail 시연**  
시연의 행복을 드켰다. 여자 포실에 선물을 내내도 안고 여자 일상을 훑힌 다음 여자의 지갑까지 열어보 남자로군요. 그리고 MAXIM에 좋은 여자 포실 수 있는 선물 이 있다면 최근까지도 금융 생활을 하고 있는 김성민 에디터의 고우 회화를 막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안 쓰는 기원은 퇴짜라는 진화설 유행물일까요? 그게 지겨우 저러 사수 수작에 있어내고 있습니다. 하후하 후가 신비하게 고지급세요.

## ▶ 재입대하고 싶네

이제 부대로 복귀하라 한다. 전쟁, 내



독자 시연 보내기

글 꼭 읽어주세요. 안 읽어주면 남자 직원 전부 다 재입대하는 꿈골 거요.

**김태호, e-mail 시연**  
이미 여제 됐다. 다치고 복귀하라!

## ▶ 여자 독자의 고민

군대 간 남자 친구를 기다려도 차이는 읽는 시대에 군대 간 남친이 기다리는 여자입니다. 남친은 군대 기전에 순수함의 결정체였는데, 군대 간 여자 맥심이라는 장자를 매우 만족해 더군요 저도 한 번 구입하면 여러 번 정독하는 나를 애독자가 됐소요. 얼마 전 오벌 색스에 관한 기사를 보고 고민이 생겼어요. 남친이 좋아해서 가끔 해주는데 혹시 좋아는척만 하는 게 아닐까 하고요. 잘 배려해주기 위해서 좋아하는는 척했던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여직원 잘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여자 독자를 배려하여 다음에는 거짓으로 느끼는 척하는 남자 구별법과 남자가 좋아하는 여수에 대해 써주세요.

**\*P.S. 청주 비행대에 있는 K군!! 군대 들어가서 힘들다고 필멸 피던 게 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네! 한해고 싶은 기간 열심히 복귀하라! 사랑해!**

**PM, e-mail 시연**  
질질 피던 청주 비행대 K군! 이 여성분을 잘 데 놀라지 마세요. (혹시 아깝게 놀랐다면 서 화제에 연락자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PM게 지극 남자 에디터들이 어떻게 해야 남자들이 좋아하느냐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채팅과 예무법을 시연하는

## 독자 시연 응모



**응모 방법**  
▶ 우편 접수 (12~84) 서울시 미포구 서로동 446-36 MAXIM 코리아 빌딩 4층 편집부  
▶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 텔레그램이 접수: 에디터에게 텔레그램을 쓰려면, 이제 정 여우연 신에 가서 봉화를 들리도록

무슨 내용이든 좋다. 우리 마음이 무척 들었다. 화내지 않았다. 선물도 주며 사연이 당황된 독자에게는 연애 컨설팅 등 승천민이 책 (매혹의 기술) 1권을 증정하겠다. 풍을 맞아 연애향하고 싶은 마음은 확실히 타는데 방법을 모르는 슬로들이여 응모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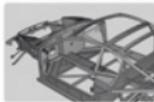


Drift Your Soul **SPIRRA**



**이드림**

스피라는 미드를 위한 레이아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드를 위한 엔진과 변속기가 차체가 앞쪽에 배치되어 있어서는 지극히 부적합을 가져오게 됩니다. 높은 한계성과 세밀한 핸들링 및 정확한 반응으로 공력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추구하는 스피라에게 이드림 레이아웃의 채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프레임**

스피라는 일단 차체에 적용한 탄소,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은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프레임은 생산 공정이 복잡한 단점이 있지만 가벼움과 높은 비강도 강성이 뛰어난 것을 스포츠카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카본 휠**

스피라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카본 휠에 있습니다. 카본 휠이라는 혁신성을 추구하는 Spirra는 물론 우수한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는 스포츠카입니다. 일단 강도에 비해 가볍고, 내열성도 내열성이 뛰어나서 무거운 휠에서 자유롭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수제 슈퍼카 탄생

장인의 손으로 빚어낸 자신감!

전세계에는 유수의 명스포르츠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대수 세계 5위  
자동차 생산 역사 55년의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을 대표할  
정통 스포츠카는 아직 없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세계의 명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국가대표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제 스피라를 도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빙사봉 발호복 한국3M 7800원

MAXIM CARTOON BY 김사스드

## 독자의 눈

나가 DDR 치는 것까지 우리 다 보고 있지

Hongbae Jeong'는 D를 쓰는 독자님이 3월호 기사에 대한 리뷰를 보내왔다. 그중 일부를 공개하였다.

### 기사: 오발을 안 하는 이유



남자들의 가려운 곳을 참사원하게 잘 긁어주었다. 특히 "내 친구가 그러다더라"가 아닌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다"는 정말 쇼킹했다. 담당 에디터가 시집까지 모으려고 맥스를 써볼 물을 것을 선택한 건가. 아니면 이미 품절에 가까워진 건가 하는 수많은 물음표가 떠올랐다. 10년에 번 나을 까 말까한 주옥같은 기사를 써낸 에디터에게 편집장은 일주일간 휴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다.

"책을 문고라도 하나 편집장이 써서 못 읽습니다. 동굴이 사는데는 건 왜일까요?"라고 했던 기사 담당 에디터가 말했습니.

### 기사: 후렌치파이 혼자 된 사연



에디터 당신은 천재다. 후렌치파이는 뿔 뿔이다. 근데 마지막 더러운 행태는 어떻게 제작하든지 도저히 모르겠다. 오늘 후렌치파이 사서 한번 살펴봐야겠다.

천재네요, 저-기-는 개가 못습니. 유승민 에디터는 그저 필과 생각이 더없이 두뇌 구조가 비정상인 문제아일 뿐입니다. (저쪽 기사 참조) 그런 위험 인물들이 사채에서 정상인과 섞여 지내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MAXIM은 공약적 차원에서 이런 인건들을 선발하고 수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디터는 직 입까지 주십시오.

### 이달의 도움 주신 분: 게스트맨



기사 사진 촬영을 위해 남성화장품 전문회사 게스트맨에서 제품을 보냈다. 수령인민에 '맥심 모카 골드'라고 적어서 여러분은 지금 맥심 모카 골드 4월호를 보고 계십니다.

### 이달의 스태프: 유승민 에디터

'섹스를 위한 약물' 피쳐 기사를 위해 노력으로 칭받던 고급 인력 유승민 에디터.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완성된 알약 모자이크에 모두 기립 박수를 보냈다. 모던하면서 섬세한 컬러 매차와 테리일한 발기 각도 묘사가 흥분을 선사한다.



어릴 때부터 미술에 재능이 뛰어나고, 영문 사람과 뽀빠까지 즐긴 그의 가장 최근 모습.

몸이 가벼워도 우리 사모를 내놓지

OD MUSICAL COMPANY, CJ E&M and PHOENIX ENTERTAINMENT Present

Book, Music & Lyrics by JIM JACOBS and WARREN CASEY



09 링크  
타겟하기



단 한순간이라도 지루하다면 그리스가 아니다!

# No.1 뮤지컬 그리스

2011.4.8 ~ 6.12 한전아트센터

예약: 오픈리뷰 1588-5212 인터파크 1544-1555 맥스 티켓 1544-0113 비씨라운지 1577-4388 |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 주관: 오픈리뷰(주) | 협찬: LOUNGE

# MAXIM INSIDER

MAXIM을 보면 자다가도 맥이 생긴다! 곳곳에 숨은 선물들 다 읽어라.

## GIFT LIST

다 퍼준다. 가져가라!

프리미엄 선팅 필름 '솔라가드' 체험권 / 남성 화장품 맨즈클래식 데일리 폼 클렌저 / 유자컬 <그리스> 티켓 / 유자컬 <여우비> 티켓 / 연극 <민들레 바람댈어> 티켓 / 영화 <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 > 예매권 / MAXIM 6개월 정기구독권 / 도서 <연애의 신 > <매혹의 기술 / 그 외에도 MAXIM이 함께하는 이벤트가 많답니다. >  
그럼 코인팩스의 사인 CD 등...



MAXIM 트라프로  
모아주세요

MAXIM 4월호 속 광고와 기사에 박힌 QR 코드를 주목하라. 촬영 현장을 담은 영상이나 각종 이벤트와 선물이 들어 있다. MAXIM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에서도 선물이 두루뎅이 즐겨찾기 가능하다. 이리다 우리 독자님들 다 대머리 되겠다! 말도 제법 기쁜 관계자 여러분, 어서 MAXIM에 광고하세요!

문의: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 기자가!

스타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챙취하라!

MAXIM에 등장한 스타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챙취하는가?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 1 MAXIM 4월호를 구매한다.
- 2 가장 재미 있게 읽은 기사를 3개 고른다.
- 3 자신의 블로그(미니홈피) 또는 트위터에 "MAXIM 4월호 시 Best 3"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 관련 이미지가 있다면 당첨 확률은 상승권을 뚫고 치솟는다!
- 4 블로그나 트위터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그녀의 사진] 을 찍어 reader@maximkorea.net으로 메일을 보낸다.
- 5 다음 호 MAXIM에 자신의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는지 눈에 붙을 커고 확인한다.

3월의 승리자는 정하태 독자다. 브라운기의 폴라로이드 사진이 달려갈 테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 세계 최정상 DJ 샤샤 서울 단독 파티 초대

인력투로비 마스터 DJ 샤샤가 오는 4월 2일 저녁 9시에 서울 플라자 콘서트홀에서 단독 스타링 파티를 연다. 여기에 MAXIM 독자 2명을 초대한다. 입장권형식 구권이 55,000원을 받고 싶은 독자님은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여 댓글달기를 신청하거나, reader@maximkorea.net 에 '샤샤 파티 신청'이란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낸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 코드나 잡지 뒤쪽 브랜드 뉴스를 참조하도록.




샤샤의 파티  
응모하기

## BEAT THIS CAPTION

쓰라는  
원고는  
한 손 안 쓰고!



캡션달기

**이달의 도전과제**



두 남자의 절박한 상황을 준손의 조우로 빚어져 무력한 썬스가 토틀이다. 무력보다 1년 전의 기억 때 죽어라 '조수'를 유행어로 읽었으니 예뻐서도 래이 헛바지 없었음을 증명할 것만으로도 등 차레은 충분하다. 그나저나 신하기인 요즘엔 대한 신랑생 베틀에게에 흡식 거두린 선행가 주는 준손어조수 로신 이 유행어라지?

### 기반 달 우승자

"이 상황에서 흥분하면 너만 나만 손해야. (준손들이 조우하게 된다고!!)"  
-이준 가가끼

### 그리고 패배자들

불만 갖-??? 답변만 있다 -리야와 생양  
당선 정할 MAXIM에 불만 갖? 답하는 MAXIM에도 없다.  
부위구 -3노년  
이 사진을 보고 대체 무얼? 똘이년 건? 리얼 두리위권간.  
오늘은 나가 얼드러 -대대항순순충  
이 파워 밀물승을 싸르르만 당선이 얼드러라! 할지다 모른다.

### 응모하기

1 지 만화 속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의 입에서 나온 말은 무엇일까? 갱생을 배려  
2 응모는 우편으로 (인-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로 caption@maximkorea.net 또는 갱생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만 하면 된다.  
3 가장 MAXIM스러운 밀물승을 다는 독자는 남에게 맨즈클래식에서 나온 남성용 BB 크림을 선물을 주겠다. 우왕~ 좋겠다 나니 나디!

### 기자가!타라



오리지널 멤버의  
액션 본능이 폭발한다!

빈 디젤 폴 워커 드웨인 존슨

#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

ORIGINAL FILM

PRESENTS

COMING IN MARCH 2015

[www.fastfuriousfive.kr](http://www.fastfuriousfive.kr)

PRODUCED BY

A UNIVERSAL PICTURE

PRESENTS



영화 티켓 받기

4월 전세계 최초개봉!

# CIRCUS MAXIMUS

A MAXIM VIEW OF THE WORLD



코엔젤스  
더 보기



## 자후

- ▶ **당신의 별명은?** 여단 고음 장나라, 타고난 저음이라고 음 차리가 힘들었다. 죽을 만큼 연습하니 도긴 되더라. 당신도 연습하면 가능하다.
- ▶ **남자 친구가 생긴다면?** 함께 공연이나 신을 걸으면 좋겠지 아. 이제 볼까?
- ▶ **당신만의 매력 포인트는?** 몸매 라일!

## 60 711

- ▶ **당신은 막후다. 연인들이 잘 챙겨주나?** 물론이다. 상수를 해도 예고를 부리면 웃으며 넘어가워서 고맙다.
- ▶ **우유를 좋아하니?** 초·중·고등학교 때 연세나 우유를 하루에 두~세개 먹었다. 그리고 우유라는 여간과 막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이름을 고른 것도 사실이다.
- ▶ **당신만의 매력 포인트는?** 없다. 비율도 별로고 날씬하지도 않다. 굳이 꼽자면 가슴! (웃음)

## 권라

- ▶ **당신의 별명은?** 수녀, 화장만 지우면 멋진 여자가 된다.
- ▶ **춤 할 때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방법은?** 표정. 일부러 눈을 커스조리하게 뜨거나 할 적 웃는다.
- ▶ **당신을 춤물에 비유한다면?** 두더지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 SEXY&HIP GIRLS

## 코인잭슨

후크송이 대세인 가요계에 출사표를 던진 6명의 겁 없는 섹시 힙합 걸그룹이 요기 왔네

BY 곽경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WORDS BY 김희선 HAIR 조희 경민 MAKE-UP 임정선 양어 반인애 (인뮤티코스미 02-544-0714)

FILM 김진욱 ASSISTANT 조유림

### 다리

- ▶ 이상형은? 웃을 때 예쁜 그리고 포근한 몸을 가진 남자.
- ▶ 당신만의 매력 포인트는? 발목과 입술
- ▶ 당신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물개 일투가 아닐까해서 '보노보' 노라는 소리를 곧잘 듣는다.

### 머리카락

- ▶ 당신의 별명은? 아바. 성격이 급해 어디 갈 때면 준비를 먼저 끝내고 기다린다.
- ▶ 당신만의 매력 포인트는? 귀여움과 섹시함의 공존. 불무침 머시라고 불리더라.
- ▶ 1의 힘이 생긴다면? 빨간 자동차를 살 거다. 여자끼리 물면 예쁘고 섹시하잖아.

### 은빛

- ▶ 당신의 실제 성격은? 남자 솔직하고 달달하다.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아야 할 정도다.
- ▶ 당신의 별명은? 앙을 잘 때 러시 은영이 이복구미가 뚜렷해서 꽃이님. 멤버들 손내치름 잘 챙겨서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좀 아니잖아웃음.
- ▶ 당신만의 매력 포인트는? (나무트)의 캐릭터와 주술을 흉내낼 수 있다. 유리나문에 서는 보아뱀도 모를 거다. 나중에 일본에 진출하면 싸 먹기 위해 조용히 언마중.



# 우승컵, 사이즈로 말해요!

우승컵의 등쌀(?)이 크면 클수록 우승의 감동이 온몸 가득 느껴질 테니 기쁨도 배가 되지 않을까? BY 박영현



## 1 줄리에 컵

높이 34cm  
무게 3.8kg 내외  
종목 축구(WORLD CUP)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월드컵 트로피 1949년 당시 피파회장 줄리에 아사체가 월드컵을 만든 업적을 기리려고 트로피에 그의 이름을 붙였다. 1970년 브라질이 월드컵 통산 3회 우승을 차지하여 이름을 영구 보관할 자격을 얻었는데 권리를 제대로 못해서 1983년에 도난당했다. 아직도 행적이 묘연한지라 브라질은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줄리에 컵을 만들어 보관 중이다.

## 2 레리 오브라이언 트로피

높이 50.90cm  
무게 13.6 kg 내외  
종목 농구(NBA)

1984년 당시 NBA 총재 레리 오브라이언이 현 NBA 총재 데이빗 스타인에게 자리를 넘겨주자 그공인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트로피에 그의 이름을 붙였다. NBA 우승팀이 트로피를 보관한다. 참고로 NBA의 우승 반지는 매해 디자인이 달라서 같은 팀이 연거푸 우승을 하더라도 똑같은 반지를 받는 일도 없다. 이런 센스까지!

## 3 커미셔너스 트로피

높이 60.96cm  
무게 13.6 kg 내외  
종목 야구(MLB)

메이저리그 우승 멤버들이 신나게 들고 다니는 트로피다. 1875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이 트로피의 첫수상팀이다. 최근의 트로피는 1998년 티파니가 메이저리그의 30개 팀을 의미하는 30개의 깃발을 모티브로 제작한 녀석이다. 2000년 뉴욕 양키스가 바뀐 디자인의 트로피를 처음으로 차지했다. 2008년엔 트로피의 앞부분 디자인을 살짝 손꿨다.

## 4 FA 우승 컵

높이 75cm  
무게 5kg 내외  
종목 축구(FA CUP)

FA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대회로 잉글랜드 축구협회에 속한 모든 클럽의 챔피언을 가리는 대회다. 조기축구회 수준의 팀이만도 축구협회의 소속이려면 참여 가능하며 연승을 거듭하면 프로팀과 맞붙는 영광도 누릴 수 있다. 영국에서는 리그 우승과도 비견될만큼 권위 있는 대회다. 최다 우승 팀은 11회 우승에 빛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 5 스탠리컵

높이 89.5cm  
무게 15.5kg 내외  
종목 아이스하키(NHL)

1932년 캐나다 총통 스탠리 경이 아이스하키 하키 우승팀을 위해 만든 트로피다. 지금은 NHL에서 신나게(?) 사용 중이다. 인디 500의 우승 트로피와 1.5m를 제외한다면 어지간한 트로피와 맞먹는 무게를 자랑하지 않을 당차들 자랑이다. 트로피에 전 우승팀 멤버의 이름이 빼곡하게 쓰여 있는 게 특징이다.



# “16가지의 선택”

## OVALE™ Liquid

OVALE에서 판매하는 액상의 용량은 20ml입니다.

경고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임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권장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콜,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스, 카드뮴 등이 들어있습니다.  
 니코틴 함유량 / H : 16mg, M : 11mg, L : 6mg



오벨 코리아



청춘 로맨스

# 여우비

Musical

작 곡 김혜진  
음악감독 박성진  
작 / 연출 김태환



뮤지컬 여우비  
티켓 보기

좌충우돌! 유쾌!!

사랑스런 동갑내기커플

강민경, 김우진의 이야기를 통해 들여다보는

사랑과 인생에 관한 로맨틱 코미디!



대학로 미라를 씨어터 2관 | 2011.3.11부터 평일7시30분 주말,공휴일 3시,6시 (월요일 쉼)

예매처 인터파크 티켓링크 옥션 | 전화예매 및 문의 02)742-7261~2 | 제작 (주)PAMA프로덕션 | 후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사진



# HOUSE OF WAX



## 여자들의 '거기' 털 정리법

어느덧 여자들이 여름철에 비키니를 입기 위해 거기 털을 정리한다. 요즘은 세스할 때 만족감을 높이고 패셔너블한 더 큰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미용 목적으로 털을 정리한다. 할라우드 스타를 중심으로 유행한 여성 몸은 확실히 젊은 외관 여성들에게 필수 미용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국내에도 왁싱샵이 무수히 생겨 4개월 내내 털을 뽑으러 오는 여자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거기' 위한 왁싱에서

'보이기 위한' 왁싱으로의 변화가 궁극하지 않나? MAXIM의 여자 에디터 4인이 알려주는 여자들의 '거기' 왁싱법 4가지에 주목하라.

깔끔하게 왁싱한 그녀를 만나 본 남자는 절대 그 짜릿한 매력에서 헤어지지 못한다.  
BY 이영미, 고경희, 김희성, 조유림



**할주로 왁싱**  
(Highway Waxing)  
섹시 ★★★★★  
큐티 ★☆☆☆☆  
남성 선호도 ★★★★★  
난이도 ★★★★★

세로로 일차 모양만 남기는 왁싱 방식. 남자들은 대개 여자의 털이 너무 무성하거나 털 면적이 넓으면 싫어한다. 깨끗하고 심플한 매력을 살리면서도 너무 허전하지 않게 포인트를 주는 것이 특징.

'자칫 단조로운 수 있는 8이 웨이 컷 왁싱이 어느때까지 느껴지는 이유요? 여성의 내재된 욕망을 도사린듯 모던함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이죠. 최근 청담동 샵에선 몇몇 패셔너블한 여성을 중심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변형된 '에어캡 왁싱'을 많이들 원해요.'

-주노 왁스 고경희 현장-

1백도 입을 수 있게 형은 주변까지 한 울도 안 남기고 민둥신을 만들어 준다. 네이비에 브라질리언 왁싱을 쳐봐라. 얼마나 많은 전문샵이 있는지 보면 놀랄 거다. 옛날에 10XX랑 하면 3천원 채수 없던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20만원에 옛말이 되버렸다. 기네스 펠트로, 페리스 윌트메리스의 것은 우리 모두 확인했지.' 등 할라우드 스타들이 즐기는 브라질리언 왁싱은 남자의 '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킨다.

'을 여름의 코드는 '사타구니의 순수함'이예요. 깨끗한 브라질리언 왁싱은 관음의 유희를 제공하죠. 여성에게 보이기 위한 치장용 위생의 마지막 단계라고나 할까요? -왁싱뷰티랩 조유림 현장-



**브라질리언 왁싱**  
(Brazilian Waxing)  
섹시 ★★★★★  
큐티 ★★★★★  
남성 선호도 ★★★★★  
난이도 ★★★★★



**비키니 왁싱**  
(Bikini Waxing)  
섹시 ★★★★★  
큐티 ★★★★★  
남성 선호도 ★★★★★  
난이도 ★★★★★

역삼각형의 본래 형태를 바꾸지 않고 팬티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주변만 다듬는 방식이다. 조금 수준의 왁싱이기 때문에 왁싱 초보들도 부담없이 시도하는 디자인이다.

'2007년 S/S 트렌드 전방은 자연으로의 회귀예요. 인간의 원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향이 왁싱 스타일링에서는 레트로 리버스 트라이앵글 왁싱으로 반영되죠. 이런 작업에선 인위적인 형태의 왁싱을 탈피하고 심가웃 뿌리 끝을 펴로 절감을 풍부하게 살린 삼각형 컷으로 내추럴한 섹시함을 표현해 봤어요.'

-지코 데 왁스 이영미 현장-

웬만한 A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왁싱이다. 털을 하트 모양이나 나비 모양으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최고의 난이도를 요한다. 털이 길면 생소한 라인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털 길이는 짧게 자른다. 화려하지만 상대 남성의 취향을 많이 탄다.

'버터플라이 왁싱은 한마디로 클래식이죠. 음부털을 가장 화려하고 야랑가르드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누가 작업하는가에 따라 다른 버터플라이 왁싱이 탄생해요. 바로 그 유니크한 매미 버터플라이 왁싱의 정장미죠. 볼륨 매직으로 풍성한 느낌을 주는 건 좋지만 두터지한 디테일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토니앤가위 김희성 현장-



**버터플라이 왁싱**  
(Butterfly Waxing)  
섹시 ★★★★★  
큐티 ★★★★★  
남성 선호도 ★★★★★  
난이도 ★★★★★

저 여자 머리 영색했어

# 뉴미디어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 앱스토어에서 [맥스], [MAXIM]을 검색하세요!



## iPad/iPhone MAXIM 출시 완료

iPad에서 동영상, 고화질 화보를  
화려한 인터랙티브 기능과 함께  
시원한 화면에서 즐겨라!

iPad

iPhone에서 하나의 통합된  
App으로 MAXIM을 만나라!  
무료 과월호가 짹짹하다!

iPhone

많은 독자들이 기다려온 iPhone/iPad 앱이 드디어 정식으로 출시되었다.

현재 앱스토어 인기 무료 App 카테고리 최상위에 한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스마트한 독자들이여 어서 다들 받고 친구한테 자랑하라!



#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건데요?

당신 인생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법이다. BY 리리안



## 1 피

유통기한: 5일~35일 내외

군대에서 착취당한 당신의 피도 유통기한이 있다. 혈액에 들어 있는 혈소판의 유통기한은 최대 5일이고, 적혈구는 36일 정도 묵어도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피도 여자와 화학약품 신선도가 높은 상태가 제일이니 그 전에 다른 이에게 수혈되는 게 좋다.

> **MAXIM SAYS** 혈액은 언제나 급급이 달린다. 군바리에게 피를 착취하는 이유가 있다. 당신이 극장표 일과 도구교환한 피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일은 없다. 오케이!

## 2 맥걸리

유통기한: 30~70일 내외

과다 섭취하면 다음 날 자음을 경험하게 만드는 생맥걸리의 유통기한은 30일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수출하는 맥걸리의 유통기한은 2배 이상 긴 60~70일이다. 제조업체는 90일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라나라 법은 유통기한을 30일로 못 박았다.

> **MAXIM SAYS** 맥걸리 중주국의 위험 알콜보다 신선한 맥걸리를 마실 수 있다는 데에 감사하자. 아꼈거나 60~70일이 지난 맥걸리도 먹을 수 있다는 건 신선한 충격이다.

## 3 보약

유통기한: 90일 내외

작년에 먹다 남은 보약을 먹는 건 자유다. 독을 시연하게 들어키고 싶다면 말이다. 한의학에서 조제한 한약의 유통기한은 보통 3개월 이내다. 당신이 사랑해 마지막은 증류역시 공기가 들어 있어 영양 보약이라도 6개월을 넘겨면 곤란하다.

> **MAXIM SAYS** 파우치류의 유통기한은 1년이다. 1년이 지난 건강보조 식품을 아깝다고 처둬둬둬둬 다간 당신 몸이 쓰러기가 되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을 거다.



## 4 담배

유통기한: 300일 내외

담배에는 유통기한 대신 '품질 최적 유지 기간'이 있다. 보통 10개월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수분이 빠져나가 맛과 향이 개떡 같아진다. 즐겨 피우던 담배 맛이 마음에 들지 않은 여자도 딱한 것처럼 스며 느껴진다면 편의점 알바가 유통기한이 지난 담배를 선물했다고 생각하라.

> **MAXIM SAYS** 담배갑의 끝 5자리 숫자가 90611면 2009년 6월 11일 생산했다는 뜻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담배는 폐기처분하거나 고환해 주게 돼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라.

## 5 콜라

유통기한: 365일 내외

페트 병이나 캔에 밀봉되어 있다고 유통기한이 1천만년 갈 거라는 기대 때문일까. 탄산음료의 유통기한은 보통 1년이다. 제조일로부터 6개월만 지나도 제리아의 콜라야 낭 김 반쯤 맛으로 변한다. 탄산이 목구멍을 찌르길 원한다면 유통기한을 체크하라.

> **MAXIM SAYS** 콜라를 마시면서 건강을 챙기는(?) 명종이는 없으리라 믿는다. 미국 경찰이 피자국을 지우는 용도로 사용하며, 변기 때 제거에도 탁월할 만큼 독한 녀석이다.

## 6 콘돔

유통기한: 1,000일 내외

에인이 생기면 쓰겠다고 사놓고선 책상 서랍에 3년 정도 묵혀둔 콘돔이 있다면 갖다 버려라. 그냥 버리기 아깝다고 DOR할 때 그걸 썼다가 네놈의 톨돌이가 무사하지 못할 거다. 콘돔의 유통기한은 보통 3년이지만 제품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도록.

> **MAXIM SAYS** 콘돔은 천연 라텍스로 만든다. 노화하면 파스(?)될 우려가 있는 데다 성분이 비리비리해서 당신을 땀에서 에뽀로 업 그레이드할지도 모른다. 조심하라.

## 에디터를 낚는 어부들

논 쓰는 지점에서 영화표 값 빼가는 세상. 안 당할 거라 굳게 다짐해놓고도 낚였네. 제길

\*참고로 다 재미 없었던 건 아니다. 뉴욕 관계 중 분해서 그렇지



**컨트러**  
미까 (본 시리즈와 인생사의 만남)  
에디터 흥 분병이 오그라드는 애정 영화에



**안노운**  
미까: 제의 (웨이클) 드림  
에디터 흥 분병이 잤다. 갈일이 뭐였더라?



**아이메 넘버모**  
미까 (트렌스포머) 감독 마이클 베이커 제작 참여  
에디터 흥 (후레시) 엔보다 못하다.  
(후레시)엔 기술 전열이라도 있지



**리브**  
미까: 연해사  
이 노출  
에디터 흥 다 좋다. 다만 제이크 쥘리앙의 영명이라도 늘 함께 나올 뿐이려나 애매 보인다. 내가 미쳤나?



**시람이 무사워**  
미까 (미인도)의 김규리구 김민선  
에디터 흥 5세 권명 가있어. 그걸 못 봤네. 괜히 가재래!



**타론**  
미까 (8티) (파티드) 이후 최고의 범죄 액션+충격 전율. 액션. 황외. 강렬. +스릴요 러게  
에디터 흥 충격 전율. 액션. 황외. 강렬. +스릴요 러게  
에디터 흥 충격 전율. 액션. 황외. 강렬. +스릴요 러게



이 세상 모든 부부들에게 바치는 가슴 따뜻한 러브스토리



연장  
확정

# 미드레

정보석·조재현·이광기

# 너로 바람 되어

## EVENT 1

<앵글 민들레 바람되어> '쇼도티켓'으로 부모님께 '문화생활의 감동'을 선물하세요!

- 좌석등급 : R석 45,000 → 40,000원(5천원 할인)
- 특별선물 : 구매자의 예세지가 담긴 예쁜 카드도 함께 드립니다.  
(인터넷 예매 후 사진에 예매자 이름, 관람일, 예세지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bandit8282@thebestplay.co.kr)

※ 감동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 중 매주 한 명을 추첨하여 배우가 무대에서 남뚱해 드립니다.

## EVENT 2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공연,  
목요일 오후 4시 공연 종료 후  
무대에서 '안중기'와의 특별한  
포토타임을 가져보세요! (선착순 진행)

※ 카메라는 꼭 가져오세요~!

## TICKET

부부-커플할인 20%  
(인터넷 예매 시, 증명 필요)



2011.2.25(금) OPEN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2관 예매 인터넷파크 1544-1555

www.thebestplay.co.kr

작가 박순근 연출 김낙형 출연 정보석/조재현/이광기, 감성이/손희승/김혜지, 이한위/김상규/나종민, 황영희/이지현/김송이 제작 공연발전 문의 02)766-6007



# 1mg 담배 속에서 3mg 찾아내기

사실 3mg 담배는 처음부터 없었다. 전부 1mg거든.



## 오늘의 미션

- 1 25가지의 1mg 담배를 눈을 가리고 한 대씩 피운다.
- 2 이 중에 3mg가 하나 있으니 찾아내보라고 한다.
- 3 정답을 맞힌 스태프에게 25개를 전부 몰아준다!

\* 각자 피워 먹본 25가지 중 타르 3mg 담배는 없었지만 6명 각자는 나름 자신 있게 자기가 고른 게 정답임을 확인했다. 농락해서 미안.

**눈을 가린 상태에서 그들이 3mg라고 지목한 1mg 담배는?**



\*실험 대상자 6명의 흡연 경력 총합 7년

**사**실 기껏해야 10가지 정도 되리라 싶었던 1mg 담배를 모아놓고 보니 더듬 입이 딱 벌어졌다. 저타르 담배 시장이 이렇게 치열할 줄이야 믿고 싶지도 않고, 목도 덜 갈라질 하니 저타르의 인기는 높아만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타르 담배에서 아쉬운 딱 한 가지는 역시 딱 뻑하게 빨리는 목 넘김이 약하다는 거다. 한 대를 피우고 나면 왠지 아쉽고 허전해서 자꾸 더 불뚝더를 뒤게 되니까. 뒤 어디 좀 이런 것들 없나? 3mg 같은 1mg 담배, 고기도 2인분 같은 인분, 증형차 같은 경차, 곱빼기 같은 짜장면, H1 음료수, C급 같은 A급.



MAXIM 편집부의 내로라하는 애연가 6인방이 모여 시중의 모든 1mg 담배를 피워봤다.  
 예상 외로 1mg 담배는 무려 30여 종에 육박했다. 각자 앉은 자리에서 한 갑 반을!

BY 유승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MODELS MAXIM 스태프 6인, 시흥별매 역근



실험 대상 6명 중 4명이  
 '더 원 임팩트'를 지목했다.  
**Why?**



담뱃잎에도 종류가 있다. 식물 상 태일 때 가장 위쪽에서 가장 많은 햇빛을 받은 담뱃잎을 '임팩트 리프(Impact Leaf)'라고 한다. 임팩트 리프는 잎이 두껍고, 아래쪽 잎보다 맛이 깊고 진한 정미가 있다. 더 원 임팩트는 바로 이 임팩트 리프만을 담아 '저타르 값지 않은 저타르'의 깊고 진한 담배 맛을 낸다.

**실험 대상 1mg 저타르 담배가나다스!**

- 더 원 1mg
- 더 원 양배포
- 담뱃 1mg
- 담뱃 FINE OUT 1mg
- 담뱃 NANOUT 1mg
- 리프 PREMIUM ONE
- 레드 BLACK CAT 1mg
- 마우트세르 ONE
- 마우트세르 LSS ONE
- 마우트세르 LSS ONE 연술
- 말보로 FLAVOR PLUS ONE
- 바자나아 스텝 1mg
- 보그 1mg
- 보그 acne 1mg
- 보철 사기 1mg
- 젯지 1mg
- 젯지 연술
- 엘레 1mg
- 엘레 슌
- 엘레 SPECIAL GOLD 1
- 엔드 1mg
- 골리우드 9 1mg
- 파리아먼트 ONE
- 시온

연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암에  
 원인이 되어 내기, 이웃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임팩트에는 방화성 물질인 니코  
 틴이 나뭇, 반면, 비록 개뿔이  
 적, 카도닐이 들어있습니다.

www.impact.co.kr



# 열도를 집어 삼킨 AKB48 짜응!

우리나라에 소녀시대가 있다면 일본에는 AKB48이 있다. 외모로 따지면 소녀시대한테도  
관공당할 수준이지만 어차피 열도의 취향은 AV 배군 이해불능이다. BY 라방반



열도에서 아쉽게 선보였다 매물차게 멸망한 108년뇌질즈라는 일본의 아이돌 그룹을  
아는가? 108명이라는 끔찍한 숫자로 보는 사람조차 번뇌하게 만들던 그들 풀이 날 줄  
알았거늘 AKB48이 이미 흥할 줄이야!

## AKB48의 성공 포인트!

**1 친근하고 광범한 영업 여성용 콘셉트**  
우리나라 걸그룹은 '닥치고 예쁜 애들'이  
다. 소녀시대 출연이 아무리 좋 잘 뒤흔쳐 호  
오코일 뿐이다. 이와 달리 AKB48의 콘셉트는 열  
집 여성생처럼 친근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여자 친구다. 그 말은 AKB48의 외모 기준이 우리  
나라 걸그룹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다.

**2 본인 차기 걱정 없는 라이브 무대 활동**  
오덕의 성지 아카하비리에 전용 극장을  
만들어 멤버들을 미친 듯 뺑뺑이 돌린다. 인기 열  
기 방송 스케줄로 공연에 빠질 때도 있지만 대  
체할 멤버는 널렸다. 공연을 출장 돌리니 방송에  
출연하지 않아도 본인 뽑는 덴 문제없다. 여기에  
악수회, 특전이 포함된 전용 극장 DVD 판매 등  
오덕의 돈을 흡입하는 상술에는 도가 텅다.

**3 일사불란한 팀별 활동**  
AKB48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팀(A, K, B)  
으로 활동한다. 한때는 인기 멤버가 편중된 A팀  
이 꽤 막았지만 2009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팀별로 예이스와 걸절이를 적절히 조화시켰다.  
A팀의 예이스는 마에다 아츠코, K팀의 예이스는  
오오시마 유코, B팀의 예이스는 와타나베 마유  
다. 자세한 내용은 BOX 기사를 참고하도록.

**4 대중단결한 빠스의 위생, 총선거**  
AKB48의 멤버 모두가 방송에서 활동하  
긴 무리다. 실금 음반을 내고 활동할 때는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데, 프로듀서의 마음대로 선발  
하면 뽑히지 못한 멤버와 팬들이 화를 내는 건당  
연지나다. 그래서 총선거를 도입했다. 팬들이 선  
택한 멤버가 다음 실금 음반에서 활동한다. 보통  
1년에 1번 총선거를 실시하며 지금까지 총 2회의  
총선거를 진행했다.

**5 일의 노예로 만드는 성과급제 시스템**  
AKB48은 철저한 성과급제다. 그룹 활동  
으로 번 돈은 소속사에서 비용을 재한 후 개인에  
게 할당된다. 멤버 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렇게 나누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노예처럼 솔로 활동을 해야 목돈을 만질 수 있다.  
멤버별로 버는 비용도 천차만별인데 수입 랭킹  
1위 마에다 아츠코는 일 년에 2,000만 엔 가까이  
받았고 일저지 있다. 반면 병풍 멤버는 노예처럼  
골리도 120만 엔 정도 수준에 그친다.

### AKB48의 예이스는 누구인가?

소위 '센터 리안'이라 불리는 예이스는 팬들의 인기 투  
표와 프로듀서의 멤버 선호도에 따라 결정된다. 제5  
번처는 미인인 아니라 AKB48의 콘셉트에 맞는 멤버가  
예이스 자리를 거머쥔다. 지금까지 1위 지르는 마에다  
아츠코가 제일 많이 차지했다.



## 2010년 AKB48 총선거 BEST 5

당신이 기억해야 할 멤버만 꼭 짚어 소개해준다.

**1위 오오시마 유코**  
만년 1등자 딱지를 댄 오오시  
마 유코 노래 장래 인기 장래  
예능감 좋아, 얼굴도 예뻐, 습  
가도 커, 그저 찬양할 뿐이다

**2위 마에다 아츠코**  
프로듀서 아키히토 아사시의  
총애를 담뽕 받는 AKB48 부동  
의 센터 리안이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저 오랑유랑원 뿐

**3위 시노다 마리코**  
108m 늘어난 몸매를 장려해  
모달로도 활동 중이다. AKB48  
을 졸업해도 이 정도 몸종이면  
익고살 걱정은 없다.

**4위 이타노 토모미**  
7기때부터 8기 때까 AKB48의  
얼굴 마담이다. 1인3성형 공포  
로 초치네로 거듭났다. 성형  
마취제에 예뻐하면 장생

**5위 와타나베 마유**  
귀여움으로 후학의 영웅을 출  
입했다. 만화책 좋아하면 데다  
그림 실력도 수준급이니 덕후  
리저 그에게 충성할

## 그 외 주목할 멤버

**미츠이 레나**  
북한 출신이라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청순한  
콘셉트만 살펴봐도 유심할  
은 아끼지 않는 편이 많다.

**카사이 토모미**  
전형 행하는 코스피의 소유자.  
색가 넘쳐 아츠코한테 한창  
한다. 갓신에도 좋아 일화 선  
생 코스피가 흥했어?

## AKB48의 출연료는?

총배가원정 출연료가 약 1만~20만 엔. 일원이 100명이  
니 1만엔 4500엔 6000엔 MAXM 1만엔 통성명 한 통  
정도 실 수 있는 금액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MAXIM WANTS YOU!



www.maximkorea.net  
GOGO!!

# 2011 MISS MAXIM CONTEST

1. 온라인 콘테스트 **총 상금 600만 원!**

2. 예선 통과 시 MAXIM 한국판 화보 모델로 활동

3. 34개국이 참가하는 <MISS MAXIM 세계 대회> 참가 후보 자격 부여

(※세계 대회 입상에 따른 특전은 MAXIM 미국 본사가 제공합니다.)

- 종전 MISS MAXIM 세계대회 입상자는 뉴욕의 유명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하는 특전을 누렸다. 당신에게도 기회가 있다

- 예선 통과가 안 돼도 다른 사진으로 다시 참가할 수 있다.

-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에 들어와서 MISS MAXIM 참가 신청 배너를 클릭하고, 지원자가 직접 찍은 자신의 사진 10장을 등록한다.
- 사진 등록과 함께 간단한 프로필과 '독자들에게 한마디' 를 기재한다.
- 참가 신청은 2011년 연중 계속 받는다.
- 나이, 직업 등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지만 남자는 받지 않는다.
- 낙내인으로도 참가 가능하다.
- 온라인 예선 참가 시 약간의 포토샵도 허용한다.

- 통통해도 좋다. MAXIM은 말라깽이를 싫어하니까
- 온라인 예선은 MAXIM 독자들의 호응에 따라 결정되니 색다른 사진이 절대 유리하겠지?
- 매회 온라인 예선만 통과해도 소정의 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며 단계가 올라 갈수록 상금은 가파르게 상승한다.
- 자세한 내용은 MAXIM 홈페이지([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참조하라.

# 헌 장기 줄게 새 장기 나오

식물일을 기념해 나무 대신 장기를 심어보는 건 어떤가? By 김광현



**간** 통째로 갈아 까우지 않아도 된다. 건 강한 사람 것들 때에 환자에게 옮겨 붙이گان 해도 맛이 간 간행이 의 정신을 처리게 만들 수 있다. 이진 그나마 주변 사람에게 장기 영벌이를 시도할 만하겠는데?

**심는 법 부분 아삭** 말뚝한 사람의 간을 일부 떼어내어 병이 된 간에 탑재  
**전체 아삭** 뇌사자의 간을 통째로 1명에게, 또는 2명에게 나눠 이식할 수도 있다.

**주의사항 출혈** 간이 맛이 가면 예민해진다. 이런 녀석을 건드리면 피칠갑하기 딱 좋다. 그렇다 보니 출혈 위험도 크다. 간동맥도 연결해놓는데 이 녀석이 알아서 골절 막한다.

**수술 시간** 당신이 (와우)의 때가지 전투를 몰다입으로 뛰고 나면 그전에 끝나 있을 거다.

**각막** 각막은 눈동자의 투명한 덮개다. 망가지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시력이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눈이 생선 눈깔처럼 탁해지기 때문에 보기 싫어서라도 이식할 수밖에 없다.

**심는 법 부분&전체 아삭** 각막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일부를 갈아 까우는 방법이다.  
**인공각막 아삭** 인공각막을 이식하는 방법이다. 호모로부터 각막 성분과 동일한 콜라겐족, 죽벌에 풍부하거 그것을 합성한 인공각막의 이식수술이 작년에 성공했다.

**주의사항 염증 및 녹내장** 이식 후 감염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안압이 높아져 녹내장에 걸릴 수 있다. 면역 거부반응도 조심해야 한다.

**수술 시간** 극장에서 영화 2편을 줄창 때리면 그전에 끝나 있을 거다.

**폐** 폐가 맛이 가면 악을 때려 부어도, 수술로 폐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럴 땐 쓰레기 같은 폐를 갖다 버리고 이식하는 게 정답이다. 당신 폐 말고 싱싱한 폐로 말이다.

**심는 법 생체&뇌사자 폐 아삭** 산 사람의 폐를 떼서 이식할 수도, 돌아가신 분의 폐를 남쪽 받는 것도 가능.  
**폐 또는 심장&폐 아삭** 폐 이식이야 당연한 거고, 심장과 폐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도 14로 구할 수 있고! 물론 둘 다 확보하면 하늘의 별따기지만 말이다.

**주의사항 거부반응** 거부반응을 막고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 면역력이 낮아져 악성 종양, 폐쇄성 기관지염이 생길 수 있다. 먹지 않으면 몸이 '행강'을 부릴지도 모른다. 아열.

**수술 시간** 미드 <24>의 시즌을 달려만 그전에 끝나 있을 거다.



## 셀룰러 메모리 현상

양치기가 장기 이식 후 헌사로 거듭났다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셀룰러 메모리는 장기이식을 받은 후 헌재 주인공 똑같은 행동은 보이는 현상이다. 미국의 소니 그래픽은 받은 성격이었는데, 자신과 남의 심장으로 갈아 끼우 후 우물쭈

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영국의 세릴 존슨은 고전음악을 좋아하는 교사의 심장으로 교체한 후 고전적 록 빠져 살기 시작했다. 미국 스탠퍼드 메디컬 센터의 존 스워덴 박사는 "셀룰러 메모리는 한발 상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미국의 7세 소녀 제니퍼가 누군가에게 의해 실험해머의 심장을 탑재한 후 공짜로 본 병원의 얼굴을 토대로 범인을 검거한 일도 있다. 그러나 이날 구라라고 하기도 힘들다.

즉, 이왕 장기를 교체할 거면 성격 좋게 재단이 넘치는 사람의 것으로 하란 말이다. 다시 사는 인생, 범죄자의 DNA를 달일이 보낼 수는 없잖아.

## 심장이 2개인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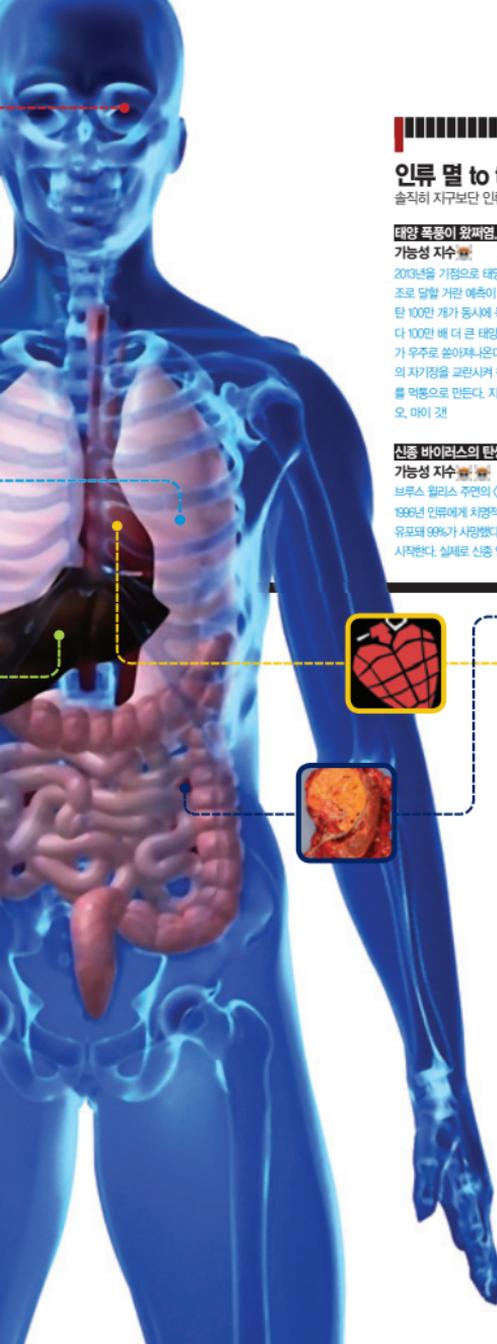


지난 2월 미국의 타이슨 스미스는 2개의 심장을 가진 새나이를 거듭했다. 멧돼지 간 심장을 제거하면 폐고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기존 심장을 내버려 뒀다. 수술이 끝나자 스미스는 "매일 강해지고 있다"고 자랑했는데, 심장 1개가 할 일을 2개가 나눠서 하니 꽤나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2개의 심장을 가진 남자'라는 별명을 가진 축구 선수도 있다. 미친 활동량을 자랑한 축구 스타 파벨 네트레드와 박지성 선수가 그들이다. 박지성의 연유 사할만 기억하는 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릴지도 모르지만, 리츠 시절 PSV 아인트호벤에서 뛰던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은 심장이 2개라고 해도 믿을 거다.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수많은 영드 덕후가 사랑해 마지않는 두터 후도 심장이 2개지?



## 인류 멀 to the 망!

솔직히 지구보다 인류가 먼저 망하겠지!

### 태양 폭풍이 왔어! 뭘 어쩌면, 부우~!

**가능성 지수**   
 2003년을 기점으로 태양 활동이 최고 조로 달달 거만 예측이 다. 원자 폭탄 10만 개가 동시에 폭발한 것보다 100만 배 더 큰 태양 폭풍 예-지 가 우주로 쏟아져-내온다. 게다가 지구의 자기장을 교란시켜 첨단 전자기기를 먹통으로 만든다. 지구가 정전인... 오 마이 갓!

### 신종 바이러스의 탄생!

**가능성 지수**   
 브루스 월리스 주연의 <2012>는 1968년 인류에게 치명적 바이러스가 유포돼 99%가 사망했다는 설정을 깔고 시작한다. 실제로 신종 인플루엔자처럼

기존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강력한 돌연변이 바이러스 하나만 인류도 바야

### 지구가 멈추는 날!

**가능성 지수**   
 지구가 정말 멈춘다면 지구의 천 중 반은 낮이고, 반은 밤이다. 태양이 비치는 것은 기온이 55°C까지 차솟고, 밤이 되면 영하 50°C로 푹 떨어진다. 지구는 빙과 눈, 추위와 더위, 습한 기후와 건조한 기후가 반복되는 생지대로 변한다.

### 외계인 행성의 위엔!

**가능성 지수**   
 미국의 한 초중학생이 미국이 발사한 핵

미사일을 외계인이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외계인이면 인류를 관망시키는 것 따위 한바닥 뒤집기만큼 쉬운 게다. 영화에서야 카우보이, 미국 해군과 공군이 외계인을 막살(신사익)한 현실에서 그런 일이 따윈 기대하지 마라.

### 핵전쟁과 핵폭발!

**가능성 지수**   
 미국과 인도, 러시아가 쌓아둔 핵무기를 서로에게 발사하면 인류는 대멸종이다. 핵보다 무서운 건 폭발 때 생긴 화염과 연기가 태양을 가리는 핵겨울이다. 참고로 <비밀(세이)트>에서 인류가 멸망한 '심판의 날'은 2004년이었던다. 하하 우리의 송라만개!



## ▶ 심장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심장이라면 살아 끼우는 게 답이다. 에이트의 노래처럼 '심장이 없어!' 라는 상황이 되면 저세상 고고성이나 노란 사망한 분의 심장을 주로 이용한다.

**심는 법 동소성 심장이식:** 심장을 속 썩 썩 자리에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방법이다. 깔끔하군  
**이소성 심장이식:** 심장을 남겨둔 상태에서 정맥, 동맥을 연결해 심장을 이식하는 방법이다. 기증받은 심장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드물게 사용한다.

**주의사항 면역 거부반응:** 이물 예방하기 위해 면역 억제 치료는 필수다. 전구를 갈아 끼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면역 억제 부작용:** 면역 억제 부작용도 있다. 바이러스를 비롯해 종양, 관상동맥 트러블에 신기능 부작용까지... 아놔 어쩌라고!

**수술 시간** (번지의 재량) 3편을 정주행하면 그전에 끝나 있을 거다.

## ▶ 신장 뭉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신장이 망가지면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만만치 않다. 정 급하면 공공화장실에 적혀 있는 '신장 판매' 번호에 전화라도 걸어봐야...

**심는 법 자가 이식:** 신장 근처에 종양이 있을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잠시 떼어냈다가 재지리에 복귀시키는 거다. 매우 드물다.

**동종 이식:** 산 사람 또는 뇌사자의 신장을 똑 떼서 이식한다.

**이종 이식:** 돼지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방법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늘 말만 무성할 뿐!

**주의사항 합병증:** 이식 수술의 성공 확률이 높아져서 합병증도 덩달아 늘고 있다. 특정 부위에 암 병변을 증가부터 골다공증, 발육 부진 등 종류도 다양하다. 신장 이식이 미루리겠다고 마음 놓았다간 x로단 애가다.

**수술 시간** 프로야구 한 게임을 보고 나면 그전에 끝나 있을 거다.



# 벌레들이 세계 정복을 못하는 이유

일주일 전 MAXIM 편집장 집에 손가락만한 바퀴 1마리가 출현했다. 예프킬라와 라이터로 벌레를 화형시켰지만 아직까지 사체에 손을 못대고 반경 1m 내에 다가가지 않고 있다. 그런 편집장에게 이 기사를 바친다. 취임 기념으로...



### I 벌레 대군 1천 경의 양방성

이미 우리의 푸른 밭은 벌레에 정복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해리스버그 대학 로버트 파레이 박사는 "현재 지구상의 벌레수는 총 1천경 마리" 라고 말했다. 1경은 10의 10승. 즉 1천 경이면 이미 19억 10,000,000,000,000,000,000 마리라니 상상이 되나? 인간 1명당 벌레 1천억7천7십만 마리를 상대하는 셈. 우리는 세계 최대의 살아있는 대군에 대적 집단과 살고 있다.

### II 벌레에게도 학습능력이?

그런데 어쩌서 이 무시무시한 벌레 군단이 우리 가정과 인간 여인들을 정복하고 압박하지 못할까? 인간 수컷이 무작이라서? 벌레들이 (나는 가수다)를 보느라 정신이 팔려서? 미국의 생물학자 마크 윌리스는 "벌레의 두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학습하는 능력이 있다" 라고 말했다. 벌레가 가끔 나보다 나를 배가 있었어, 벌여봐.

### III 하지만 대가리가 벌레 수준

예를 들어 벌은 꽃의 색과 향기를 구분할 줄 알고, 바퀴벌레는 주변 지형지물을 학습하여 당신이 방에 불을 켜는 순간 냉장고 밑으로 손실되어 달려가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걱정하진 마라. 벌레의 학습 능력은 아주 단순한 수준이다. 얼얼에 위장크림을 바르고 손도끼를 휘두르면 우리에게 담담 생각까진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심하세요, 편집장님.

### FAST FACTS: 천왕성



너 뭐하는놈이나?

이름은 알 그대로 '하늘의 왕' 이랑 맞는다. 왕성이 자재, 자백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 행성은 열으로 누워서 돈다. 아아 이더시 잠난 채하다 한 싸개기 맞고 드러누웠겠지.  
**천왕성의 하루는 17시간 14분**이다. 밥 먹고 똥 싸고 또 밥 먹고 잠만 즐은 하루 일과 끝

학계에선 천왕성에 여마이와인 양의 액체와 고체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추측이 돈다. 나사(NASA), 안 파고 뭐하냐? 학, 나사를 둘러봐라!

이كل들은 천왕성을 우라누스라 한다. 핵을 사랑 하는 이들을 마구 볼품없는 필수구 매 아임 **우라늄은 우라누스에서 이름을 따왔다.**  
2차 세계대전 때 스텐달그리트 전투에서 독일 군을 몰살시킨 **소련의 군사적명동 우라누스**였다. 중 무서운 새끼? 너 어디서 좀 놀았나?



## MAXIM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이보게 혹시 자네의 애마 천문이 아직 무색 투영한가? 자동차란 모름지기 여자를 더 쉽게 더 많이 끌어들이 위한 무기이거늘 유리알처럼 속이 훤히 보이는 차 안에서 대관절 뭘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바야흐로 여름이다. 아직 튜닝(선팅)이 되어있지 않은 맑은 유리창 달린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자, 솔라가드 이벤트에 응모하라. 튜닝(선팅)이 이미 되어있어도 상관없다. 당신 자동차 유리창에 붙은 그것보다 비싼 55만 원 상당의 최고급 솔라가드 열 차단 튜닝으로 바꿔 줄테니 말이다.

### 응모 방법

1. 당신의 애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라. 흑아 백아.
2. 사진 속의 당신이 MAXIM 4월호를 들고 있다면 당첨 확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간다!
3. 재미있고 정당한 사연이 곁들여 진다면 당첨 확률은 더 더욱 올라간다!

### 보낼 곳

event@maximkorea.net 으로 사진과 사연, 연락처를 보낸다.

### 응모 기간

2011. 3. 21 ~ 2011. 4. 15



# 남자들의 비밀스런 고민, 여유증! BY 김중국 PHOTOGRAPH BY Y TEAM

## 1cm 유륜절개 여유증 수술로 해결가능

### “모우 수유도 가능할 거 같아요”

잘-L는 5대7급 외과직장인 김민석(가명, 29세) 씨의 자조식인 농담 한번 에대리는 웃음이 터졌지만 이내 마음속 한구석이 씁쓸하다. 국민동생 이슬기름을 닮은 얼굴에 182cm 환탈한 키의 혼남인 민석씨지만 그동안 말 못할 고민에 빠져있었던 것 민석씨는 어느 남자보다 도드라지게 뻗어난 가슴이 29년 인생에도 도저히 적응되지 않는 이물처럼 여겨진다.

### 배운중, 전자후, 권상우를 달고 산다?

얼굴? 아니다. 민석씨도 생각만큼 생겼고, 나름 외모에 대한 자신감으로 흥만한 지구인 중 연령이다. 몸이다. 단단한 어깨 탄탄한 복근. 조각 같은 가슴의 몸매 여성이 봐도 아름다운 몸매가 그가 원하는 것이다. 바단 민석씨뿐 아니라. 한 눈으로 따르던 보통 남성에 비해 기준 이상으로 가슴이 봉긋한 한국 남성의

비율이 무려 7~10%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

여유증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유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의 줄임말로 남성에게 여성과 같은 봉긋한 유방이 형성되는 질환을 가리킨다. 여유증을 앓는 당사자는 외모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동반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남성들과는 다른 봉긋한 가슴 모양 때문에 상체를 노출해야 하는 목욕탕, 수영장 등의 장소를 꺼리게 되며 심한 경우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 결국 지존감 하락으로 이어져 행복관 인생을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유증을 가진 많은 남성들이 운동을 통해 개안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하지만 여유증의 원인인 유선조직은 연소되는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근력운동을 병행할 경우 대흉근을 발달시켜 여유증이 더욱 심해 보일게 된다. 유방 주위 자름이 빠져 가슴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탓이다. 또한 이미 진행된 여유증은 약물적 치료로도 완벽한 치료는 불가능하다. 여유증의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수술이다.

### 1cm 유륜절개 여유증 수술로, 티 나지 않게 빠른 회복가능!

이상성형외과에서 여유증 관련 주례로 임승림과 수술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여 가슴 뼈를 제공받은 다성형외과 김수철원장은 “여유증은 진행경도에 따라 비교적 치료기 쉬운 1등급부터 상안·여성 유방과 구분되어 가지 않을 정도의 중등인 2등급까지 분류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한다.



+ 더(가) 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은, “여성형 유방증의 치료는 유선조직 뿐 아니라 지방조직도 함께 적절하게 제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슴모양을 만드는 데에 중요하다.”며 “유륜절개를 통해 수술하는 것이 출혈을 줄이고 정확하게 유선조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고 강조한다.

김수철 원장에 따르면 여유증 수술은 ‘치료시기’와 ‘전문의의 경험’이 중요하다. 그는 “여유증 수술은 가슴성장 원로 단계에 접어드는 17세 이후에 시술받는 게 적합하며,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통해 시술 할 경우 수술 다음날부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로 복귀가 가능해 1주일이면 운동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회복이 빠른 수술이다”고 강조한다.

간혹 치료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수술한 ‘티’에 대한 우려로 수술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엔 시술 후 다음날 직장에 복귀하는 사람들도 많을 만큼 시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다. 보통 남성들과 다른 봉긋한 가슴모양으로 고민 중인 남성이라면, 여유증 시술 문의를 통해 ‘자신감’을 찾아보는 것을 아깝까? 다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은 그 해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의료 실현을 위해 진실된 의술로 다가갑니다”



**김수철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대동량 자담병원  
학회 발표패널

- 1회 (가) 성형외과 원장
- 안산중앙병원 성형외과 과장 역임
- 피디(가)병원 성형외과 과장 역임
- 1회 서울시산병원 성형외과 외래교수
- 국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두개안면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성형외과개원협의회 정회원



www.theclinic.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10-5 구경빌딩 5층  
더 성형외과,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TEL. 02-3446-0055

## 스미노프 블랙과 함께 하는 보드카 칵테일 교실

만날 소액만 맡아먹는 것도 지겹다. 그래서 프리미엄 보드카 스미노프의  
브랜드 앰버서더 칵테일을 한국으로 소환했다. 자, 이제 섞어보련?

1 퀴텀



2 블랙엔토닉



3 지프레시



4 메이플 카이피로스카



## 1 쾰뎀 Quantum

**재료:** 스미노프 블랙, 아페롤 또는 캄파리, 오렌지 주스, 오렌지 제스트(껍질을 얇게 자른 것) **얼음:** 조각 얼음  
**잔:** 차갑게 한 마티니 잔 **장식:** 오렌지 제스트

스미노프 블랙 40㎖, 아페롤 20㎖에 주스를 붓고 얼음과 함께 넣고 셰이킹한다. 차갑게 둔 칵테일 잔에 여과하여 붓는다. 오렌지 제스트로 장식하여 낸다.

### 에디터 시음기: ★★★★★

붉은 오렌지 빛깔의 술은 달콤한 과일 맛을 연상시키나 뒷연 빈잔이 있다! 상큼한 오렌지 맛과 향이 에피타이저나 디저터처럼 맛의 일과 뒤를 완성한다. 다연. 젤룰하면서 씹새래한 맛이 메인 디서다. 켄자어 (007 쾰뎀 오브 솔러스) 개봉 기념으로 만든 칵테일이다.



## 3 스미노프 블랙 앤 토닉 Smirnoff Black and Tonic

**재료:** 스미노프 블랙, 토닉 워터 **얼음:** 각얼음  
**잔:** 손에 잡히는 대로 (하지만 하이볼잔이 마시기 좋았다) **장식:** 라임

스미노프 블랙 40㎖, 토닉워터 120㎖를 얼음과 함께 마신다. 라임으로 장식한다. 얼음 넣고

### 에디터 시음기: ★★★★★

만들기 쉽다. 그것만으로 별 개를 추가했다. 우린 계르르나, 심플하고 개운한 맛에 보드카의 달콤함이 실력 없었다. 여기에 상큼하고 시원한 라임향까지 어우러져 여름 드링크로 완벽한 발판스 를 이룬다.

## 2 메이플 카이피로스카 Maple Caipiroska

**재료:** 스미노프 블랙, 라임 조각 4~5개, 메이플 시럽 1바스프, 흑설탕 1바스프  
**얼음:** 조각 얼음 **잔:** 텀블러 **장식:** 얼음

라임과 설탕, 메이플 시럽을 넣고 머들러로 사정없이 으갠다. 여기에 조각얼음과 스미노프 40㎖를 넣어 잘 저는다. 여기에 얼음을 더 넣어 서빙한다.

### 에디터 시음기: ★★★★★

정말 시원하고 달고 맛있대 달다고 좋아라 마시다가 예미예미도 못 알아보게 될 것 같더라고 쓰고 작업용이라 읽는다.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에디터만큼 좋아하진 않을 것 같다. 쓴 칵테일을 좋아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강력추천한다.

## 4 지프레시 G-Fresh

**재료:** 스미노프 블랙, 핑크 그레이프 프루트(자몽) 주스, 토닉 워터 **얼음:** 각얼음 **잔:** 하이볼 잔  
**장식:** 핑크 그레이프 프루트 조각

잔에 각얼음을 채우고 스미노프 블랙 40㎖, 주스 40㎖를 붓는다. 여기에 토닉워터 80㎖를 붓고 저은 뒤 핑크 그레이프 프루트로 장식

### 에디터 시음기: ★★★★★

매우 신맛하고 싱그러운 맛이다. 그레이프 프루트 특유의 씹새래한 맛이 너무 강하지만 않으면 한국 입맛에 더 잘 맞을 것 같다. 참고로 그레이프 프루트는 대형 마트에서 쉽게 주스나 과일 형태로 구입할 수 있다.



[ SPECIAL TREAT ]

사니온 사과와 함께 먹는 프론트 스미노프 블랙  
재료: 사과 조각, 계피가루, 스미노프 블랙 1병



보드카를 병째 냉동실에서 하룻밤 동안 얼린다. 살짝 점성이 생겨 목감기에 편해진다. 손님들이 오면 샷 잔에 보드카를 채우고 그 위에 사과 조각을 올린다. 그리고 계피가루를 뿌려 대접한다. 이제 한 손에는 얼린 보드카와 다른 손엔 사과조각을 들고 "건배"를 외친 뒤 완성하고 사과를 한입 먹는다. 독특한 술을 더 편하게 마취할정말이 완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티피 드링크로 감추다

활동사진으로 만드는 법 보기



지프레시



블랙앤토닉



퀀텀



메이플 카이피로스카

## 켄지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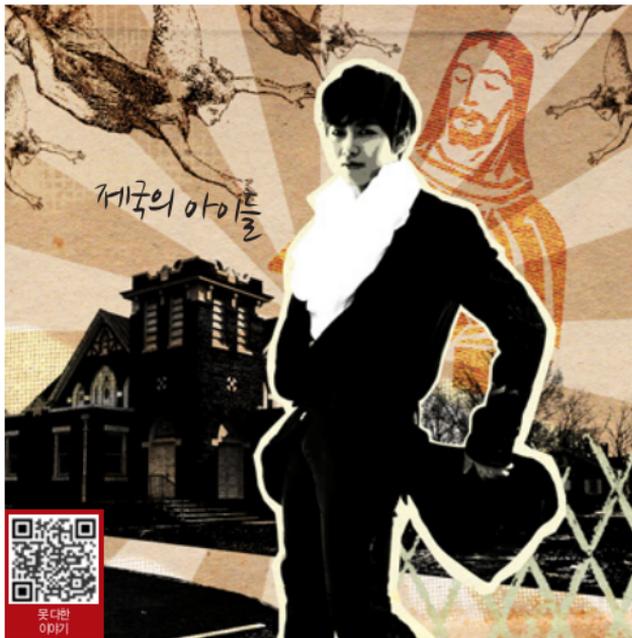
런던의 스피릿슈얼 어드바이저에서 디렉터로 활동 중인 믹 슬루저스트로, 스미노프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글로벌 브랜드 앰버서더로 투직을 뛰고 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칵테일이 그의 장기.

“취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건, 임신을 위해 섹스를 하는 것과 다를 없다.”



켄지 인터뷰 보기





**24 HOURS TO LIVE**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길거리를 가리낌 없이 다니나?  
여동생과 소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얼굴 가리고 다  
니면 할인을 덜 받잖아.

얼마까지 깎아줬나?  
80%. 어떨 때는 가져 주시기도 한다.  
특히 식당에서는 돈을 잘 안 받는다.

죽어도 포기 못하는 물건이 있다면?  
파운데이션 비비크림은 커버력이 약  
해서 별로다.

곧 정규 앨범이 나온다. 파드는 좀 늘  
었나? '마젤트브(Mazeltov)'에서 당  
신의 파드는 6초에 불과했다.  
네 번의 후렴구 중 두 번이나 내가 센  
타에 선다. 멤버들과 회사 측의 배려  
대중들의 사랑이 나를 센터로 가게 해  
줬다. 내추럴하고 와일드하며 따뜻한  
이미지를 한번에 보여줄 거다.

지금 마음에 드는 여자 연예인은 없나?  
에프엑스의 크리스탈, 솔직하고 착하  
고 나한테 잘해준다. 크리스탈이랑 친  
해서 내가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해도 신  
경 안 쓴다.

제국의 아이돌 멤버 중에서 외로운  
순위를 매긴다면 당신은 몇 등 정도  
인가?

7, 8등. 다른 자연스런이니까. 나보다 못  
생긴 애 두 명 정도는 있다.

죽기 전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애네는 살고 나만 죽는 건가? 그랬다  
면 "내가 가지고 있던 애장품을 너희에  
게 주겠다. 자식 대대로 물려줘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  
기회를 주겠다.

그게 어? 아이들도 MAXIM을 본다.  
MAXIM 항상 즐겁게 보고 있다. 인터뷰  
를 하게 돼서 영광이다.

## 마성의 아이돌 광희

누나가 한마디만 할게. "이렇게 솔직한 아이들은 니가 처음이다." BY 광희성 ILLUSTRATION BY 이은석

### 자, 어떻게 죽고 싶니?

네, 내가 죽는다고? 교회에서 회개하  
고 죽고 싶다. 생각했던 이미지랑 완  
전 다르지?

당신과 인터뷰하겠다고 했더니 소속사  
에서 성형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더  
라. 방송에서 성형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가장 남한테 혼났을 것 같다.

당신도 제일 없은 것 같아 성형 사  
실과 노래 실력까지 고백했어. 단  
약이 사실을 숨겼다면 언 오히려 비호  
감에 대해 말하고 다하는 걸 좋아했어.  
성형이 잘돼서 좋다.

### 주위에서 뭐라고 하던가?

"내가 방송에 나가서도 솔직하게 이야  
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진짜 얘  
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

### 외모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디인가?

얼굴 전체가 다 마음에 드는데 아무래  
도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코가 제일  
마음에 든다. 그런데 이 얘기도 집지에  
나갔나? 회사에서 성형 얘기 하지 말  
라고 했는데. 어차피 MAXIM은 솔직한  
잡지니까 숨기는 것보다는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드라마 <광학반>에 카메라로 출연했는  
데, 본인어 보기가 어땠던가?

이상하게 나를 줄 알았는데 정말 귀엽  
더라. 사실 그렇게 귀엽게 나를 줄은  
몰랐다. 마음에 든다.

### 목소리나 늘 하이라이프이다. 안 피곤한가?

딱 한 번 피곤했다. <강상징>에서 10시  
간 녹화를 하는데 데뷔하고 나서 처음  
으로 말을 많이 했다. 뒷골이 멍기는  
기분이 어떤 건지 처음 알았다.

당신도 연예인인데 동방신기를 연애  
인 처음 보는 사람처럼 좋아하더라. 실  
제로 봤을 때 가장 예쁜 연예인은 누  
구였나?

전지현 선배님. 숨어서 봤는데 몇몇걸  
이 장난 아니었다. 그래서 '제국의 아이  
돌 황광희' 라며 인사를 했다.



# RATED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 LOVELY 바네사 허진스

2009년 MAXIM이 선정한 가장 sexy한 여인 리스트에 27위로 이름을 올린 바네사 허진스. 필리핀, 중국, 스페인 활동의 난자와 아일랜드와 인디언 혈통의 정자가 만나 이 천사를 만들었다. 키 164cm의 적절한 키와 잦았던 바스도 애교 있는 목소리 그리고 장난기 가득한 천사의 미소를 지닌 그녀는 영화와 뮤지컬 배우, 가수로 활동 중이다. 그런 그녀에게도 시련이 있었다. 한창 꽃다운 이마지로 주가를 올리던 2007년 9월 어느 날 그녀가 갱소하고 있던 자신의 누드 사진과 랜제리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그녀는 곧 "이런 사진을 찍어서 부끄럽다"며 사과했지만 2년 뒤 또 다시 그녀 휴대폰 속 상반신 누드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됐다. 이와 별개로 음반 계약이나 수의 배분 때문에 몇 건의 소송까지 치러야 했었다. 그녀는 산후조리 기간에 20대 여배우로 성장했다.

바네사는 지난해 12월 남자 친구 잭 에프론과 헤어졌다. 올해 2009년 《아이 스크 뮤지컬》에서 만난 둘은 '제외 브랜델라 카를'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이제 친구로 남겠다고 발표했다. 얼마 헤어진 연인들이 종종 거는 '몸 친구는 아니겠지' 인터넷에도 그녀는 지난 3월 농구 경기장에 병맛처럼 생긴 남자를 끼고 나타나 수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잘 들어, 병맛 남자가 절고 예쁜 아가씨를 커블로 묶는 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나서 꺼져. 그녀 옆에서 숨도 쉬지 마!

### ➔ 바네사 허진스가 누구라고? 그녀의 남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집단지들

**생년월일:** 1989년 12월 14일  
**대표:** 2003년 영화 《베탄》  
**대표작:** 《아이 스크 뮤지컬》 《드림 일드》

#### 특이 사항

— 그녀는 공포 영화, 포르세 키러라 GT, 일리사 키스와 쉐린 디온. 록을 좋아한다.

— 친구 대신 광고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발탁되었다.  
— 2007년 크리스마스에 조지 부시 대통령과 그 가족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 아쉽게도 부시에게 신발을 던지는 돌발 액션은 하지 않았다.  
— 2010년 뮤지컬 《렌트》에서 여주인공 미미 역을 맡아 공연했다. 그녀는 《에비

타》(오즈의 마법사) 〈왕과 나〉(신데렐라) 〈노트의담의 꿈주〉(인어 공주) 등의 뮤지컬에도 출연한 바 있다.  
— 그녀의 첫 뮤지컬은 《오즈의 마법사》였다. 여기서 난영이를 연기해 50달러를 벌었다. 그녀는 2008년 《모브스》가 선정한 '30대 이하 감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사랑해요.

4월 《그녀의 새 영화 〈센스8〉와 〈새커 펀치〉가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센스8》와  
《새커 펀치》  
해고된 보기

# 써커 펀치 드링크 러브



+(300)과 (왓치맨)의 감독 잭 스나이더가 새 영화 (써커 펀치)로 돌아왔다. 이 영화는 평평 터지고 깨부수는 장면과 각기 다른 매력의 탱탱한 다섯 여배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아가씨들의 열연에 그저 수저 하나 올려놓은 잭 스나이더 감독이 영화 속 인물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래, 그런 거라도 해야지.

## 바네사 하진스 블론디 역

"블론디는 입이 무척 길고 성격도 강하죠. 하지만 (하이 스피크 무지함) 속 귀여운 소녀 바네사가 기만충을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그리 여성하지 않거든요."

## 제이미 청 엠버 역

"엠버는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예요. 베이비들에게 신뢰를 심어준 첫 인물이자, 파말링이라 싸움은 많이 안 해요. 물론 연기를 한 제이미는 일생일대의 격투를 경험했겠지만요."

## 지나 말론 로켓 역

"한마디로 거친 여자인데요. 그녀를 믿었던 큰일 나죠. 나머지 소녀들에게 정신병원을 탈출하라고 설득하는 인물입니다."

## 에밀리 브라우닝 베이비블 역

"(써커 펀치는) 정확히 말하면 탈옥 영화입니다. 베이비들은 탈주를 리드하는 소녀예요. 언약해 보이는 그녀에게 엄청난 포스가 있죠요."

## 애비 코니시 스윗 피 역

"베이비들이 정신병원에 도착할 풀 스위트 파는 이 정신병원의 여왕벌과 같은 존재였죠. 처음엔 베이비들을 막 데려다가 돌이 운영 공동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써커 펀치) 예고편 보기



예쁜 10대 소녀 '베이비들'이 사악한 계부의 손에 정신병원에 갇히고, 그 안에서 만난 4명의 소녀와 함께 정신병원에서 탈출하려 한다. 베이비들의 상상과 현실 사이의 판타지 세계. 풍금 같이 무사나 괴물과 싸우는 전투, 아이템 5개를 모아야만 탈출할 수 있다는 (드래곤볼)식한 스토리가 뒤섞인 판타지 SF 영화 '스ucker 펀치'는 칸, 일간 미소녀 때와 액션 판타지만 바라보는 관객에게 4월 7일 개봉

- ▶ 각본 작업에만 무려 5년이 걸린 (써커 펀치)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작에 돌입했다. 스나이더 감독이 (왓치맨)을 만들기 전부터 매달린 생
- ▶ 감독 본인 입으로 이 영화를 이렇게 소개한 바 있다. "기만충을 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용. 폭탄. 그리고 매용공을 섞었다."
- ▶ (300)과 '본 시리즈'의 스탠트 감독이 이 영화에 참여해 주인공 여배우들에게 12주간 지속 훈련 시켰다. 하루 6시간 주 5일의 혹성 훈련을 통해 그녀들은 무려 98kg의 웨이트를 들어올리는 전사로 탈바꿈했다.
- ▶ 어딜 가나 똥이 치는 애들이 꼭 있는 거면, 바네사 하진스는 (논스톱)라 할정 때론 남보다 눈썹 훈련에 합류했다.



**본노의 잠주 안미티드**  
블록버스터의 시즌의 포문을 연다. 맥스 시리즈 (본노의 잠주 안미티드)가 오리지널 형편비 주인공 빈 다델과 플워커를 앞세우고 미국과 브라질을 넘나들며 미친 자동차 레이싱을 선보인다. 이들을 추적하는 '더 락' 드래그 선수까지 가세해 화려 기록 스포츠드와 액이 넘쳐난다. 당연히 세련한 아가씨와 더불어 색다른 자동차가 준비되고, 세련한 자동차가 만가지는 전연도 준비하다. 4월 21일 개봉



**파이터**  
남자는 주먹 딱 한 번 수가 레이를 쓰러뜨린 걸 평생 자랑으로 삼는 전직 복서 디케크리스찬 베일리 그의 동생이자 시인이 남도록 남의 승술만 올려주는 백업 복서 마이크로 월버그, 마키는 양당이 사교형치 다카의 독선적이고 극성 맞은 매니저인 엄미에게서 떠나서 에이전시를 만난다. 당연히 미국의 가족들이 생년리를 치고, 할리우드 영화 담겨 무척머리 회색하면서 끝난다. 감독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래마지만 코믹한 요소가 많아사인지 꽤 웃기다. 상영 중



**킹스 스피치**  
아다다다다... 2차 세계대전 중 병역 아니게 왕위에 오른 조지 6세는 사람들 앞에선 서연 말을 하지 못하는 일더이다. 이를 고치기 위해 아내 엘리자베스 스 왕비가 괴상한 언어 치료사를 데려오서 일더다. 영국을 구해내려고 애쓴다. 그녀 일더다 "작업을 바꾸지 못할 테니까", 2011년 영화제의 50만 상은 다 잃은 작품인데, 상 받은 영화치고 꽤 재미있다. 특히 주인공 줄리안 파슨의 말더미 영국 왕 연가 레일 리얼하다. 3월 17일 개봉

# Re, Re, Re!!!

리메이크가 풍년이다. 추억을 끌어먹고 사는 건 왕년의 인기 그림 찌리 멤버나 할리우드나 마찬가지다. 이 중에서 과연 돈벼락을 맞을 놈은 누구?



## → 토탈 리콜

얼굴이 6단 찬밥처럼 갈라지는 장면 대거리에 박힌 추적 장치를 쿡쿡멍을 췌기 유방 셋 달린 여자 진짜 눈갈 튀어나오는 모습 등의 영장연은 남긴 1990년 SF 흥행작 《토탈 리콜》이 리메이크된다. 미국 개봉은 2012년 8월 3일이다. 1월 9일엔 배우 콜린 퍼렐이 캐스팅됐고, 오는 5월 토론토에서 제작에 들어간다. 리메이크는 무엇보다 각본이 가장 중요한다. 《이콜리브리》의 감독 커트 위머가 영화 각본을 맡아 기대를 모은다. 3D 영화는 이날 가능성이 높아, 눈갈 튀어나오는 장면을 3D로 보고 싶어 하던 팬들이 탄성을 했다. 원작 영화보다 필립 K. 딕의 원작 소설 《도메카로 기억을 팝니다》에 가깝게 만들 가능성이 높으니, 전 해 서모는 영화가 나올지도 모를 일. **캐스팅 추천** 이블드 슈워제더거 외엔 아무도 떠오르지 않는다. 내 기억을 리콜해줘

## → 보디가드

“엔~다~아~”를 외쳐 부르던 휘트니 휴스턴의 《보디가드》가 리메이크된다. 이번호도 여주인공은 다비가 될 예정이다. **캐스팅 추천** 다비러린 역시 인순이, 케빈 코스트너 역엔 해럴드 홀슨이 맞

## → 로보캅 리부트

MGM이 고철 광풍에 다시 기쁨질을 하겠다고 나섰다. 배우와 감독은 미정. **캐스팅 추천** 크리스찬 베일, 배트맨도 했는데 로보캅은 갱이치.

## → 헬로우 고스트

《헬로우 고스트》가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된다. 할리우드 팬 《엽기작》그만큼 민감한 것도 나쁘진 않았지만, 인기 민중 기대 안 한다는 소리가~. **캐스팅 추천** 차태현 역엔 벤 스틸러, 반대 할배 역엔 로버트 드 니로.

## → 피터팬 비긴즈

《피터팬》의 뜻밖인 로맨스가 재현되는 게 싫었는데, 현재 피터팬 역으로 거론되는 배우는 《스텝 업》의 채닝 테이텀이다. 한국 나이로 32세인 중국 질 남자가 타이즈를 입고 나는 간개. 《베트맨 비긴즈》 뺨치었다. **캐스팅 추천** 이왕 캐스팅 이렇게 망한 거. (트랜스모타)의 제논은 스타덤을 킁카벨로

## → 블레이드 러너

필립 K. 딕 원작의 SF 명작이 리메이크된다. 마니아가 많아서 손 대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부담을 뒤집어줄 감독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토퍼 놀란. 원작 감독 리들리 스콧 중이다.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놀란 감독이 워낙 숙련하니 리부트는 좋아하니 다행 몰지 않을까 예상된다. **캐스팅 추천** 누가 웨슬러 스니입스 러? (블레이드) 아~ 땀겨

## 이달의 공연

무대에도 봄이 왔다. BY 김진욱

### 뮤지컬 여우비

그녀의 사랑은 강둑, 남자의 사랑은 강동. 작은 그녀를 보는 것



연제 오프린  
에서 대현로 미라클시어터 2관  
문의 02-742-7261~2

장작극은 어렵다. 재와 김동까지 있기는 더욱 어렵다. 《여우비》에는 이 두 가지가 버무려져 있다. 봄바람으로 일렁이는 여친의 가슴을 감동으로 촉촉하게 적시거나 흥분한 자못, 오프 초반인지든 배우들의 호흡은 짙은 편이다. 주인공 4인의 연기는 파워풀하다. 특히 극중 ‘중년’의 이광기는 실례받은 빅 재이를 풍자, 상투적인 내용이 매끄럽지 않은 시건 연걸은 육이던 시건 공연 초반엔 질 감안하면 흥분의 기대할 만하다.

### 연극 민들레 바람 되어

얼마. 이복 일에서 떠났던 우뚜뚜뚜뚜뚜.



연제 2011년 5월 29일까지  
에서 대현로 아트원시어터 2관  
문의 02-766-6007

아내의 무덤가에서 남편이 하는 고백 형식으로 전개되지만 작품은 무척 유쾌하다. 20대가 정당한 공연장에서 40, 50대가 볼 만한 웃을 만한 공연이다. 봄나들이에 부모님 손을 꼭 잡고 관람하면 해리리드도 유자로 갱생할 수 있다. 장보세 조재현, 이광기, 이현우 등 캐스팅 같은 명배우 캐스팅은 제쳐두더라도, 연극영화의 훌륭한 작품 선정위원을 위한 작품

### 연극 장석초대 사람들

독서와 산악스포츠를 위해



연제 2011년 3월 27일까지  
에서 대현로예술극장 대극장  
문의 02-745-4566

김소진 그의 이름은 모를지라도, 문학고교에 살던 단원 (자전기 도록) 정도는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동영 정연 소설 《장석초대 사람들》은 연으로 만든 이 작품을 70년대 사람들의 생활을 깊게 파고 든다. 67년의 배우가 이미 다져준 연백히 안간다는 것이 매력 포인트. 젊은 예스도들 뛰어 놀고 이해하기 쉽고, 특색이런 방언으로 구사하는 말풍선을 하나씩 살펴보는 신선한 재미가 있다.

# 당신의 봄을 지워줄 게임들



게임 영상 보러가기

재미는 기본이고, 한글화까지 마쳤습니다. <b>고갱님</b> BY 김상현



## 디시디아 012 파이널판타지

기종 PSP  
제작사 스퀘어 에닉스  
장르 드래그라이트 프로그레시브 액션



**GOOD:** (파이널 판타지)의 오덕이라면 정말 잘 게임  
**BAD:** 캐치티도 많고, 장시간 있고, 심지어 신만화(?)까지 하다.

(파이널판타지)의 2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으로 역대 주인공이 싸구려 모여 박 터지게 싸운다. 이번 작품은 캐릭터 맵, 새로운 백그라운드 뮤직 등을 추가했다. 20년이 지났고 맹랑한 주인공의 모습은 변장 상하지만 부모님 몰래 숨어서 게임하던 추억을 생각해 너그르게 넘어가도록 하자. 최근 중편의 소프트웨어 판매량이 쓸쓸해서 중문화를 하는 길에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결리리리 꼬이 붙었다는 소문이 있다. 결국이 취급을 당해도 한글화하면 대환영이다.

## 마계전기 디스가이아4

기종 PS3  
제작사 니폰이치 소프트웨어  
장르 시뮬레이션 RPG



**GOOD:** 바둑+시뮬레이션 RPG 덕후라면 단치고 찬양  
**BAD:** 복잡한 게임 시스템이 싫은 이에겐 지옥

밝고 귀여운 캐릭터에 흑색사 시작하면 인생 퇴락하기 딱 좋다. 어떻게 생겨 먹은 게임이기에 스토리 모드보다 사나워오는 도전 과제에 더욱 불타오르게 만든단 말인가! (디스가이아4)에 빠지면 "게임의 엔딩을 부 후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된다"는 팬들의 우스갯소리가 더 이상 농담처럼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작품은 PS3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해 일러스트가 게임 화면에 더욱 녹아들어 보는 즐거움을 추가했다. 게다가 한글화도, 전쟁 당해낼 수가 없다.

## 포켓몬스터 블랙/화이트

기종 NDS  
제작사 한국 닌텐도  
장르 RPG



**GOOD:** 어설픈 RPG에게 불꽃 싸대기?를 날릴 만한 완성도의 게임  
**BAD:** 굳어서 초콜릿 냄새가 진동할지도.

(포켓몬스터)가 초딩이나 좋아하는 유치한 게임 같다고? 물론 (포켓몬스터)는 초딩이 더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어지간한 RPG 게이미 X잡고 반성할 만한 완성도를 베이스로 깔고 있다. 여기에 포켓몬스터 수집 욕구를 불태우는 진정된 덕후 게임이다. 이번 작품은 시리즈 최초로 3대 3 배틀 시스템을 채택해 전투의 재미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필멸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닌텐도 한국 지사가 한글화까지 마쳤다. 한마디로 지르란 소리다.

## 게임 속 그녀들을 찾아서

(비교처럼 크고) 말이 요기 있네



### 1. 말라 나의 아이기 엘리아

모달: 아이유

이유지의 위엄 그대가 예뻐유(아름답게)를 타고 달리는 모습에 수많은 게이머가 하이라제 게임에 접속했다. 덕분에 유저가 흥한 엘리아의 게임 분위기는 성공적이었다. 재래로 된 광고 모달이 게임을 살렸다. 물론 게임의 재미가 뒷받침되었기 가능한 일일지도언만 말이다.



### 2. 드라고나 온라인

모달: 아이유 소라

이제 끝말이잔 단박일 도둑 아이유 소리는 여전히 후레리에서 잘 먹힌다. 광고 사진과 컷이 "유지"를 조심하라"는 영감(창조)이란 남자라면 그대의 마음에 있는 가슴부터 떠올렸을 테니 그런 것쯤 상관없을 거다.



### 3. 풀미 온라인

모달: 스티 걸 서먼지

즐거는 서먼지를 이렇게 망뜨리는 것도 능력이다. 콘셉트 화보가 게임의 인기 수준이다. 서먼지가 세시한 웃을 입고 춤을 뜬 모습을 가해했는데 이런 뒤 풀미를 만들어냈으니 말 다했다. 모달만 잘 보면 다이다!



### 4. 시타원터

모달: 레이스 모달? 어떤 뭐...

(시타원터)를 좋아하는 게이머 수준을 왜로 보는 건가? 차라리 두르면 그저 금수유신할 줄 알았나? 게이머의 게임에 대한 관심도 안습인데 모달은 더 안습이다. A/ 배후 테스타! 차라리 나뉘을 거다. 예유, 말을 말라.

# 4월에 들을 만한 4장의 음반

입맛에 따라 골라 들을 4장의 신보 BY 김광현



## 1 [ 라디오헤드 THE KING OF LIMBS ] 우물쭈 우물을 넘어서라

**외로움이 극에 달해 우물쭈우로 변해버렸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나아흐른 걸 보거나 너무 허려 강경히 지나 뛰어간다”고 믿고 있었지 우울한 걸로 치면 라디오헤드는 단연 독보적이다. 음반을 정주행하던 방구속에 대가리를 차박으며 ‘세상으 끄라 그 래’라고 외치게 되지만 어지런히 일은 끝하게 넘기는 내성도 생겼다. 한 번도 번신 길지 않았던 음악과 동인지 등장인지 직접 악보짜야 작성이 풀린다면 유튜브에서 신곡 ‘로투스 클러워’의 뮤직비디오를 찾아봐라. 팬이라면 4년 만에 나온 신보를 감상하기 전에 우물쭈우에 걸릴 각오부터 해야겠지?



## 2 [ 브리트니 스피어스 FEMME FATALE ] 색어도 준치

**노래를 귀로만 듣는 게 지겹나?**  
까칠고 밀해서 정장적인 수컷은 수컷 보임이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해도 과하지 않는다. 살이 찌더라도 몸매가 예리한 듯해도 뉘뉘쪽으로 몸을 돌리며 색시 한 순소리를 뱉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에게 끌리게 마련이다. 10년 전 ‘옵스 나는 그걸 또 해버렸어’라고 외치던 싱크롭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애 넣은 아홉 마가 마음먹고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또 색다른 골칫함을 선사한다. 팜프 퍼팔리아는 이번 음반의 콘셉트와 중독성 강한 싱글 ‘홀드 업 애겐스트 미’만 들어봐도 견적이나온다. 이번 음반은 레알 물건이다.



## 3 [ 바스코 GUERRILLA MUZIK: 진짜 남자가 왔다 ]

**잘치러내 나는 합탈에 걸려버렸나?**  
아차씨 냄새 물씬 풍기는 울드 보이 바스코가 돌아온다. 가리온처럼 대중음악성을 거머쥔 거만 가래는 하지 않는다. 합탈은 어찌피 걸것을 아게 뽕차림 가득 넣은 후 날 버리고 간지연과 이 세상음 신나게 까는 게 묘미 아니겠나? 게다가 이번 3집은 부다 시온스에서 벗어난 왓데리라고 대중 눈치 따위 보지 않고 확고하게 만들었다니 벌써부터 통고구 울짚거리다. 불일 달린 남자와 배반한 걸그룹을 보여 질질 싸는 상징은 이해하지만 가끔은 남자의 음악으로 미호 본능을 충족해두자.



## 4 [ 코다 쿠미 DEJAVU ] 진짜배기 여가수였다

**어슬픈 아이들을 보는 게 괴역인가?**  
섹시한 열도의 여가수 코다 쿠미에 눈길을 돌릴 때다. 들보잡 가수가 될 뻔했지만 섹시 콘셉트로 변신한 후 인기 가수 대열에 합류했다. “30대 중반을 넘은 여자의 양수는 색다”는 캐드림으로 본인의 인기가 문드러질 뻔했지만 노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짜배기이다. 이번 음반은 11주년 데뷔 기념에 9번째 정규 음반이라는 타이틀을 끼얹어(짱구는 못말려) 주제를 비롯해 15곡을 풍성하게 담았다. 그녀의 노래라곤 ‘큐티 히키에 모르는 당신이 질러도 본전 생각만 일은 없을 거다.

### 여고생 시스테 그리고 소녀 그녀들이 당신의 청모습을 찾게 해줄 거다.

**케이온 O.S.T. 케이온!**  
교복 입은 여고생 밴드라는 콘셉트로 멜로도를 정중된 에-페이션스 (케이온)의 O.S.T.가 정식 발매된다. 일본판 음반을 지른 덕후는 안습이지만 그녀들에게 스타코가 튀기 시적인 덕후엔 최고 선물이다. 음악을 듣다 보면 그녀들 생각에 “이오 엔.라”라는 말이 떠올라 줄까?



**미미 시스테즈 미안하지만 이젠 전설이 될 거야**  
전미미 되고 안 되고는 말 바 아니지만 그녀들이 ‘장가하여 얼굴에서 보아준 청순함’ 높은 모습을 떠올린다면 과거의 반역에는 오기로 충분하다. 그녀들이 어떤 수직을 향했는지는 몰라도 신중헌 김창환 등 돌연어 참여한 이들의 면모도 화려하다.



**상해 소녀 소녀 방송 합창단 반야심경**  
4집인데 시원하게 물음 줄 알까 하나 없는 신세라린 이침에 마음의 열매나 되찾아보지. 상해 소녀 소녀 방송 합창단이 좋아하는 반야심경과 함께 라린 정신은 이제 여자의 양내 따위 말고 싶지도 않은 청정한 새내로 거듭날 수 있을 거다.



### CREEPY HEADS

**1** 라디오헤드는 자신들을 스티로 만든வர் ‘크립’을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은 해체한 오아시스도 노래 놀라가의 말미에나 마무리 시론으로 노래를 불러도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든 라디오헤드의 음악은 여전히 ‘크립’이다.  
**2** 라디오헤드는 ‘크립’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광고기나갈 10분 만에 원성한 후 즉석에서 작사·작곡해 불렀다는 전설(거)이 있다.  
**3** 라디오헤드는 어찌 내한 적이 없다. 일본에는 저주 홀로르면서 유독 우리나라에는 들리지 않는 걸 두고 이런저런 설이 있지만, 그들의 열혈 팬인 AV 배우가 화끈한 서비스비를 제공해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쯤 말고.

# 연애의 신이 알려주는 연애 비법



미더, 파더는 알려주지 않는 '연애 잘하는 법'을 지금 공개하며 왜? 봄이니까. BY 김미영

QR 코드를 스캔하고 이 책이 필요한 이유를 댓글로 달아라. 에디터 마음에 속 드는 댓글이 눈에 띄면 연애의 신 한 권을 골라주겠다



## 첫인상 뒤집는 법

첫인상으로 승부가 갈리는 만남에 의존하지 마라. 기만히 앉아서 관습을 사람을 소개받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소개팅은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락 자체를 차단하거나 아무래도 성형 확률이 떨어진 다. 오묘에 자인기 없는 사람들은 '나이팅게일법칙'을 기억하면 된다. 환자와 간호사의 경우는 반드시 만나야 하는 관계로 오랜 시간 서로에게 매력을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되면서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법칙이다. 첫인상으로 승부가 갈리는 만남보다 꾸준히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 의무 때문이라도 계속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동호회나 학원 같은 장소에 승부수를 걸어라.

## 멘트 잘 날리는 법

상황에 맞는 감정을 표현하면서 멘트를 날려야 그녀가 유쾌하게 느끼지 않는다. 말투나 표정도 중요하다. 사랑을 표현하는 멘트 자체가 답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막상 주인공이 돼 역할에 몰입하면 유쾌한 멘트도 크게 공감할 거다. 낮간지러운 멘트 어이대로 된다. 여자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별 건 아닌 대사에도 감동을 하지만, 드라마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넌 나의 이상형'이란 말을 실제로 들어본 사람을 조사해보니 정말 좋게 반응이었다. 이런 흔한 멘트조차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 멘트를 날려서 상대를 허여공 자기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라.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 데이트 승률 높이는 법

최선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가진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에도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한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상대가 좋아하는 걸 무작정 좋아한다고 하다 보면 그것이 곧 매력 없는 자신의 모습이 되어버린다. 스스로 자신감이 없을 때 먼저 공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남에 앞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좋은 건 좋다고 싶은 건 싫다고 얘기할 수 있다. 단, 부정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게 좋다. 상대가 '커피 좋아해요?' 라고 물었을 때 '커피 싫어해요' 가 아니라 '커피보다는 녹차를 더 좋아해요' 라는 식으로 말이다.

## 건어물녀 포시는 법

건어물녀는 '연애를 해보니 별로더라' 하는 경우와 연애를 자포자기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전자인지 후자인지 파악한 후 공격하라. 연애를 해봤지만 현재는 연애에 관심이 없는 여자에게는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고, 연애를 자포자기한 그녀에게는 '당신, 꽤 괜찮은 여자야' 라는 말로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야 누군가에 대한 애정도 품을 수 있을 것 아닌가. 남자 싫어하는 여자 없이 여자 싫어하는 남자 없다. 남자가 싫어하는 건 여자 없이는 사랑이 아니다. 남자가 싫어하는 건 여자 없이는 사랑이 아니다. 남자가 싫어하는 건 여자 없이는 사랑이 아니다. 남자가 싫어하는 건 여자 없이는 사랑이 아니다.

## 연애의 신 / 해님 출판사

연애 입문 단계에서 취미와 잘 자세, 갈거리 헌팅, 사내 연애, 카페에서의 작업법, 일당, 상대를 시로시키는 멘트 등 중요한 연애 전략이 수록됐다. 병영.

## 저자 송창민

수백 명의 여자를 사귀었던 결코 바깥이라는 이름의 이 시대의 진정한 로맨티스트. 대한민국 1호 연애 컨설턴트. <연애의 신> (여중의 가을) <연애의 신> 등 많은 연애 서적을 집필해 모여 솔로들의 열광적인 찬사와 지지를 받고 있다.

## INTERVIEW



당신은 '연애의 신' 아내 여자 친구는 남편이었는지? 노면트, 사생활이라 굳이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연애 컨설턴트인 연애는 게 일로 느껴질 때도 있었어. 연애가 일인 연애나 행복하진 않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를 하면서 영감을 받는 거다.

마지막으로만 연애 기술을 습득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연애를 위한 조언을 하자면?

MAXIM 독자 중 군인들에게 말하고 싶다. 군대에 있는 데도 연애 책들을 읽어서 '왜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연애에 대한 자질을 군대에 있을 때 많이 익혀두면 재대할 때 연애는 변신할 수 있다. 군인이라고 해서 재대할 때까지 연애를 못하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나는 일할 때 휴가 나가서 여자를 만났었는데, 그 여자 친구가 재대할 때까지 기다려줬어. 마지막으로도 항상 칭찬과 격을 보면서 감을 익히게끔 신경 써라. 감은 한번 두면 지

TOP

## 연애를 위한 잔치식

일어두면 잔치식 싸움을 날이 오겠지

그녀가 당신에게 반하지 않는다는 신호

- 4~5분 전화는 가는 동안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다.
- 만나고도 하면 자주 바쁘다며 다음으로 미룬다.
- 사귀지는 말아 무척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살라고 말한다.
- 문자를 무시하고 절대 답 문자도 주지 않는다.
- 무척 딱딱하게 표현한다.
- 내 이야기엔 집중하지 않고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 최근에 헤어진 남자 친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다.

## 환영한 문자 메시지 활용법

- 사귀지는 말아져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실수는 하지 말자. 문자 메시지를 통한 고백은 성의가 부족해 보여 심리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화가 났을 땐 적어도 30분 이상은 마음을 가다듬은 후에 여자 메시지를 보내야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
- 고분로 답장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화난 듯한 느낌, 추궁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관심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 문자 메시지의 기운에서 승리라는 법은 따로 메시지 자체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의 단어 수를 줄이는 것이다.



# MAXIM KOREA

**2권 이상 무료 배송**  
**배송비 함께 기준 인터넷 최저가**

MAXIM을 인터넷 서점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면?  
 지난 호 MAXIM을 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maximkorea.net](http://maximkorea.net)으로 오라!

## MAXIM DIGITAL CONTENTS

그대가 진정 MAXIM의 마니아라면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으로 당장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다!

- 최신호 티지는 홈페이지 이벤트와 함께하는 선물 세체
- MAXIM 고화질 화보와 원페이지 다운로드 서비스
- 잡지보다 저렴한 가격의 MAXIM e매거진 보기
- 촬영장의 생동감이 살아 있는 MAXIM 영상 무료 공개
- 잡지에는 없는 미공개 화보 및 가사 앨범
- 연예인보다 색다른 MAXIM 독자 모델들의 화보 감상





필 쟈

## 세상이 바뀌어도 수컷은 '곧추 서야한다'

WORDS BY 장재미

록 스피릿에 원시적 본능을 마음껏 짜질러 붐이 여떠한게 필 쟈와 옐로 몬스터즈가 "당신을 기다린다야/~~~~애"



한글  
보러가기

### 1 바뀐 일상, 그러나 여전히 사람

**twitter**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필자는 유선전화, 뽀빠, 시티 폰을 거쳐 현재의 스마트폰과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몸소 체험했다. 또 레가리 만나면 통신기기의 발전으로 일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를 때도 있다. 하지만 계층에 뽀빠에 찍어준 '1004'라는 숫자에 필름 같은 그해나 트위터에서 프로필이 근사한 여자가

해주는 리트윗(재전송)에 웃음이 땀겨 터지는 지금이나 삶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좇대 없이 생각이 바뀌는 주인공이란 수중의 아이폰이 길을 못하겠다고 드러놓지는 않았으니 참 고마운 일이다.

무런 일이 없다는 사실마저 끊임없이 트위터를 통해 재질대는 친구, 선배, 어른을 보면 더욱 그렇다.

### 2 달라진 세상, 한층 여성스러워진 수컷

그렇지만 분명 세상은 달라졌다. 전화를 건 사람의 변화가 바로 휴대폰 액정에 뜨는 시대를 살아온 이들은 "누구세요?"라는 말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아 본 적이 없다. 늦은 밤에 걸려와 아무 말 없이 끊는 전화가 주는 묘한 느낌도 모른다. 생인 남자는 감정 표현에 서투르고 과묵하다는 암묵적인 룰 역시 옛날 일일지도 모른다. 자기가 뭘 먹었는지, 무슨 일 때문에 짜증이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심지어 아

### 3 육식남의 후예에게 초식남이 킬맨인가



하지만 나이든 남자에게 여성적 기질을 알날의 겸이다. 타리마수나 고구마 케이크를 옆에 끼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며 아메리칸노 황을 주고받는 것이 행복이라면 그게 어디 남자가? 우리는 엉덩이 큰 여자일수록 얼굴을 오래 기억하며, 끼어들기 하는 일차에 백류를 날리는 거친 존재다. 근처에 있는 낯선 동물들 핏줄로 쳐 죽여 어깨에 둘러맨 채 집에 찢퍼져 내려놓은 육식남의 후손이란 말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초식남 놀이에 빠져 도끼 자루 색은 줄도 몰랐던 말인가!

#### 4 수컷의 본능을 록으로 '골추 세우라'

그렇다고 길거리에 뛰어나가 핏줄로 쳐 죽일 동물을 찾진 마라. 우리는 이미 현재의 물질문명에 최적화 된 상태다. 선사시대의 인류의 레일 선지 쏘는 푸드 코디네이션을 따라하는 건 무리수다. 타진이나 부시맨 코스프레 역시 (S) 특공대에 출연할 의도가 아니라면 겁이 차우라. 대신 박력 있고 화끈한 록을 맞이하면 제대로 된 록 밴드의 라이브만큼 수컷을 '골추 세우게' 하는 건 일이다.



#### 5 '골추 세우기' 적절한 록 그룹 필름

미국 얼터너티브 록의 대명사이자 90년대를 뒤흔든 그런지 열풍의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필 잼(Pearl Jam)이다. 그들의 최고 기록은 '발에 첫 주에 가장 많은 음반을 판 밴드'다. 두 번째 음반 (S)는 발매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96만 장을 팔아치웠다. 포하나의 진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발매도 음반 차트 200위 안에 가장 많은 음반을 동시에 올려놓았다. 남들은 평생 자기 음반 한 장을 차트에 올리다가 어렵다는 주류 음반 차트에 필 잼 형님들은 라이브 음반만 7장을 집어넣었다. 후덜덜.



#### 6 해리핀도 정식 발매하는 자비로운 형님들

필 잼의 팬들은 팬덤이 두둑고 충성도가 높기로 유명한데 공연의 감동을 공유하기 위해 공연 실황을 녹음한 해적판을 만들기 시작했다. 팬의 순수한 취지에 공감한 필 잼 형님들 이들이 만든 수백 장의 해적판을 수집해 한 명 한 명 정성들여 정식 음반으로 발매했다. 이런 음반의 종류만 72장에 달했으나 필 잼의 라이브 사랑과 팬들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을 거다. 얼마 전 발매된 (라이브 온 텐 레그즈)(Live On Ten Legs)는 최근 12년간의 라이브 중 예가스만 모았다. 신드롬을 일으킬 당시의 히트 곡과 핵심 있게 레전드의 길을 걷고 있는 근래의 곡이 황금 비율로 담겨진 열반이다. 특유의 시지후를 내리키는 리드 보컬 에디 베더의 목소리를 듣노라면 속이 다시 시원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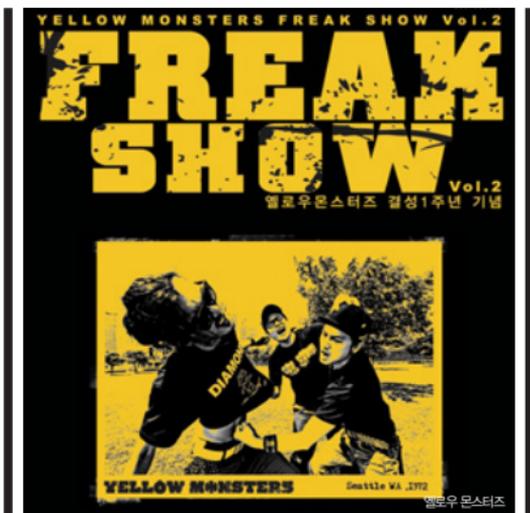


#### 7 한국의 진짜끼 록 스피릿 옐로우 몬스터즈

그렇다고 록 밴드의 라이브를 강령화라고 말하면서 이미 '박제'로 변해버린 라이브 음반만 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직접 보고 들어야 제대로 된 록 스피릿을 느낄 게 아닌가! 다행히 우리 곁에도 필 잼 부럽지 않게 관공과 할기가 조화를 이루는 형님들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감성, 마이 언트 메리, 델리 스파이스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베테랑 로커들이 (7)투합해 민트 슈퍼 밴드 옐로우 몬스터즈(Yellow Monsters)를 꾸려줄 수 없다.

#### 8 록 밴드의 필수 조건 역시 OK!

사실 록 밴드에는 다도 말고 다도 말고 제대로 된 남자 멤버 3명만 있으면 된다. 열혈 싸움기를 책임질 음색 사원(원하든) 쇼맨십 좋은 기타리스트, 20~30대 여학생과 오피스 레디미를 유혹할 거러진 좋은 베이시스트 공연 장비 담당 스태프의 가슴을 애대우며 나뭇 록을 쏘는 언-를 커버하는 파워 드러머만 OK! 여기에 셋 모두 보컬이 가능하면 금상첨화! 옐로우 몬스터즈는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 여기에 '노망 취급은 싫으니 계급장 없고 무대에서 화끈하게 한 번 부자'고 말하는 쿨함까지 갖췄다. 4월 16일 홍대 플링클에서 잠성 1주년 기념 공연이 있으니 수컷의 본능을 '골추 세우고' 싶다면 그곳에서 형님들을 맞이하도록 사전에 정보를 그들의 홈페이지([www.yellowmonsters.net](http://www.yellowmonsters.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 FITNESS

BY 김성민 PHOTOGRAPHS BY 박한빛누리

## 광속 펀치의 위엄 영춘권

영춘권을 만만하게 봤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닥에 키스하고 있을 거다.



홍대 앞에 발정난 젊은 것들만 튀었거кін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무협지에서나 보던 무림고수이자 영춘권의 달인 박정수가 여기 있다.

### 배움의 시간 영춘권 걸왕기 '넌름 넌름' '아오 쯤내'

상대의 공격을 흘리고 동시에 공격하는 게 영춘권의 기본이다. 기술성은 평등이 발음에서 유래했으니 그러래니 하고 넘어가자. 기술은 같잖이 나뉘진 게 아니라서 상함에 맞게 각각의 동작을 적용하면 된다. 이어지는 공격은 '연환권'으로 묶어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 1. 탄사오



STEP 1  
간받친 녀석이 주먹을 날린 다. 어썸!



STEP 2  
바깥쪽에 들어오는 공격을 손 날로 막는다. 사살!



STEP 3  
동그사리에 주먹을 내치른다.



STEP 4  
공격을 막았건 손으로 재차 공격한다. 와우!

#### 2. 간사오



STEP 1  
간받친 녀석이 이제 다짜 공격을 시전할 기세다.



STEP 2  
손날로 다리를 막음과 동시에 오른손으로 턱을 강타한다.



STEP 3  
공격을 막은 손으로 재차 공격을 준비한다.



STEP 4  
두 차례의 연속 공격으로 상대는 이미 날아가고 있다.



### 영춘권 달인 박정수

그와 나는 인터뷰를 공개한다.

#### 영춘권은 언제 시작했나?

술치기 잘 모르겠다(웃음). 무술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책을 많이 찾아보고, 영춘권을 배울 수 있는 나이(3세)가 되자 자연스럽게 도장을 찾았다.

####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서 당신을 울리기러온 허급한 건 어떻게 생각하나?

아쉽다. 방송국에서 중간에 포맷을 바꿔 연습하는 것도 버렸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대거 편집. 어썸했던 그 덕에 영춘권이 많이 알려진 게 사실이니 그러래니 한다.

#### 영화 <엽권>의 영춘권과 실제 영춘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화에서 싸우는 장면은 과장됐다. 영춘권은 1초 안에 승부를 거른다.

#### 여자가 배우기 좋은 무술이란 소리를 들었다.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무술이니 권역이 부족한 여자에겐 효과적이다. 동작이 과격하지 않아 몸에 무리도 주지 않는다. 1~2년 정도 꾸준히 수련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몸통이 지나는 법도 배워간다.

#### 그렇다면 여자 관원도 많나?

많지는 않다. 5~6명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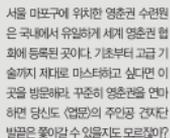
#### 아침코, 당일 같은 무림고수도 걸그룹을 좋아하나?

예전에는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웃음).

#### 영춘권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몸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다. 당신 몸의 기둥을 한번 느껴보도록!

### 박정수의 영춘권 수련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영춘권 수련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 영춘권 협회에 등록된 곳이다. 기초부터 고급 기술까지 재료가 미스탁하고 살다만 이곳을 방문하면, 꾸준히 영춘권을 연마하면 당신도 <엽권>의 주인공 겸 대박품을 꽃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나?

문의 [www.wingsun.kr](http://www.wingsun.kr)  
02-338-7551

# SPORTS

## 2011년 프로야구 시즌 개막!

매일 저녁 차맥을 치며며 야구를 볼 수 있는 행복한 시절이 돌아왔다.



BY 김상현 IMAGE Getty Image

### [ 2011년 프로야구 이모저모 ]

#### 스폰서 롯데카드로 전격 교체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올해 말까지 계약되어 있던 C를 까고 롯데카드와 손을 잡았다. 롯데카드 는 스포츠 경기 후원을 통해 사회공헌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프로야구가 흥하기까 승기력을 얻어보겠 다는 심보에 불리하다. 롯데카드가 KBO에 얼마나

돈을 치러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작년 스폰서 없이 시즌을 시작할 위기를 구원해준 C.롯데 KBO가 계약 교체를 요청한 건 정말 개량이치 같은 행동이라 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라니 KBO를 '개비'라고 부 르는 거다. 제9구단 창당과 관련해서도 롯데에 찰떡 붙어 X교를 신나게 활이데다니 하는 꼬리지가...뽏뽏

#### 자상파 DMB의 위업

> 야구 팬이라면 지금 당장 자상파 DMB 나오는 기기를 영업하러 올해 국내 프로야구 전 경기를 지 상파 DMB에서 전격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NH, UH, OES, MEN 이 4개 채널에서 매일 4경기 정규 시즌 532경기를 모두 커버한다. 인기 없는 팀이라도 중 계에서 질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올래 그 뿐 아니라 SBS ONBC는 박찬호 이승엽이 속한 오 리кс 출신팀 72개팀을 단독 중계한다. 폰이트, 테 블릿이든 자상파 DMB만 나오면 그곳이 야구장이 다. 야구 팬이라면 이제 집에 가는 길이 지루할 틈 이 없을 거다.

#### 무승부가 억울했던 승률 계산법은 가라

> 2010년에는 '무승부=패배' 였다. 그래서 3승 2루 5매인 팀과 3승 7매인 팀의 승률은 같았다. 당연히 무승부를 기록한 팀은 열불이 날 수밖에 때까지도 않았는데 저다고 통 치면 누가 좋아하겠나? 그래서 올 시즌은 전례 경기에서 무승부 경기를 댄 경기수 로 승수를 나눠 승률을 계산한다. 한미디로 3승 2루 5매인 팀은 8경기에서 3승을 거둔 셈이니 승률이 0.375가 된다. 3승 7매인 팀은 10경기에서 3승을 거 뒀으니 승률은 0.30이 된다.

#### 경기 수는 그대로, 포스트 시즌 연장전은 3회 더

> 경기 수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팀당 133경기 총 532경기다. 대신 포스트 시즌 연장전은 12회에서 15 회로 3회 더 길어졌다. 그 덕에 무승부는 좀처럼 나 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다. 경기 시간은 평일 오후 6시 30분, 주말과 공휴일 오후 5시다. 개막전과 어 연이날만 특별히 오후 2시나 참고할 것. 적어도 경 기 시간 정도는 제대로 알아두어야 주말 낮에 야구장 을 찾는 망신을 당하지 않을 거다.

#### 기아 타이거즈, 허각에게 물 먹다

이놈의 생취, 출연료가 도대체 얼마야?

기아는 4월 2일 홈에서 펼쳐질 삼성과의 개막전(슈 스케 2) 우승자 허각을 초대할 생각이였다. 그의 골목 있는 인생 자체가 매력적이고 판단행기 때문이다. 그 뿐지만 허각의 출연료는 기아가 준비한 총액 1,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였다. 고작 노래 1~2곡을 부르는 자리에 그 이상의 돈을 지불하기로 곤란했던 기아는 허각을 꿈꿔왔던 포가했다. 현명한 판단이다. 차라리 그 큰이런 상상한 걸그룹을 부르는 게 백배 낫 다. 단영이 동주처럼 하라기 때문 개나 주라지

## 이달의 스포츠 소식

액기스만 모았다.



### MLB 소식

#### ① 밀워키의 에이스 잭 그레인키, 갑비해 골절

밀워키가 유망주를 달달 털어서 모시고 온 에이스 잭 그레인키가 농구를 하다가 갑비해 부상을 당했다. 리버랜드를 하다가 갑비해를 실컷 치렀는데? 병원에 가보니 전지 4~6주 진단이 나왔다. 앞으로는 농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레인키의 과한 농구 사랑 덕분에 밀워키는 개막 전 투수가 DL(부상자 리스트)에서 시작하게 됐다. 빌 아더클!

#### ② 아담과 김성민, 오글랜드 애슬레틱스에 전격 입단

아담과 그의 4번 타자이자 포수인 김성민이 계약금 5만 달러에 오글랜드 애스에 전격 입단했다. 오글랜드는 그가 괜찮은 파워를 가진 유타이자 포수인 점을 높게 샀다. 게다가 투수 출신이라 이대도 강해서 포수로서 송구 능력도 수준급이다. 최근 김성민을 비롯해 신진호(화수고), 최지민(동산고) 등 A급 포수 유망주의 해외 진출이 이어지자 가족이나 포수 자원이 부족한 국내 구단들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 K리그 소식



#### ① 아레나 파크 공개

인천에 축구 전용 구장이 생겼다. 올해 8월 완공을 목표로 한 '인천 송의 아레나 파크'가 주인공이다. 아레나 파크는 축구장의 사각을 최대한 열어 팬들이 한눈에 축구볼 수 있게 배려했다. 해풍과 태풍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건 강건이고, 그라운드와 관중석간 거리 차이가 불과 1m에 불과하다. 팀 벤치가 유럽 스타디움 관중석 안에 들어가 있기에 현장은 '그라운드' '저는 수준'이다. 인천의 축구 팬들은 벌써부터 가슴에 아드레날린이 흥어쳐 나오겠다.

#### ② 리얼 TV의 K리그 중계

지상에서 K리그를 중계하면 차기 골리는 대로 방송을 끊어버리니 K리그 팬으로서 화짜지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돈급이! 리얼리티 전문 채널 (리얼 TV)가 '2011년 현대오일뱅크 K리그'의 매 라운드 2경기를 생중계한다고 발표했다. 기쁘면서도 왠지 모르게 당혹스러운 기분이다. 올해는 의무 인체의 지원을 받아 중계를 진행하지만 내내부터는 직접 중계에도 도전할 생각이라고 하니 K리그 팬 보이면 (리얼 TV)를 격하게 지켜주도록 하자.

### 2011년 프로야구 각 구단 캐치프레이즈

#### SK Do dream! SK

Wyers! Let's go V4!  
→ 다른 팀 같으면서 भी 야망기름을 받을 문구지만 SK는 가능하고도 남을 것 같...

#### 삼성 "Yes We Can"

→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뉘 강등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내가 뭘을 알아야지

#### 두산 "All In V4! Hustle Doo 2011!"

→ 2011년에는 2010년처럼 뜻대한 야기지 말고 SK도 한번 지켜보라 야마다.

#### 롯데 "팬들의 사랑과 함께한 30년, 2011 정상 오르기"

→ 을 시즌 후 이대호가 떠나고 채우기 어려워 자리 잡으면 팬들의 인기 한 방에 흑 건다. 정상 좀 차지하자

#### KIA "New Challenge! Let's Go V11!"

→ 벌써 V11을 향해 달려가나? 하긴 SK와 다행을 따서 제대로 이긴 팀은 너희가 유일하다.

#### LG "팀워크와 근성의 LG! 승리의 트윈스!"

→ 그지 열·꽃·기 동맹에서 벗어나는 길로 감지 먹었다. 왜? 승리의 트윈스? 팀워크? 근성? 해나 갈이 LG 트윈스와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야.

#### 넥센 "Go for the Championship"

→ 우승은 바라지도 않는 데 이제 제일 선수 그만 팔아라 죽을지라도 생각해

#### 한화 미명

→ "칭고 골예 악수 톨다" 라는 말처럼 캐치프레이즈를 영영 안읽으면 안될지나 말았으니까...



### KBL 소식

#### ① KT의 창단 첫 우승, 전창진의 위업

전창진 감독은 우승 창부시다. 부산 KT에 부임한 지 2년 만에 정규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이전 팀까지 합치면 총 네 번째 정규 리그 우승을 거머쥔 셈이다. 동부를 떠나 KT의 지휘봉을 잡을 때만 해도 그가 이렇게 빨리 시즌 우승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짐작한 이는 없었단다. 오히려 전창진 감독도 선수들을 받지 못한 신신우 전(前) 감독의 전철을 밟을 거라 예상한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보란 듯이 2004년 1월 창단한 KT에 7년 만에 첫 우승을 안겨줬다. 이전 뒤 감독의 역량을 까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 양식! 본격 예능 데뷔

(남자의 자격) 고정 멤버 자리는 내로망스

작년 상성에 등을 떠밀려 은퇴한 양식이 (남자의 자격)의 고정 멤버로 발탁되어 흥 때문에 하한된 김성민의 자리를 대신한다. 빠르던 이달부터 그를 만날 수 있다. (남자를 연출한 PD는 "양식은 사랑 냉파가 난다"며 "야구에서는 열이지만 순수한 매력 있어 발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긴 양식이 40대 초창기 시절로 살아 왔으니 훗날이 냉파는 끝내 주장하지 않을까. 음... 양식은 프로야구 해설사란,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던 정신이 하나도 없겠다. 이래다 장기간 단지가 없는데 간여지 모르겠네. 물론 남 격정할 차지는 아니지만...

### LEGEND OF THIS MONTH

인타벌의 연금술사 전(前) 삼성 투수 성준  
그가 던지던 공 전설이 되었다.

#### ① 등판 후 17분 만에 cougar 던지기



→ 구원ంలో 등판한 성준은 1루 주자를 묶어두기 위해 미세한 톨한 견제구를 던지며 7분을 보냈다. 등판 후 체력이 된 초구를 던진 건도 없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X 명칭이다.

#### ② 포수 사인 8연속 거절하기

→ 사인 잘못 사인이 없었던 포수는 타선 자비를 거절했다?

#### ③ 14회 연속 견제구 던지기

→ 비운의 주인공은 유지현 선수



# SPORTS

## 원손잡이는 정말 야구의 달인인가?

“원손잡이는 무조건 야구를 시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야구에서 원손잡이는 환영받는다. 메이저리그의 전설 베이브 루스, 일본의 홈런왕 왕정치, 아시아의 홈런왕 이승엽 역시 원손잡이였다. 원손잡이는 정말 야구를 위해 태어난 존재일까?

WORDS BY EGOIST

자료 참조: 야구의 물리학, www.baseball-reference.com, www.fangraphs.com

### 원손잡이의 우월함

원손잡이로 태어날 확률은 30~35% 정도다. 하지만 오른손잡이가 주류인 세상에서 원손잡이로 사는 건 만만치 않다. 대부분 오른손잡이나 양손잡이로 위장한 채 살아가고, 우리도 리모컨이나 친구자다. 인구의 2%만이 온전한 원손잡이다. 양손잡이까지 포함해 약 9% 정도다. 하지만 스포츠에선 양손(또는 양발)의 차이가 투수의 구속, 패스의 정확도 등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오른손으로 시속 145km의 직구를 던질 수 있다면 좌완 투수가 되는 게 백 배 내다. 5km의 구속 차이로 비롯될 성적과 연봉의 차이는 엄청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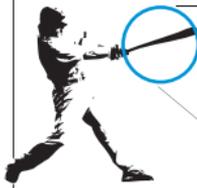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원손잡이임을 커밍아웃하는 경우가 많다. 좌완이 구분되는 야구에서 이런 현상은 더 뚜렷했다. 메이저리그의 전설 중 상당수가 원손잡이였고, 이들이 리그를 지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야구의 물리학)의 저자 로버트 에데어 교수 역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밝혔다.

### 로버트 에데어 가라사대!

■ 1984~1987년 MLB 타격 통계

타자	투수	좌완 투수			우완 투수		
		타석	안타	타율	타석	안타	타율
좌타자		25,121	6,451	0.2568	69,188	19,756	0.2885
우타자		56,821	15,989	0.2813	119,190	31,571	0.2649
스위처		19,772	5,319	0.2690	43,235	11,694	0.2705
전체		101,714	27,759	0.2729	231,613	63,021	0.2721

그는 타격 통계로 좌·우 타자의 타율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이유를 완벽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나름의 설명리는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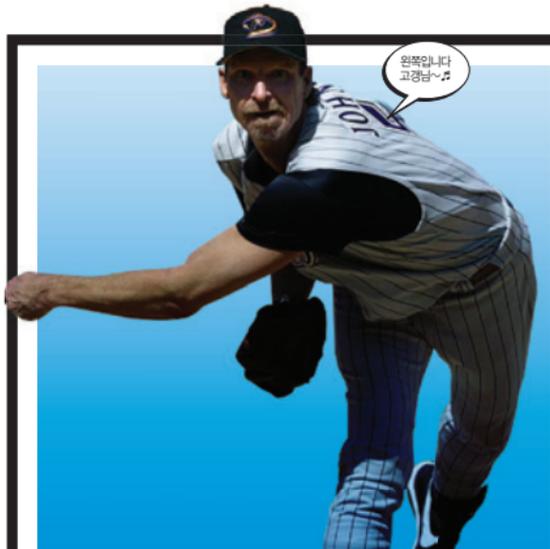
### 스윙 스폿이란?

배트에 충격이 주면 방망이가 좌우로 진동한다는 걸 알고 있나? 스윙 스폿은 이 진동의 직육 - 반직육이 공에 100% 전달되어 비거리는 최대가 되지만 손잡이엔 아무런 느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말한다. 간단하게 말해 배트의 중심이다.

타자가 한쪽편의 직구를 예상했는데 바깥쪽 또는 안쪽 변화구가 들어오면 공이 배트에 맞는 위치는 달라진다. 우타자의 바깥쪽으로 공이 휘면 배트의 끝부분에 맞고, 안쪽으로 휘면 배트의 안쪽을 맞는다. 당연히 소프트한 배트 끝이 맞는 공은 뒷맛이서 파울이나 볼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배트 안쪽에 맞는 타구는 파울보다 안

타가 될 확률이 높다. 오버핸드(정통파로 알려진 대부분의 투수도 실제로는 필의 각도가 내려간 슬라이더형 투구 폼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투수가 던지는 공은 직선이나 님 / 대각선에 가깝게 날아간다. 변화구 역시 생 각보다 바깥쪽으로 휘어 나간다. 타자로서는 안쪽보다 바깥쪽으로 휘는 공을 대처하기가 더 어렵기

에 우타자는 우투수가, 좌타자는 좌투수가던진 공이 상대적으로 치기 어렵다. 하지만 야구계의 속설 중에는 좌타자는 좌투수의 발이(리안) 우타자는 투수를 가리지 않고 삼자저 좌투수는 좌·우타자에 게 모두 강하다는 믿음이 존재한다. 레깅? MAXIM 이 직접 검증해봤다.



**검증 1** 2000년대 타자와 투수별 성적은 어떻게 다를까?  
메이저리그의 지난 10년간 상황별 타율과 OPS(출루율+장 타율로서 가장 보편적인 기록)를 살펴보자.

[2000년대 평균 좌·우투수 및 타자 성적]

연도	상황	타석	비율	타율	출루	장타	OPS
2001~2010	우타자	1,082,499	57.8%	0.282	0.326	0.416	0.742
	좌타자	790,147	42.2%	0.267	0.342	0.426	0.768
	우투수	1,369,883	73.2%	0.264	0.332	0.420	0.752
	좌투수	502,763	26.8%	0.264	0.335	0.421	0.756

레임! 좌타자  
성적이 좋다!

좌투수 > 우투수

지난 10년간 투수들은 좌·우타자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성적이었다(OPS 0.752/0.756 - 이하 OPS). 타자는 **좌타자가 우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0.768/0.742). 하지만 이것은으로는 아니다. 선수들의 기록을 다시금 타자별, 투수별로 분리해냈다.

[2000년대 좌·우투수 및 타자 세부 성적]

연도	상황	타석	비율	타율	출루	장타	OPS
2001~2010	우타자(vs. 우투)	719,288	38.4%	0.258	0.318	0.408	0.726
	좌타자(vs. 우투)	650,585	34.7%	0.271	0.347	0.434	0.781
	우타자(vs. 좌투)	363,211	19.4%	0.270	0.341	0.433	0.773
	좌타자(vs. 좌투)	139,552	7.5%	0.250	0.321	0.389	0.710

우타자 > 좌투수

좌타자 > 우투수

우투수 상대로는 좌타자(0.781)가, 좌투수 상대로는 우타자(0.773)가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 좌투수는 타자를 가리지 않고 우타자는 투수를 가리지 않는다는 속설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우타자는 우투수에게 좌타자는 좌투수에게 약점을 보였다**. 반대로 우타자는 좌투수에게 좌타자는 우투수에게 강점을 보였다. 하지만 투수별 상황 데이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에 타자들이 유리한 상황에서의 결과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검증 2** 이런 차이가 투수와 타자의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비율 때문은 아닐까?

[2001~2010년 투타 비율]



[2001~2010년 타자 비율]



[2001~2010년 투수 비율]



좌타자의 비율은 왼손잡이의 비율(30~35%)을 훌쩍 뛰어넘는 42%에 달한다. 반면 좌투수는 26% 정도다. 우타자는 우투수를 만날 기회가 38%인데, 좌투수를 만날 기회는 19% 정도다. 반면에 좌타자는 우투수를 만날 기회가 35%인데, 좌투수는 고작 7.5%밖에 만나지 않는다. 리그에 우투수가 넘쳐나기 때문에 좌타자는 상대적으로 편한 우투수를 많이 만나고, 반대로 우타자는 결코 어려운 우투수를 많이 상대한다. 좌타자의 우수한 성적은 여기에 기인한다. 좌타자가 우타자를 압도하는 운동 신경이나 파워를 가진 게 아니란 거다.



투수의 성적차이는 좌타자가 우타자의 1.5배 정도 좋았다. 이유가 뭘까?

[2001~2010년 좌·우타자별 유리한 상황비교]

연도	상황	타석	비율	타율	출루	장타	OPS
2001~2010	우타자(v좌투)	363,211	19.4%	0.270	0.341	0.433	0.773
	좌타자(v우투)	660,666	34.7%	0.271	0.347	0.434	0.781

우타자  
[유리 - 불리]  
0.773 - 0.786

[2001~2010년 좌·우타자별 불리한 상황비교]

연도	상황	타석	비율	타율	출루	장타	OPS
2001~2010	우타자(v우투)	719,288	38.4%	0.258	0.318	0.408	0.726
	좌타자(v좌투)	139,562	7.5%	0.250	0.321	0.389	0.710

좌타자  
[유리 - 불리]  
0.781 - 0.710

타자가 유리한 상황에서는 좌타자 성적이 근소하게 더 좋지만 불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타자의 성적이 더 좋다. 타자의 상황에 따른 좌타자의 성적 차이는 우타자보다 훨씬 크다.

[2001~2010년 좌우타자 투수별 편차]

연도	상황	타율	출루	장타	OPS
2001~2010	우타자 투수별 편차 (vs. 좌투 - 우투)	0.012	0.023	0.025	0.048
	좌타자 투수별 편차 (vs. 우투 - 좌투)	0.021	0.026	0.045	0.071

좌타자는 좌투수에  
예외 약함  
좌타자의  
투수 편차가  
심함

### 검증 3 그렇다면 지난 50년간 메이저리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까? 1951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단위로 비교해봤다.

연도	투수	타석	비율	타율	출루	장타	OPS
70년대	우투수	1,041,408	68.5%	0.257	0.324	0.396	0.700
	좌투수	479,352	31.5%	0.258	0.323	0.378	0.701

투수들의 피 OPS가 우투수를 넘어섬

연도	타자	타석	비율	타율	출루	장타	OPS
80년대	우타자	909,537	58.6%	0.255	0.317	0.387	0.704
	좌타자	641,273	41.4%	0.263	0.333	0.388	0.720

좌타자와 우타자의 성적이 가장 좁아짐

투수들의 성적은 모두 비슷했다. 하지만 50, 60년대가 지나면서 좌투수의 피 OPS가 우투수보다 높아졌다. 70년대에는 좌투수의 피 OPS가 우투수를 넘어섰다. 타자의 경우 반대로 좌타자에 비해 2, 3푼씩 차이가 나던 우타자의 성적이 80년대에 차이를 가장 좁혔다.

연도	상황	타율	출루	장타	OPS
90년대	우타자 투수별 편차 (vs. 좌투 - 우투)	0.003	0.019	0.021	0.040
	좌타자 투수별 편차 (vs. 우투 - 좌투)	0.015	0.018	0.035	0.053
2000년대	우타자 투수별 편차 (vs. 좌투 - 우투)	0.012	0.023	0.025	0.048
	좌타자 투수별 편차 (vs. 우투 - 좌투)	0.021	0.026	0.045	0.071

좌타자는 90년대에 투수별 편차의 격차가 줄어들다가 다시 상승

연대별 우타자의 투수별 편차는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좌타자는 50, 60년대에 큰 차이를 보였지만 90년대까지 격차를 줄이다가 최근에 격차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다. 리그의 좌타자 및 좌투수의 비율이 변했기 때문이다.

상황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좌타자	36.7%	36.5%	38.4%	41.4%	41.7%	42.2%
좌투수	26.8%	29.7%	31.5%	31.4%	27.3%	26.8%

좌타자 비율 꾸준히 상승      좌투수 80년대부터 감소



리그의 좌투수는 50년대 26.8%에서 70, 80년대를 기점으로 3%까지 늘어났지만 2000년대는 50년대 수준으로 복귀했다. 반면 좌타자는 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대에는 4%까지 늘어났다.

**검증 4** 50, 60년대엔 좌투수와 좌타자가 우투수와 우타자보다 성적이 좋았다. 그래서 70년대에는 좌타자와 좌투수가 뿔났다. 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 왼손잡이의 희소성이 떨어져 성적이 떨어졌다. 그러나 좌타자는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우타자보다 좋은 성적을 유지했는데, 좌투수는 우투수보다 성적이 떨어졌다. 리그의 좌투수의 비율은 줄어 들었고, 좌투수가 줄어들자 좌타자의 성적은 점점 좋아졌다. 그래서 좌타자가 치치하는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좌타자의 성적이 좋은 건 리그에 우투수가 많기 때문! 왼손잡이가 아무에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건 한미타에 구한다.

# STUFF

FILL YOUR INNER HAPPINESS WITH MATERIAL GOODS

## METAL HOLIC TIME

올봄 당신의 손목을  
빛나게 해줄  
메탈 시계의 향연!

BY 김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1



2



3



### 1. RADO TRUE AUTOMATIC MATT R27858152

투박의 끝은 순정이라는 믿은 제품이 매력적이면 다른 것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의미다. 라도의 트루 오토매틱 역시 이 믿이 어울리는 제품이다. 여기에 최첨단 세라믹 소재는 메탈릭한 느낌을 실려 주고 일레르기는 막아준다. 무게도 가벼워서 손과 시계가 하나가 된 것 같은 일체감을 준다. 가격은 만만치 않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녀석이다.

가격 1,970,000원  
문의 02-726-4546

### 2. ALBA FOR MEN AF3E91X

메탈 시계에 그린 컬러? 어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둘의 만남이 오히려 남성적인 매력을 돋보이게 만들었다. 알바가 내놓은 이 녀석은 태생이 스포츠 시계인 만큼 워밍 기능은 물론 스톱 워치 기능도 충실하다. 남들과 다른 개성 있는 제품,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의 메탈 시계를 찾는 수컷에게 딱이다.

가격 240,000원  
문의 02-511-3182

### 3. CK CITY K2G21161

메탈 시계는 자칫하다간 '간질스러운 아이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입문용 메탈 시계는 깔끔하고 세련된 제품이 언제나 환영받는다. CK 시티는 이를 그대로 도화적인 느낌을 잘 살린 제품이지만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올봄 당신의 손목이 빛나시길 원한다면 꼭 봐줄 아이템으로도 안성맞춤이다.

가격 320,000원  
문의 02-3140-9562



4



5



6

#### 4. SEIKO DIVER SKX781J

강렬한 오렌지 색상의 문자판이 눈길을 사로잡는 세이코 다이버 라인의 신제품. 200M 방수는 기본이고, 수중에서 보기 좋도록 야광 기능도 탑재했다. 사용자의 움직임에 에너지원으로 작동하는 오토매틱 시계라서 밧줄 걱정도 없다. 물에 들어갈 일이 많다면, 당신 손목에 사람들이 '뿌익' 하고 주목하길 바라다면 참으로 적절한 녀석.

가격 430,000원  
문의 02-3445-6111

#### 5. TISSOT PRC200 T17158632

매일 시계지만 튀지 않고 무난하게 쓸 수 있어야 하며, 때때로 나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까다로운 당신에겐 티쏘 PRC200이 진리다. 문제는 당신처럼 평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자칫하다간 수많은 티쏘 PRC200 무리에게 둘러싸일지도 모른다. 생각보다 가격도 만만치 않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자.

가격 560,000원  
문의 02-3149-9537

#### 6. CK STRIVE KOK27120

세련되고 도시적인 디자인의 시계도 좋지만 적어도 메탈 시계만큼은 남성기가 똑똑 보여야 진짜 남자다. CK 스트라이브로 시상을 둘러보자. CK 시계치고는 다소 거칠게 느껴지지만 심플함이 당신에게 단순하고 지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녀석의 디자인에 혹할 수밖에 없을 거다. 조만간 당신 손목은 이 녀석이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격 510,000원  
문의 02-3149-9562



촬영장 알아보기

# FIGLO O

프로아구가 개막한다. 올해는 부디 여자친구와 일콩달콩  
꿈 같은 야구장 데이트를 해보자, 분노의 솔로모는 이제 그만!

BY 김상범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고희희 HAIR 고은영 MAKE-UP 조혜진 배태수 02-548-7787  
FILM 감독의 ASSISTANT 조유림



COOPERATIONS 네포스(www.nepos.co.kr) 1566-0807 무아, 빈스, 버키뮤, 게스연(재미)(02-514-0693) 에스피엑스(02-546-7764) 게식(02-516-5611)  
잡인클러인친(02-3447-7701) 수즈원(02-3443-1703) 리액(02-3446-4058) 기아(02-3447-1098)



# F DREAMS



두산 야구 유니폼 대표스  
트레이닝 쇼츠 에디터 소장  
운동회 꾸미

## KIA TIGERS

### AWAY UNIFORM

올해 당신을 불타오르게 만들 거야  
타이거즈의 유니폼이다.

여자 친구에게 정착시킬 거라면 답답한  
양성을 살포시 티우는 센스를 발휘하라.  
보는 우리도 좀 즐겁게. 가격 43,000원



### PITCHER 윤석민

손가락 장난의 마술사  
석민이 여자 친구는 흥겡네용기.

올해 목표는 2승이라고 잘라 말한 윤석민은 이번 시즌 류현진과 김광현을 둔보잡으로 만들겠다고 버리고 있다. 본인은 작년보다 작구 사용 빈도를 높여겠다고 밝혔지만 윤석민은 타고난 변화구 덕후다. 손재주가 좋아서 남들 못 배우는 데 '일 년 걸리는 변화구를 한두 달이면 마스터'해버린다.

처음에는 작구와 슬리이더 위주로 피칭했지만 프로에 입문하면서 너클 커브(메이저리그에서 마이크 무스나가 주무기로 삼았던 변형 커브)를 배우기 시작하더니 2009년에는 체인지업을 정착했고, 이제는 투심과 핼도도 던질 줄 안다. 여기에 새로운 변화구를 추가했으니 그를 상대하는 타자들이 폭풍 삼진당할 모습이 눈에 선하다.

## JJ

### COW HIDE GLOVE

당신을 좌익수로 자리를 옮긴  
김성현 같은 거포로 만들어주진  
못해도 적어도 홈을 향해 신나게  
공을 뿌릴 마음 만큼은 가득 차게  
만들어줄 거다. 가격 195,000원

소츠 버커루  
운동화 에스피엑스

## LOTTE GIANTS

### ALUMINUM BAT

프로 선수도 아니면서 나무 배트 타령은 그만하라. 손에 전해지는 피릿침을 어찌 감당할 텐가! 알루미늄 배트로 공을 맞추는 연습부터 할 때다. 재! 오늘부터 당신은 이대호 선풍기다. 가격 33,000원

## LOTTE GIANTS

### PINK SYMBOL CAP

군바리 모자를 핑크 야구 캡으로 모두 바꿀 게 아나라면 호수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보다 머리가 배는 큰 선수도 쓰는 모자 아닌가! 그리고 남자의 심볼은 역시 '핑크'다. 가격 15,000원

### BATTER 이대호

국보급 타자의 위엄 FA 대박을 향해 고고상!

고고 우타 유망주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 이대호! 롯데와 연봉 협상을 하며 빈방이 상행지만 올해까진 X축 뺏지게 되어야 FA 대박을 노릴 수 있다. 이번 시즌은 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수로 전환. 본격적인 기복사냥에 나선다. 그런데 1루에는 두산 베어스 소속으로 작년 생애 최초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친구 최준석이 버티고 있다. 하지만 이대호가 무에 온 순간 골든글러브의 인자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대호는 올 시즌 홈런을 차면 목걸이 키스 세리머니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본인 이 안정현급 외모도 아니는데 이런 건 제발 자제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몸이 밝은 집업 후드 푸마  
스포츠 에디터 소장

## LOTTE GIANT

### MASK&PROTECTOR

포수 장비 없이 야구를 하다가  
베로 야구 공을 받아본 적이 있나?  
이마축어의 비리비리한 공마저  
불같은 강속구처럼 느껴진다.  
포수 장비 하나쯤은 장만해 두자  
장비빨이 받쳐주면 주전 라인업에  
끼기도 쉬워지지 않겠지? 놀아줄 거지?  
가격 각각 48,000원

### KBO의 목은지

최규순 심판이 꼽은 명감독

SK 김성근 감독

"선수 관리에 도가 튼 사람이다."

두산 김경문 감독

"야구 같이 한마디로 씨는 사람이다."

삼성 선동열 전 감독

"투수 교체의 귀신이다"

보라색 등 리복  
쇼츠 셀빈클라인  
신발 슈조원

인소매 티셔츠 게스  
쇼츠 셀빈클라인  
원거 가이아

## JJ

### OFFICIAL LEAGUE BALL

프로야구 공인구보다 1등급 낮은 천연가죽을 사용해 사화인 야구나 공식 경기에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다. 개당 가격이 만만치 않은 귀한 몸이나 흠바닥에 버려두지 마라. 사화인 야구 팀에서 경기가 끝난 후 공 회수에 엄청나게 신경 쓰는 이유가 있다. 가격 5,000원

### KBO 프로야구공 단일화 추진

KBO가 프로야구 공인구의 규격을 메이저리그 기준에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 대회에서 공 때문에 얻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일본 프로야구도 메이저리그 규격에 근접한 미즈노사의 공인구를 채택했다. 이렇게 바뀐 공은 반발력이 떨어져 비거리가 예전보다 줄었고, 변화구를 구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메이저리그 기준에 맞춘 공인구를 사용한다면 일단 홈런이 줄어들겠지.

### 야구공 스틸

기아 타이거즈 물품 창고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야구공 2,000개를 훔친 10대가 경찰에 들미를 잡혔다. 그중 야구공 통채로 훔쳐온 사람이 되겠다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라. 이들이 훔친 공을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600만 원어치다. 이러니 훔치지 않고 배기겠나?

티셔츠 반스  
안드로이드 케이스인더웨어  
소호 에디터 소장  
신발 반스



# Black to the Future

블랙데이 따위 잊게 해줄  
스마트한 블랙 제품을 소개한다. by 강병현



## LG HX350T

LG가 출시한 휴대용 프로젝터다. 손바닥 정도 크기에 무게도 운동화 한 짝 수준이라서 들고 다니기 부담스럽지 않다. 성능은 밝은이와 최대 254m 크기로 HD급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 해상도도 XGA급(1024×768)이라 화질이 구라던 생각도 들지 않는다. 당시 머릿속에 스친 생각처럼 살롱에 가득한 영상을 거대한 화면으로 틀어둔 채 낱알은 DDR을 칠 수도 있다는 얘기도, TV 시청은 덤이다. 가격 900,000원 / 문의 [www.lge.co.kr](http://www.lge.co.kr)



## SAMSUNG GALAXY S2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걸지다. 걸려 시간만 해도 최적화 문제 등이 아픈데 비하면 손색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녀석은 안드로이드 폰의 고질적인 바벅임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성능이 쾌적하다. 날פק한 4.2인치 슈퍼 아몰레드 플러스 액정은 만족스럽고, 어지간한 총알 지름보다 얇은 8.43mm 두께는 감탄을 자아낼 뿐이다. 삼성이 하는 짓은 여전히 예품의 '따라잡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겠지만 갤럭시S2의 뛰어난 하드웨어적인 완성도만큼은 인정할 만하다. 가격 미정 / 문의 [kr.samsungmobile.com](http://kr.samsungmobile.com)

## MOTOROLA ATRIX+LAPTOP DOCK

모토로라의 아트리스는 1GHz 듀얼코어 프로세서, 1GB 램, 1330mAh 대용량 배터리를 갖춘 스펙에 안드로이드 OS를 등에 업었다. 자체 개발한 '랩톱 애플리케이션'으로 랩톱과 결합하면 노트북처럼 활용도 가능하다. 문제는 가격에 아트리스의 랩톱독의 조합이 울트라신 노트북을 따로 장만하는 것보다 비싸다면 그저 방크 크리얼 뿐이다. 가격 미정 / 문의 [www.motorola.com/kr](http://www.motorola.com/kr)



## BMW NEW R 1200R CLASSIC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꿈같은 마음을 날려줄 뉴R 1200R은 BMW 오토바이에서 짙먹는 H2 스포츠 모델의 엔진 기술을 토대로 한층 향상된 엔진을 탑재했다. 브레이크와 주행 안전 장치의 탑재로 안전성도 업그레이드했다. 최고출력은 100마력, 연비는 리터당 24km 이상(90km/h 기준)이다. 하지만 이 녀석을 타고 베달의 7기수처럼 달릴 일은 없을 테니 그저 참고만 하라. BMW 코리아는 차량가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는 3년간 할부로 지불 수 있다고 당신을 유혹하는 중이다. 가격 22,800,000원 / 문의 [www.bmw.co.kr](http://www.bmw.co.kr)



## DELL ALIENWARE M18X

노트북을 쓰는 게이머에게 예일리던 웨어 시리즈는 그저 감동이었다. '게임용'으로 나온 제품답게 대놓고 깡패 같은 스펙을 자랑했으니 허락할 수밖에 M18X는 샌드브리지 플랫폼에 18인치 액정(1800×1080 해상도), 12셀 배터리, 2개의 그래픽 칩셋을 묶는 후덜덜한 옵션으로 나를 예정이다. 게이밍 노트북을 고르던 이놈이 좋은 거다. 가격 미정 / 문의 [www.dell.co.kr](http://www.dell.co.kr)

# 남자가 세워야 할 것 축구화빨!



당신도 그라운드 메신저가 될 수 있다. BY 박한규/ILLUSTRATION 장미란

**축구화는 뽕이다!** 여자 뽕 말고, 축구 뽕에도 신경을 쓰란 말이다!

+ 스티드라 불리는 축구화 뽕은 당시의 돌돌이처럼 예전보다 경직성에 적합한 걸로 골라야 한다. 포지션, 경기 스타일, 날씨를 고려하지 않고 아무 축구화나 가져다 신다가는 다리병신 꼴을 면한다.

## 1. ADIDAS PREDATOR X SG WC

**추천 천연 잔디 구장을 인방처럼 쓰는 사람**  
천연 잔디 구장에서 축구를 한다면 인방을 챙겨라. '소통'이라 불리는 긴 스티드 6개가 박혀 있어 땅에서 미끄러짐이 적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 빠르다.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 골키퍼가 특히 사랑하는 축구화다. 수중전에서도 지체없이 할 염려 없이 자신의 실력을 심부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마음에 들지 않는 신수가 있다면 이걸로 6천 원 한 방을 놔둬라. 그날로 병환행 고상이다.

가격 225,000원 / 문의 [www.adidas.com/kr](http://www.adidas.com/kr)

## 3. PUMA POWERCAT 1.10 FG

**추천 인조 잔디 구장에서 주로 노는 사람**  
인조 잔디 구장에서 공놀이를 자주 한다면 인방이 제격이다. 천연 잔디용보다 길이가 조금 짧고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의 스티드가 5개 박혀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다. 그렇다고 인방에서 신고 뛰다가 스티드가 부러지면 AS도 안 되니 오버하진 마라. 당시 주동인방 가벼워서 공격수나 미드필더들에게 애용됐었다. 폼이 축구화를 줄로 보던 이도 인방만 믿고 디자인 역시 만족스럽다.

가격 195,000원 / 문의 [www.puma.com](http://www.puma.com)

## 2. NIKE MERCURIAL MIRACLE HG V

**추천 오로지 맨땅에서만 공을 차는 사람**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인방장에서의 공놀이 이런 특정한 축구화 장뽕이다. 명바닥에 서도 쉽게 닿지 않는 짧고 굵은 스티드가 14개나 박혀 있어 아무리 험하게 굴러도 끄떡 없는 축형의 돌돌이마냥 내구성은 끝장이다. 천연잔디는 카본 인조 잔디도 구경 못한 조기 축구화 뽕보다는 군바리에겐 이 녀석이면 충분하다. 역시 장재도 그라운드든 하든간에 오래 가는 법.

가격 125,000원 / 문의 [www.nike.co.kr](http://www.nike.co.kr)

## 4. MIZUNO IGNITUS AS

**추천 공놀이 아닌 장소를 가리지 않는 사람**  
축구 덕후를 위한 제품이다. 총총히 박힌 30여 개의 짧은 스티드는 축구는 물론 배운 러닝, 건물 위를 활짝 날아다니는 아이카시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발등에 부착된 고무 돌기 패드는 무회전 프리리클을 할 때 발에 착감게 해주니 키퍼라면 한장할 수밖에 밀창이 평평한 편이라 발에 부담이 적은 대신 신발이 비 오는 날이나 부드러운 잔디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미끄러질 수 있으니 조심하자.

가격 70,000원 / 문의 [www.mizuno.co.kr](http://www.mizuno.co.kr)

## 축구화 고르는 TIP

### ▶ 딱딱인지 확인하라

사람은 다 딱딱하다. 완발이 편하다고 해서 으르르발이 편하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딱을 치고 난 후, 당시처럼 그녀가 만족했다는 보장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 ▶ 한 치수 여유 있게

축구화 사이즈는 발을 압축으로

붙었을 때 두툼처에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가 적당하다. 두툼한 스포츠 양말을 신어도 여유가 생기고, 발목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어 부상 위험이 줄어든다.

### ▶ 지를 가리던 자에게

여유 있는 사이즈의 축구화를 구매하려면 당시 뽕이 어느 정도 부

은 상태에서 매장을 찾는 게 좋다. 지르는 타이밍은 오후 5~6시가 적당하다.

### ▶ 축구 양말은 덤

싸구려 양말은 발바닥에 물집을 소생한다. 게다가 발목 양말 신고 축구하는 것만큼 편치 나는 일도 없잖아?





STUFF

# 터프 가이 비둘기 사랑 마이크 타이슨

상대의 귀를 물어뜯던 전직 헤비급 복싱 챔피언의 주먹에 살포시

쥐어진 것이... 비둘기라고? PHOTOGRAPH BY SPENCER HEYFRON

“이젠 생물을 깨물지 않아. 이리 와.  
난 너희들 진짜 사랑해. 정말이야!”

스타가  
사랑하는 것



“왜 내 점심식사에  
깃들이 달린 거지?”

**+** 당신이 처음 싸움을 하게 된 계기가 새 때문이라고 들었다.

맞다.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농이 내 새 한 마리를 훔쳐서 죽인 일이 있다. 새 목을 때더니 그 피를 나한테 뿌렸다. 그래서 그놈과 붙었다.

**현, 무서운 광경이다. 상상도 하기 싫다.**

하지만 비둘기들은 내게 무언가에 집중하는 법을 알려줬고, 거친 길거리 생활에서도 구원해준 고미운 존재다.

**비둘기 키우기를 거부하는 세계 대회를 TV 쇼로 만든다고 들었다. 도대체 그게 뭐 짓거리인가?**

말을 끄는 것과 비슷하다. 이게 한번 맛을 들이면 끊을 수 없다. 리처드 왕부터 영국 여왕까지 대부분의 왕족, 귀족들은 비둘기를 사육했다. 내가 아는 친구 중엔 8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자기 가문에서 비둘기를 키워온 아브가나스 탄 사람도 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처럼 날아다니는 쥐라고 하는데, 잘못 생각하는 거다. 비둘기는 피아타다.

**그, 그렇군.. 당신은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특히 영화 <더 행오버>에서 당신이 애반 호랑이를 납치당하는 내용에서 크게 감동했다. 진짜 당신 소유의 호랑이라고? 예전엔 호랑이 여섯 마리와 퓨마, 매, 독수리, 흰 족제비, 거대한 늑대거북을 키웠다. 하지만 이전 애를 키워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호랑이는 지금 안 키운다. 조심해야 하나?**

**제작 중인 영화가 있나?**

물론! <더 행오버> 속편을 찍으려 태국에 갈 예정이다. <맨 인 블랙> 3편에도 출연한다. 외계인으로 등장한다. 그래도 황홀하다. 뭐 외계인이 외계인이잖지만 나한테 어떤 외계인 복장을 입히든 시간에 열심히 해서 더욱 특별한 외계인으로 만들 생각이다.

**당신이 코미디 연기를 할 거라고 상상해본 적이 있나?**

나는 내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했다. 누구든 나를 보고 웃는 사람은 그날로 병원 행이었으니까. 지금은 괜찮다. 누가 당신을 보고 웃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그것 참 골라는데?**

싫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즐겁게 살아라. 인생은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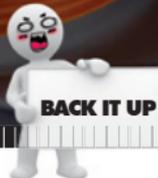
그의 비둘기 사랑은  
확실히 영감



# 하드가 살아야 PC가 산다

예써 모은 아동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다. 하지만 바이러스, 물리적인 충격, 해커 등이 시시때때 당신의 하드디스크(이하 하드)를 노리고 있다. 화끈한 그녀들을 알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하드를 백업하라

BY 김성현



## 1. 백업 및 복원 아이콘을 찾아라

**윈도 XP:** [시작]-[모든 프로그램]-[보조 프로그램]-[시스템 도구]-[백업]을 선택하라. 백업 및 복원 마법사 화면이 당신을 반길 거다.

**윈도 7:** [시작]-[제어판]-[시스템 및 보안]-[컴퓨터 백업]을 클릭하라. 그리고 '다음'을 눌러라.

## 2. 백업할 내용을 선택하라

**윈도 XP:** 본인이 백업할 내용을 선택하자. 필요한 것을 체크했다면 본격적인 백업을 위해 다음 버튼을 눌러라.

**윈도 7:** 최종 상단의 [시스템 이미지 만들기]를 클릭하면 끝!

## 3. 데이터 저장 장소를 지정하라

**윈도 XP:** [찾아보기]를 클릭한 후 백업 파일을 저장

하고 싶은 위치를 선택하면 된다.

**윈도 7:** [시스템 이미지 만들기]를 클릭했다면 자동으로 이미지 저장 위치를 물어보는데 본인이 저장하고픈 하드디스크, 네트워크 드라이브 등을 설정하라.

## 4. 데이터 백업 주기를 선택하라

실제 영상은 점점 고화질로 변해가고, 당신의 콘텐츠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쌓인다. 정기적인 백업이 필요하게 될 거다. 본인이 판단해 적절한 백업 주기를 설정하자. 데이터 백업 장소는 용량에 여유가 있는 게 좋다. 저장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백업 데이터 용량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참고로 백업 데이터가 담긴 물체가 삭제되면 복원할 때 문제가 생기니 유의할 것



**+** **하드 백업**의 첫걸음은 운영 체제를 설치할 때 백업은 물론 회복 툴도 같이 설치하는 거다. 보안을 잘 갖춰진 온라인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게 불편하다면 여분의 하드에 처저 상태의 데이터를 백업해두도록! 여기서는 MS 운영체제의 백업 및 복구 방법만 언급하겠다.

그녀는 무슨때?

**RESTORE IT**

1. 윈도우 XP는 [시작]-[모든 프로그램]-[보조 프로그램]-[시스템 도구]-[시스템 복원]을 눌러라. 윈도우 7은 컨트롤 패널을 백업 및 복구 센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2. 윈도우 XP는 복구 지점을 찾아 클릭하라. 윈도우 7은 복구하고 싶은 파일의 위치를 찾아 선택하라. 복구한 파일을 외장하드에 옮기고, 실디면 연결한 후 복원을 실행하라.
3. '다음'을 클릭하면 하드디스크의 파일이 복원된다. 데이터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몇 분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린다. 윈도 설치보다는 훨씬 걸릴 테니 가서 통이나 한 방 시원하게 싸고 오도록!

## 데이터 관리 TIP 5가지 일어두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



**1** 사라진 데이터를 복구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다면 컴퓨터 사용을 멈추라. 하드를 열심히 돌리는 것보다 여유 공간이 있는 만이 데이터를 살릴 확률이 크다.

**2** 데이터가 많다면 한 방에 백업할 생각은 버려라. 시간도 시간이지만 백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일정량의 파일을 백업한 후 업데이트 된 내용만 다시 백업하는 차별 백업이 효과적이다.

**3**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의 백업 스케줄을 잘 짜야 한다. 백업을 자주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띄엄띄엄하다면 피 보기 딱 좋다. 백업할 땐 인터넷 선을 뽑아둬야 바이러스 등 불필요한 것들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4** 파일이 날아갔다고 너무 놀리지 마라. 무료로 제공되는 복구 프로그램도 있다. EASELUS SMART RECOVERY 같은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하자. 아니면 FILE SCAVENGER 같은 파일데이터 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5**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해 온라인 스토리지 서비스 이용도 고려하라. 전문업체가 운영하는 곳은 안정성이 높은 데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접속 가능하다. 일반 하드디스크 등에 백업하는 것보다 속도가 느리고, 가격이 높은 건 아쉽다.

## 최고의 맞춤 포맷 방법

로 포맷이 능사는 아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선택하자.



### 빠른 포맷

하드에서 데이터를 포맷이 되는 길을 모두 지워버리는 포맷 방법. 파일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컴퓨터는 파일을 인식하지 못해서 하드에 깨끗이 비워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드는 기존의 데이터가 없는 위치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조차 나 저장된다. 이 때문에 '조각 모음'이라는 유행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거다.

**추천** 하드에 별다른 이상이 없고 빠른 시간 안에 하드의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사람

### 로 포맷

일반 포맷이라고도 부르는데, 한마디로 공장 초기화 상태로 되돌리는 거다. 하드의 데이터 저장 영역까지 훑으며 이상 여부를 체크한다. 하드에 발생한 논리적인 배드 섹터도 제거할 수 있다. 대신 로 포맷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된다. 물리적인 충격으로 발생한 하드의 문제는 복구할 수 없다.

**추천** 하드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았음에도 배드 섹터가 자주 발생해 피곤한 사람



### 배드 섹터

하드에서 정보 저장이 불가능한 섹터다. 배드 섹터가 많아지면 정보 저장 공간이 줄어들면서 하드 용량은 계속 줄어든다. 배드 섹터를 내려놨다고긴 하드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니 조심하자.

### 논리적 배드 섹터

프로그램의 오류로 섹터에 기록이 불가능한 상태다. 디스크 검사로 확인 가능하며 로 포맷으로 처리 가능하다.

### 물리적 배드 섹터

물리적인 충격으로 생기는 배드 섹터다. 해결은 무리다. 하드를 백업해주는 게 최선이다.

## 당신 하드의 정체는?

FAT32와 NTFS의 차이를 알려주자!



### FAT32

FAT는 MS-DOS 시절부터 사용한 파일 시스템으로, FAT32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녀석이다. 다양한 운영체제에서도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USB 저장장치나 외장 하드에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4GB가 넘는 파일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고화질 동영상 파일을 저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블루레이 화질로 나온 우리 A/V일 때의 동영상은 저 저장할 수 없다는 일대!

### NTFS

윈도 NT 버전 이후의 운영체제에서 사용한 파일 시스템이다. FAT32 방식에 비해 안정성과 보안성이 뛰어나다. 내장형 하드는 대부분 NTFS 방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파일을 저장할 때 자동으로 파일이 압축되기 때문에 대용량 파일을 관리하기도 좋다. 대신 FAT32보다 운영체제를 가리키는 단점이 있다.



## 외장하드에 실내용 가득한 고화질 동영상도 저장하고 싶다면?

외장하드 시스템은 NTFS 방식으로 변환해주면 된다. 윈도에서 [시작]-[실행]-[CMD]을 입력한 후 'convert drive[변경의 하드명] /fs:ntfs'로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만약 디스크리브러인 'C: /fs:ntfs'를 입력하면 된다. 저 이제 뜨프프프 단번에 득도의 동영상은 담으라 출발!



아이고, 무뎠어!

# 그녀의 '뒤'를 공략하는 법

OT... OT... OT...

BY 에디터 HS PHOTOGRAPHS BY ARC STUDIO MODEL 육신화

- ▶ '뒤'라고 해서 섹스 할만한 곳을 상상하진 않았겠지?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건 '후배위' 다. '해님 섹스'와 '후배위'를 아직도 구분 못하는 생퀴 나와!
- ▶ 편집부 남자 어시스턴트가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져왔다. "선배님, 여자들은 정말로 후배위를 좋아하나요?" 그 자리에선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지만, 후배 위하는 선배인 에디터는 순진한 어시스턴트를 위해 이번 달 섹스피처의 주제를 '후배위'로 정했다.
- ▶ 개나 소나 말이나 심지어 팬디도 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체위가 바로 후배위다. 그렇지만 여자들이 후배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수컷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해줄까? 여자들도 후배위 좋아한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후배위를 마다하게 된다. 도대체 왜 그런지 먼저 그녀들의 고민부터 들어보자.

# LOVE

## 후배위에 대한 그녀들의 고민

###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자꾸 혼란에 빠질 땐다. S(26세, 바리스타)

**EDITOR SAYS** 후배위를 애설 섹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가끔 공휴를 X에 갔다 대는 남자들을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매직스티크를 제대로 된 곳으로 끌어다 넣어주던 되지만 매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방금 든 생각인데 어쩌면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는 척하고 애설 섹스를 시도하려는 건지도 모르겠다. 얼떨덜.

일부러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당신의 이런 행동은 그녀로 하여금 '지 끌리는 대로 애설 섹스를 하는 번태자식'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무식한 게 죄는 아니지만 돌돌이에게 장기 휴업이라는 대항사를 불러줄지도 모르는 일이니 번지수 제 대로 찾아뵙고

### 빨리 사랑할까봐

사실 뒤로 하면 좋긴 좋는데... 그가 너무 빨리 끝내 버려서 별로다. 남자들은 왜 그런가? P(25세, 교사)

**EDITOR SAYS** 그녀도 분명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뒤따라가기를 거부한다면 섹스는 빨리 끝내 버리는 당신이 아슬아슬할 가능성이 크다. 혼자 달아나서 엉엉처럼 숨을 울까거리다 근세 사정을 해버리는 당신을 보며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나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후배위의 묘한 매력을 포기하면서라도 통련하고 싶은 게 여자들의 솔직한 마음이다. 후배위는 갑자기 멀어오는 남자가 스피드하게 거스를 지चार할 때 더없이 좋은 방법이지만 장소가 침대라면 충분한 애무로 그녀를 만족시킨 뒤 당신이 목욕했던 것들을 싹쓸해야 한다. 흥분한 그녀가 자신의 뒤를 순순히 내어줄 거다. 오빠, 한 번 더?

### 작아서

작아서 그런지 후배위만 하면 자꾸 빠진다. 공휴가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덩이오르지만하면 빠지고, 빠지고... L(24세, 소풍을 운영)

**EDITOR SAYS** 페나스가 짙어서 고민이라면 다이어트에 돌입하면 여자는 다이어트를 하면 가슴이 작아져서 남자가 다이어트를 하면 공휴가 상대적으로 길어진다(절대적인 길이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실이 짙 게 원인이 아니라면 가까운 비뇨과

의 상담을 받아보도록 그리고 자신의 것이 작다고 생각되면 후배위는 과감히 포기하자. 스글을 더 얻어내지

### 안 해줘서

내 남친은 왜 내 뒤를 공략하지 않는 가? 배너 과거를 의심할까봐 내가 먼저 하지고는 도저히 말 못하겠 다. 후배위 싫어하는 남자도 있지?

J(22세, 휴학생)

**EDITOR SAYS** 실제로 많은 여자들이 '남친이 후배위를 안한다'는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결국 모두 지 후배위를 하지 않는 그에게 용기를 내 '왜 뒤로는 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다는. '영은' '나기' 싫어할까봐 안한다'라는 황당하면 대답을 들었다고 전해왔다.

사실 후배위에 대해 타놓고 얘기하는 커플이 그리 많지는 않다. 막상 입에 올리기가 그렇게 쉬운 소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럴 땐 그녀의 몸짓을 유심 기 관찰하도록 하자. 그녀가 자신의 뒤를 공략하고 보려는 신호에는 대박 이런 것들이 있다.

- 침대 위에서 고향이처럼 엮인다.

- 영은이 늘러오는 시선에 맞춰 살기지를 한다.

- 엉덩이를 뒤로 쫓 한 자세로 책상에 기대 서리를 물어대린다.

- 유독 뒷모습을 많이 보여주며 백허그를 유도한다.

- 양치하는 시간이 길다.

### 굴욕극이어서

엔지 함부로 다뤄지는 느낌이야. H(21세, 대학생)

**EDITOR SAYS** 후배위는 가장 본능에 충실한 자 세지만 그렇다는 이유로 후배위 자체를 '강간 당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꽤 있다. 하지만 지난 달 '오일 섹스에 대한 여자들의 생각' 에서도 얘기했듯 후배위가 낯설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 다. 애티도 후배위에 대해 남자들이 지 혼자 좋아하 고 하는 체위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 굵은... 후후후... 애졌거나 정성위와는 또 다른, 뒤를 공략 당했을 때의 느낌이 얼마나 은헤로운 것인가를 당신의 그년도 알아야 한다! 하지만 후배위 이야기 만 나오면 인상을 찌푸리는 그녀에게 이질 시도하기란 참 어렵지? 지금부터 그녀와의 후배위를 성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정신 집중 하도록!

“ 후배위 만큼 서로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자세도 없다. ”

## ‘컷’ 후배위

### 마성의 백허그

그가 등 뒤에서 나를 꼬옥 안아줄 때만큼 굵속도 흥분되는 때도 없다. 그의 부탁이려면 뒤든지 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Y(28세, 웨딩플래너)

**EDITOR SAYS** 백허그 싫어하는 여자 없다. 여자는 뒤에서 다가와 살포시 안아주는 상황 자체를 로 맨틱하다고 느끼니까. 그녀를 OT. 자세로 만들어야 안 후배위를 시작할 수 있다는 편견은 그냥 버려라.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를 꼭 껴안아주면서 그녀의 가슴과 그곳을 부드럽게 만져준다. 귀에다 대고 '사랑해' 라고 속삭이면 효과는 배가 된다. 일어서있는 자세보다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세가 후배위를 하기에는 더 편리하다.

자. 이제 그녀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당신의 손은 계속 그녀의 가슴과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상태로 매직스티크를 삽입하면 상황 종료다. 후배위 자체가 '항부로 다뤄지는 느낌' 이어서 싫다는 그녀 에게 오히려 '사랑받는다는 느낌' 을 강렬히 심어줄 수 있다. 그녀의 기억 속에 후배위에 대한 나쁜 편견은 죄다 사라졌을 거다. 레드센

### 다리가 풀려서

후배위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뒤로 본 경험이 전 무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가 뒤에서 나를 안으며 클리토리를 살짝 자극하기 시작하자 온 몸이 힘이 풀려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다. 탈색. L(23세, 대학생)

**EDITOR SAYS** 아. 이제 후배위에 대한 그녀의 거부감은 사라진 상태다. 하지만 그녀에게 섹스할 OT. 자세를 유도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노력의 수모로 돌아갈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누워서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식욕, 심크대, 책상 사용 차가 높은 소풍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이걸 다 활용해보자 환대면 돌돌이에게 섹스다. 당신의 돌 돌이도 (진정한 공짜)와 (안마를 보았다)에 등장 하는 최민식 텃기지를 할 권리가 있다. 밥 먹다 말고 한 팔 뻗어 소쿠리 위에 있던 반그릇과 반한그릇을 얻으려고... 최아! 내가 신궁을 펼친 후 앞 뒤로 피스톤 운동을 하던 길바늘을 명장면... 하얏하얏! 아무튼 당신이 그녀의 뒤에, 그녀를 당신 앞에 세우고 책상이나 탁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라. 그 상태 에서 그녀의 클리토리를 자극하게 되면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가 스스로 책상 소리를 부여잡을 거다.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알겠지?



## 후배위가 좋은 이유

### 감제로 당하는 느낌이 좋아서

감제로 당하는 느낌이 짜릿하다. 그가 기쁨 아무 말 없이 내 손목을 잡아끌어 일방적으로 카스를 피부로 며 책상 위에 엮드리게 하는데, 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좀 더 자주 그래주면 좋겠다. (27세, 플로리스트)

**EDITOR SAYS** 함부로 더뤄지는 느낌 때문에 후배위를 굴욕적으로 생각하는 여지도 있는 반면 같은 이유로 후배위를 좋아하는 여지도 있다. 그만큼 이 자제는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갈리는 문제다. 사디즘 성향을 지닌 남자와 미소처럼 성향을 가진 여자 사이에서는 후배위 만큼 좋은 것도 없다. 서로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자세니까.

하지만 그녀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리 그녀에게 감제를 질은 후배위를 시도했다는 짜릿기 맞기 싫상이다. 그녀의 성향이 M이라는 게 확실하지만 가끔씩 감제로 후배위를 시도해 보라. 돈이 많은 그녀라면 몇 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당신에게 덱서 선물해줄 정도로 좋아할 거다. 확신한다.

### 공휴가 휘어서

그의 매직스틱은 위로 살짝 휘 바나나형 공휴다. 앞에서 할 때보다 뒤에서 할 때 더 깊숙이 들어온다.

A(24세, 모델)

**EDITOR SAYS** 바나나 좋죠. 하지만 A양, A양이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50명 중에 1명쯤 바나나가 있다면 1000명에 명 끌로 아래로 흰 뿔들이도 있답니다. 속칭 '고래XX'라고 불리는 이 흥기를 탑재한 남자가 뒤에서 들어오면 그 흥기가 정확히 여자의 G마켓을 공략해서 개가품을 물게 만들죠. 자기도 고래를 한 번 만나면 바나나 따윈 기억도 나지 않을 거야.

### 얼굴이 안 보여서

그의 얼굴을 내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다. 때로는 낯선 사람과 하는 것 같아 더 흥분된다. 그제겐 정말 미안하지만 사실 스테디더 빠고는 내 스타일 아니거든! (29세, 홍보대행사)

**EDITOR SAYS** 밤일은 참 잘하는데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켈 때가 여러 번 있다. 흥분했다가도 그의 뒳난 얼굴을 보면 금세 몸이 식는 경향.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거다. 깜빡 잊고 불을 안 켜었을 때 그를 뒤로 보는데는 것만큼 유용한 것도 없다. 해변 다른 얼굴을 상상할 수 있어서 좋다. 외모에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뒷차기가 더 유리할지도 모르겠다.

**TV를 볼 수 있어서**

현장 섹스를 하고 있는데 꼭 챙겨보던 드라마 방영 시간이 되었다. 둘 다 TV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열심히 했다. N(28세, 모델리아)

**EDITOR SAYS** 오랜 연인의 포스가 묻어나다. 사실 후배위를 거리낌없이, 그것도 TV를 보면서 할 정도라면 섹스가 매우 익숙한 사이가 아니고선 거의 불가능 하다. 이미 어느 정도 수차례 합을 맞춰본 사이에서 후배위만큼 편한 자세도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둘 다 동시에 TV를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것까진 미처 생각 못했다. 좋은 아이디어, 고맙네!

**간편해서**

비밀 연애를 하던 동아리 선배가 있었다. 동아리 방에 마음 아무도 없길래 가슴 졸이며 스피드하게 끝냈다. 질을 백만 있으면 어디서든 오케이이다.

H(21세, 대학생)

## 후배위의 다양성

**안뜨개지는 외리버시**

침대 위에 —자로 엎드려서 아예 다리를 모아 버린다. 이 자세만큼 그의 것을 온전케 느낄 수 있는 자세도 없다. 너무 좋은 나머지 배개를 쥐어짜게 된다.

L(25세, 대학원생)

**이런! 로마전차**

그에게 내 양 팔을 잡도록 하고 허리를 활처럼 뒤로 꺾는 게 OK. 자세보다 더 흥분된다. 나같이 유연한 여자만 할 수 있지. 우후훗. K(22세, 유학생)

**카트라이더**

그를 뒤에 얹혀 놓은 다음 나 혼자 피스톤 운동을 하는 거다. 그것도 아주 찬~찬~히. 내 미음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좋다. 그가 갈 것 같다며 잠깐'을 외치면 일부러 속도를 더 내버린다.

P(28세, 포토그래퍼)

**EDITOR SAYS** 후배위라고 해서 우리를 바닥에 엎드리게만 하는 건 후배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흔히 후배위를 여자가 수동적인 자세라고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배위는 여성 상위만큼이나 여자가 섹스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자세다. 엉덩이의 높이에 따라, 몸의 각도에 따라, 다리를 열어나 벌리느냐에 따라 느낌이 천차만별이니까

여자들은 정말 후배위를 좋아하냐고 물어봤었지? 우리도 정말 정말 좋아한다. 부디 이번 달에는 후배위에 성공하는 달이 되길 기원한다. 즐삭~! 



# MOTOR

## 르노의 콘셉트 카 DeZir



파리 시내  
출몰 영상

르노 하면 우리에게만 저극히 심심한 디자인의 SM 형제들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르노-삼성 차에서 내리는 남자는 핸디 튜닝과 직장과 보수적인 성격을 자랑으로, 유머러스하다거나 섹스를 잘할 것 같지 않다. 르노-삼성의 SM, QM 형제들이 심심하게 생겨판은 건 아니다. 우리나라엔 안 들어오는 르노의 해외 모델도 많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르노에서 2011 제네바 모터쇼에서 선보인 콘셉트 카 드지르(DeZir)가 눈에 띈다. 드지르에 눈이 꽂히는 건 100% 전기로 움직이는 차기 때문은 아니다. 이제 어떤 차든 전기차라는 거 하나로 모터쇼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차도 한창 지났다. 우리가 드지르에 관심을 걸어볼 만한 요소는 바로 이 디자인이다. 유명 디자이너를 전격

영양에서 빛아낸 드지르의 매깔은, 앞으로 르노가 지향할 차세대 디자인의 방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 3월 13일에 백적지근하게 막을 내린 제네바 모터쇼 내내 관객들은 드지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걸 타고 다니면 핸디 골목가 뻗뻗하고 예지 있는 꼴 가이로 보일 것 같으니까,



# CHEVROLET SPARK vs KIA all new MORNING

제1회 ROUND 1

MAXIMO 경차의 양대산맥을 동시에 질렀다. 사장님 댕큐. BY 유승민 ASSISTANT 박현필·노리 조유림



당연히 신상이 보지, 이사벨라!



이건 나 얼굴 맞나. 고백!

영업사원과 마주앉아 하나하나 따져보니 구매 조건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었다. 두 차 모두 기본사양에 자동변속기와 에어컨만 넣었다. 모닝이 아무리 갓 출시된 차라지만 스파크의 구매 조건이 압도적으로 나았다.

스파크 구매 조건	WIN	올뉴모닝 구매 조건
- 할부원금 970만원 + 기타 구입비 84만 4,770원		- 할부원금 960만원 + 기타 구입비 88만 9,100원
- 저리 할부 36개월 5.9% (월 납입금 29만 4,863원)		- 할부 이자 36개월 7.8% (월 납입금 3만 2천)
- 셀레르 멤버십 재구매 시 최대 40만 원까지 할인 가능하다.		- 재구매 할인이 10만 원밖에 안 된다.
- 카드 선할인 20만 원 안의 셀레르 오토카드당성 못대기 있다면		- 카드 선할인 20만 원
오토 포인트로 최대 20만 원까지 할인 가능하다 셀레르 장바구니에서		- (참! 애플 셋 이상 가지르면 20만 원도 더 할인해준다?)
결제할 때 현상 할인 5%에 수라하는 3개월 무이자 할부된다		- 그리고, 뭐 또 없나?
- 내비게이션 H-FAS는 블랙박스 중 하나 증명		
- 셀레르 출범 기념 특별 5만 10만 원 무상 보증, 영업일		

스파크 영업사원	WIN	올 뉴모닝 영업사원
셀레르 영업사원은 무엇보다 MAXIMO 처분한 날은		기차자동차에선 100% 당첨 확률을 했다. 30만 원
중고차로 상당히 좋은 가격에 처분해주었다. 2002년식 코란도를		주유권이 담렸다. 하지만 이젠 MAXIMO 운이 좋았
무려 400만 원엔, 게다가 지난 2월에 차를 정확히 당사에		가고 보통은 오프엔지니어를 한 번 받게 된다. 그게 끝
있었던 10만 원 할부잔액이 3월 구매 조건에서 사라져서 찾		하지만 역시 스파크의 공격적인 부록들이 신경쓰였지
외에 드는 부대비용 여자가서 같은 액수면 더 할인해줬다.		영업원은 따로 내비게이션을 하나 더해주기로 했다.

차 살 때는 '좋은' 영업관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영업관이 얼마나 제 실을 꺾어 해주느냐에 따라 꽤나 쓸쓸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흑사라고 영업사원이 선반에서 선형을 해준다고 감동하진 마라. 다 해주는 거니까. 만약 사야도 선형하고 일 차년도 되는 좋은 선형을 할 계획이라면 선형을 뒀다고 하고 대신 다른 걸 해달라고 요구하라.

스파크 탁속 기간	DRWF	올 뉴 모닝 탁속 기간
25일 - 스파크는 은세 핑크색이 아니라 핑크만 만드는지		40일 정도 - 2주면 차가 나온다서 계약했다니 한달 넘게
다른 색깔은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		결린다. 더 빨리 받고 싶으면 옵션을 추가하러나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온 애플이 내는 사람 먼저인 건가?

차를 한 번이라도 시본 독자들은 알겠지만 자동차 구매라는 건 무슨 11번가처럼 총알 배송, 무료 배송이 되는 게 아니다. 길은 몇 달을 기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차를 바꿀 땐 정말 먼저 사고 나서, 타던 차를 팔 때를 기다려야 한다. 차 있다가 없어진 남자로 전락하면 여자는 떠가고 당신의 풀포터는 휴업상태에 들어간다.

**결과는?** 제1회 한달간 OR코드 투표로 통해 독자가 직접 MAXIMO 취미영역의 색깔을 골랐다.

시그니 레드	19%
레온 그라스	17%
라온 그라스	9%
일기 베이지	18%
카워 모카	37%
엘리스 블루	1%

**올 뉴모닝 엘리스 블루색으로 결정**

벨기 데 브라운	2%
모노코 핑크	27%
아이슬랜드 블루	28%
바르셀로나 레드	33%

**스파크 바르셀로나 레드로 결정**

모세 잘 나가는 '모노코 핑크'를 제치고 핑강이 나왔다. 레드도 택한 한 독자는 'MAXIMO의 핑강이 재작이라고 맞았다. 핑강 1회, 1회 올라갈 때마다 MAXIMO의 남자 직원들이 가슴을 졸였다.' '저런, 핑크만은 재발..'

독자가 골라준 MAXIMO 색상

# GRILL & NET



## Cadillac CTS-V

그들 패턴은 매혹적이다. 라디에이터 그릴이든, 그녀의 스타킹이든.

BY 유승환 PHOTOGRAPHS BY ARC STUDIO MODEL 에리터 김희정  
COOPERATION GM KOREA, 유승환02-3443-1703



+ 외관이 달라도 CTS-V는 그 원형인 '신사' CTS와는 완전히 다른 차다. 캐딜락 CTS라는 특사도 안 에 괴물의 심장을 박아넣었기 때문이다. 시동을 걸자 고급 스피커의 중후한 우뚝음 같은 엔진 소리가 들려온다. 시동만 걸었을 뿐인데 뒷좌석과 조수석에 탑승한 MAXIM 스태프들의 입에서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탄성이 흘러 나온다. "우-와."

얼마 전까지 캐딜락 CTS-V에 수색이처럼 붙어 있던 타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세단'이었다. '이었다' 라고 과거형을 쓰는 이유는 얼마 전 '최속의 세단'이라는 타이틀을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캐딜락 CTS-V를 '최고'의 세단이라고 칭하는 데에 이의를 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고?



엔진형식	V8 슈퍼차저
배기량	6,162cc
최대출력	556마력
최대토크	76.2kg·m
제로백	3.9초
연비	6.3km/l (5등급)
최고속도	288km/h

강이 잘 안 오나?

국민 세단 2011 소비자평가 160마력, 최대토크 20.2kgm 획득!





이 모델은 왜  
관심 요우?



## STAT

특별히 준비된 직선주로 위에서 최고 도달 속도를 측정하는 것만 아니라면 캐딜락 CTS-V가 파나메라 터보보다 처진다고 할 수 없다. 일단 숫자가 이를 입증한다. 지구 상의 세단 중에 유일하게 3초대에 제로백점지 상태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을 갠 가속력과 이를 가능케 하는 76.2g·m의 토크, 그리고 556마력이라는 거짓말 같은 힘은 어느 모로 보나 세단계의 속도 챔피언인 파나메라 터보(제로백 4.2초, 최대토크 71.4g/m, 500마력)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 DESIGN

디자인이란 건 지극히 개인 취향을 타게 마련이지만 '세단'으로서의 디자인을 묻는 거라면 MAXIM은 누가 뭐래도 파나메라보다는 캐딜락에 한 표를 주고 싶다. 캐딜락 특유의 다이아몬드 커링 디자인은 상사의 품위를 정상화한 '세단'의 역사를 품은 디자인이다. 반면 어딘지 모르게 포르쉐의 파나메라 터보는 4도어로 성형수술을 하고 나온 '스포츠키'라는 인상을 풍길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실제로 적잖은 자동차 마니아들이 파나메라 터보를 가만켜 과연 '세단'으로 분류해야 하는 건지 지렛을 주저하기도 했다. 등하려고 세단의 리그로 내리는 슈파카보다는 슈파카의 영역을 넘보는 '세단'이 더 멋지지 않나?





은색 스포츠형 섀도 슈즈형

## PRICE

+ 이번엔 가격 비등비등하던 슈퍼 세단  
대결은 여기서 허우하게 끝나버린다.  
포르세 피니에라 터보가 2억 2500만 원, 캐딜  
락 CTS-V는? 1억 500만 원



# SSANG YONG KORANDO



'전설' 이 돌아왔다. 코란도C의 가장 큰 장애틀은 스포티자드.QM5도 아니다.  
어쩌면 코란도C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건 바로 자기 자신. '전설' 이 되어버린 뉴코란도의 신화다.

BY 유승민 PHOTOGRAPHY BY ARC STUDIO, DREAMTIME, ASSISTANT 조유림 COOPERATION 정용서동차



아빠 거  
찾 좀 주신



## ⇒ 이 사람들, 구경하지 말고 운전 조상해

도로를 달리는 코란도 뉴라이프도 탄 거본다? 왜? 그렇고다나 첫 날인해도 도로에서, 골목에서 "어? 신형 코란도다!" 라는 말을 8번 정도는 들었다. 무엇보다 도로에서 제일 반가운 건 구형 뉴코란도다. 뉴코란도 운전자는 백이던 백 천원까지 열고 구경을 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건 색깔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도장 기술이 이제 이 정도 수준?' 국산차가 흥내낼 수 없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표면 도장 기술이었는데 오랜자색 필 도색의 깊이감이 예전 수입차 못지 않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 특이한 수동변속 버튼이다. 스포츠 모드에서 오른손 엄지에 외왕은 조그만 변속레버를 앞뒤로 똑똑 킁킁 간편하게 변속을 할 수 있다. 스티어링 휠에도 수동변속 리모컨 버튼이 달려 있다. 수입 스포츠카에 달려있는 거창한 F 방식의 시프트 패드보다도 더 간편하다는 느낌이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모두 나열하려면 몇 페이지를 할애해도 모자랄 것 같다. 그러나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다 비교하고 싶다면 OR코드를 스캔해라. 스마트폰이 없다면 쪽쪽 불행한 거다.

## ⇒ 이 기능을 뭐라고 부를지니도 몰라

그래도 책에서 읽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오르막 길에서'의 안전성이다. 오르막 길에서 신호에 걸렸다가 다시 출발할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가속페달로 옮기는 짧은 순간에 차가 뒤로 슬로슬로 내려간 경험이 있을 거다.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에 정차하다가 다시 올라갈 때에도 마찬가지다. 아

찜한 순간이다. 뒷차가 비박했었다면 바로 충돌이다. 그것도 내 과실 100%로. 고급 수입차를 비롯해 거의 모든 차들이 이 상황에서 대책 없이 뒤로 흐른다. 하지만 구형 뉴코란도는 아저기히 거발로 오르막에서 정차한 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뒤로 미끄러지지 않았었다. 첨단 기능 뭐 그런거 아니다. 구형 뉴코란도를 몰면서도 항상 그 비밀이 궁금했다. 아니나 다를까 코란도도 그게 똑같다. 구형과의 숨은 공통점을 확인하고 나니 그제서야 '이 녀석이 코란도가 맞았구나' 싶다.

기능? ... 아니다. 설명서 어디에도 이런 기능 얘기는 없다. 코란도는 그냥 '원래' 그랬다. 폭스바겐 티구안같은 경우엔 브레이크에서 가속페달로 발을 옮기는 2초 동안 차가 뒤로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는 고급 기능(시프트 홀드 기능)이 장착되어 있기도 했지만, 코란도는 시프트 홀드 버튼이 그런 거 없이도 원래 뒤로 안 흐른대 이게 얼마나 안전한 건지 운전 중 해 본 사람이면 다 알 거다. 전문기술도 잘 모르는 코란도인의 숨은 장점이다.

## ⇒ 車

비싼 수입차가 '명차'는 아니다. 국산 중에도 국민적 지지를 받은 레전드급 명차가 있었다. 현대의 각그랜저나 소나티아가 그랬고, 쌍용의 우쏘가 그랬다. 이들이 '화석화 된' 전설이라면 코란도는 '살아있는' 전설이다. 뉴코란도가 단종된 지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손색스런 디자인으로 거리를 누비고, 변형 없이 미니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붕도 튜닝카 전시장의 단골 손님이다. 미친 존재감이랄까. 아직도 쌍용의 코란도는 무소와 함께 쌍용의 상징으로 남아있고, 광고계에도 무소와 코란도가 단종되면서 쌍용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렇기에 지금 코란도의 캠페인은 시기적으로 최적의



다. MAXIMO 직접 몰아본 코란도의 성능과 편의성은 기대 이상이었다. 하지만 가격이 워낙 컷던 걸까, 실망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제는 디자인이다. 총집을 데 말이 매끈하게 잘 나온 게 흠이다. 오히려 편의 기능적인 측면에선 지금보다 달했다 하더라도 별 집음이 없었을 거다. 과거의 뉴코란도가 잘 나가거나 편의성 때문에 대박을 친 건 아니니까. 오히려 미니어들은 소용과 가진 승차감, 단순 무식한 편의 기능이라도 남반으로 여겼으니 말이다. 뉴 코란도는 국내 드림카들에게 지프 랭글러를 대신하는 차였다. '군용차' 같은 남성성, 스포츠보단 강함을 표점을 둔 오프로드 정신을 옛 코란도는 그대로 품고 있었다.

그런 바뀐 기대감을 만족시키려면 코란도C의 디자인이 너무 도시적이다. 그리고 도시적인 SUV는 이미 너무 많다. 물론 다른 SUV에 비하면 여전히 저돌적인 랭크의 포스를 풍기고 있지만 '코란도'라는 이름만큼은 아니다.

자극의 훌륭한 디자인을 뜯어 고치길 바라는 건 아니다. 단지 헤드램프만 전처럼 둥글고, 스페어 타이어를 적재함에 넣는 대신 등에 짊어지게 했다면 아 마 결과는 편이하게 달라질 거라고 감히 짐작해 본 다. 뉴코란도를 오랫동안 타면서 코란도의 귀환을 목격하게 기다려온 미니어 중 한명으로서 말이다.

살랑하는 건 아니다. 게다가 코란도 광들은 이 제일 잘하는 게 바로 튜닝 아닌가? 붉은 필이 빛나는 코란도에 약간의 미초적인 성향을 가하면 얼마나 멋지게 변형시킬까만 해도 가슴이 뛰는다. 코란도C의 마치 박진치는 바로 당산의 손에 달려있다. EFR는 또 감격을 만난 거다.



스캔해서  
자문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INI 컨트리맨

지난 3월 9일 광주무의 한 행사장에서 MINI 컨트리맨이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것도 차체와 함께 지름껏 3층 시스탤을 갖춘채로. MINI가 SAV(BMW는 자사의 SUV를 가리켜 SAV: Sports Activity Vehicle이라 부른 다음 선보이며 4층 시체의 시적을 알렸다. SAV로 태어난 MINI 컨트리맨은 4m 길이로 4층 시 중 가장 길다. 그러나 화려한 런칭쇼에 비해 차체가 입고나 온 바지는 맘에 들지 않았다. 아, 앞날!



제조사	가격	모형명	제조사	가격	모형명	제조사	가격	모형명	제조사	가격	모형명	단위	비고
벤츠	5600	2010 벤츠 C클래스 C200 CD	아우디	6300	2010 아우디 A6 2.0 TFSI 4000	볼보	7200	2010 볼보 XC90 3.2 AWD	아우디	8000	2010 아우디 S4 3.0 TFSI 4000		
기아	5940	2010 기아 광개토왕 SUV	아우디	6300	2010 아우디 TT 쿠페 1795 320	인피니티	7500	2010 인피니티 QX70 파워윈드 3.7가솔린	벤츠	8700	2010 벤츠 E클래스 E180 블루TEC E200		
코티나	6000	2010 코티나 4도어 1.8i 4기통 AWD	인피니티	6300	2010 인피니티 Q70 3.7가솔린 17가솔린	아우디	7200	2010 아우디 A5 3.2가솔린 17가솔린	요코하	8700	2010 요코하 카니온 3.0 4기통		
exus	5550	2010 렉서스 ES350	제너럴	6300	2010 제너럴 CTS 3.0 4기통	볼보	7200	2010 볼보 XC70	요코하	8850	2010 요코하 카니온 3.0 4기통		
지프	5500	2010 지프 그랜드 체이퍼 3.6	제너럴	6300	2010 제너럴 SRX 3.0 4기통 AWD	exus	7300	2010 렉서스 GS 350	쌍용	8840	2010 쌍용 렉서스 C4000		
볼보	5900	2010 볼보 XC60 2.5	BMW	6300	2010 BMW 5시리즈 523i	exus	7300	2010 렉서스 LS 460	쌍용	8840	2010 쌍용 렉서스 V8 3000		
			제너럴	6300	2010 제너럴 CTS 3.6 4기통 3.6 유레	볼보	7200	2010 볼보 XC90 3.2	쌍용	8840	2010 쌍용 렉서스 R5000		
기아	5640	2010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4도어	exus	6400	2010 렉서스 ES 파워윈드 6500C	아우디	7800	2010 아우디 Q5 3.0 TDI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닛산	5800	2010 닛산 X-TRAIL 2.5 4기통	exus	6400	2010 렉서스 ES 파워윈드 6500C	아우디	7800	2010 아우디 Q5 3.0 TDI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코티나	5900	2010 코티나 4도어 1.8i 4기통 1.8i 4기통	아우디	6400	2010 아우디 A8 4.0 4기통 A8 4.0	인피니티	7500	2010 인피니티 QX56 파워윈드 3.7가솔린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BMW	5900	2010 BMW 3시리즈 318i 4기통	제너럴	6400	2010 제너럴 575 3.6 4기통	제너럴	7800	2010 제너럴 5700 4기통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후드	5800	2010 후드 RZ2 1.6 4기통	exus	6400	2010 코티나 4도어 1.8i 4기통 1.8i 4기통	exus	7800	2010 렉서스 RX 300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인피니티	5800	2010 인피니티 EX35	exus	6400	2010 렉서스 ES 파워윈드 6500C	exus	7800	2010 렉서스 RX 300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벤츠	6500	2010 벤츠 E클래스 E200 CD	인피니티	7500	2010 인피니티 FX 35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5900	2010 쌍용 렉서스 C4000 4-도어	쌍용	6500	2010 쌍용 렉서스 E200 CD	BMW	7640	2010 BMW X3 4000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벤츠	5800	2010 벤츠 C클래스 C200	벤츠	6500	2010 벤츠 E클래스 E200 CD	BMW	7640	2010 BMW X3 4000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닛산	5800	2010 닛산 X-TRAIL 2.5 4기통	BMW	6500	2010 BMW 5시리즈 528i	쌍용	76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5800	2010 쌍용 렉서스 C300 4기통	BMW	6500	2010 BMW 5시리즈 528i	쌍용	76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아우디	6700	2010 아우디 A6 3.2 TFSI	쌍용	76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BMW	5800	2010 BMW 5시리즈 523i	쌍용	67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76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볼보	5650	2010 볼보 S80 3.2 4기통	쌍용	67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76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볼보	5650	2010 볼보 XC70 2.5 AWD	쌍용	67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76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아우디	5800	2010 아우디 Q5 2.0 TDI	쌍용	67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76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exus	5900	2010 렉서스 LS 460	쌍용	67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76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아우디	5800	2010 아우디 A8 4.0 4기통	쌍용	67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76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exus	5900	2010 렉서스 LS 460	쌍용	67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76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BMW	5800	2010 BMW X3 4000	쌍용	67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76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5800	2010 쌍용 렉서스 C4000	쌍용	67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76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지프	5500	2010 지프 그랜드 체이퍼 3.6 4기통 AWD	쌍용	67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76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BMW	5850	2010 BMW X3 4000	쌍용	67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76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제너럴	6000	2010 제너럴 5-도어 3.0 4기통	쌍용	67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76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BMW	5800	2010 BMW 5시리즈 520i	쌍용	67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76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exus	5800	2010 렉서스 LS 460	쌍용	67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760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쌍용	8850	2010 쌍용 렉서스 3.6 V6		



# Jake Gyllenhaal



(스스 코드)  
에피소드 6

시간을 넘나드는 10대 소년, 혼란에 빠진 카우보이, 근육질의 페르시아 왕자, 농글거리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최근 그는 <스스 코드>를 필모그라피에 추가했다. 당선 논문 '나보다 아주 조금 잘생긴 배우'일 뿐인데, 당선 여자 친구는 대체 왜 제이콥 질런탈에 환장할까?

BY PATRICK CARONE  
IMAGE BY GETTY IMAGES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당신의 성을 읽을 수 있게 됐던 사실이 믿어지나?**

그게 내 목표였다. 나만큼이나 모국어와 지음이 차나치게 많은 성씨를 가졌다면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유명해지자.

**아직도 어떻게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예를 들어 텔레비젠티틀은 당신 이름이 적힌 리드를 보고 머리를 쥐어뜯는 데.**

대중 일반무리는 사람이 많다. "인생 하세요, 미스터 (중영양음) 씨." 마치 전아름이 이상인 것처럼 말이다. 내 이름을 자기 말대로 부르는 일은 다반사다.

**새 영화 <스스 코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달라. 한마디로 설명하기엔 어려운 영화겠지.**

맞다. 관객들이 궁금해해서도 극장에 올라가게끔. 뭔가 그럴싸하면서도 미스터리하게 설명해주겠다. 흥행 성격이 올라가겠지. 농담이고, <스스 코드>는 여러 장르가 기이하게 혼합된 작품이다. 단순하게 즐겨라만 설명하자면 무의식 상태의 남자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의식을 갖기하려는 이야기다.

**영화에는 가치가 시인하게 폭발하는 장면이 있다. 픽고 난 다음부터 가치 여행을 피하게 되진 않나?**

가치 여행은 나에게 애증의 대상이다. 어릴 때 가치 안에서 엄청 끔찍한 악몽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아마 <스스 코드>는 내가 다섯 살 때 겪은 트라우

마를 해소하는 길이 아닐까 싶다.

**<스스 코드>에서 군인을 연기했다. <자헤드>그들만의 전쟁>에서도 군인이었는데 그때와는 무척 다른 역할이다.**

완전히 다르다. <자헤드>엔 해병대 세계에 완전히 몰입했다. 거의 한 달을 내리 훈련소에서 보냈으니까. 이번 영화 캐릭터는 헬리콥터 파일럿이다. 이 인물은 일어감수록 매력적이다.

**해병들이 당신에게 와서 <자헤드> 이야기를 많이 하니?**

아주 많이 한다. 늘, 다들 영화 내용엔 동의하지 않지만. 대체로 "그 역할은 정말 가치 같았지만 영화는 좋았다"라고 말한다. 최근엔 어떤 남자가 와서 "그 영화를 본 내 친구가 압대를 신청했다"고 했다. <자헤드>의 모든 관계자들은 누가 이 영화를 보고 압대하고 싶었다고 하면 아마 다들 고개를 갸웃할 거다.

**과파 팬도 많았다. <도니 디코> 2001년 개봉한 그의 인디 걸트 영화-올긴 이야기! 독특한 작품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이 근황이기는 사뭇물 말이다. 당신도 그 영화의 팬인가?**

장난하니까 난 이 영화의 프로듀스까지 한 사람이니까 다른 영화에선 그렇게 까지 안 한다. 이 영화는 실연서 누구나 한 번은 봐야 할 통과야의 같은 작품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관객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지. "이봐 제이콥 나 <도니 디코>를 봤어." 아마 나는 "와우, 그게 정말 멋진 일인데"라고 대답할 거다.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정색을 하며 말한다. "그게 아니, 제이콥. 내가 <도니 디코>를 보긴 봤다고."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

나도 씨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듣자 하니 <도니 디코>를 제이콥 봤다고 말하는 것 같으면. 몰라, 알고 싶지 않다.

**<브로크백 마운틴>도 관객들에게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사람들 반응도 강렬했나?**

"<브로크백 마운틴>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와서 굳이 "아, 그 영화는 본 적이 없는 데 상당히 흥미롭다고 하더군요"라고 안심시키듯 말하는 사람도 있다. 흥미롭게도 어떤 관객들은 극중 캐릭터와 실제 배우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멕시코에 가지 않는다는 건가? 뭐 그런 뜻인가?**

하하.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실 내가 멕시코로 내려가서 골목골목에서 고시던 그 남자는 실재로 영화 촬영 감독이었다.

**장만, 그러나 이만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가? "음, 이상하게 생긴 라틴 남자가 필요하네... 거기 내"**

정확히 맞았다. 아마 15년 정도 NG를 냈을 거다. 로드리고(촬영감독) 때문에 이 말할 상황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친구들이 그러지 않나? "너랑은 절대 잼뽀 가지 않겠어"**

아, 이 사람, 참 이 인터넷 완전히 신으로 가고 있음아. 아주 먼 연은 아니지만 신으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해.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투모로우>에 관한 농담을 들었지?**

셀마, 그런데 영화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자주 벌어지는 것 같다. 연줄자 플랜트 에이머리와의 협력은 선풍할 정도다.

**영화 같은 일은 그것뿐만이 아닐 텐데.**

예를 들어 <러브 앤 드레스>를 찍으면서 서 비아그라를 먹었다거나... 아니라니까.

**'세계에서 가장 색소한 미혼남' 과 '가장 아름다운 50인' 같은 리스트에 놓이게 되면 기분은 어떤가?**

내 경력의 모든 걸 좌우하는 비로미터가 바로 '가장 색소한 남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일이다. 사람들은 그 리스트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지 모를 거다. 심지어 그런 리스트 자체가 인정받지는 것도 쉽지 않다. 그 리스트를 만드는 사람들도 무척 힘들었을 거다.

**우리 주변의 모든 여자 친구와 지매들은 당신 이름만 말해도 환장한다. 비결이 뭔가?**

'가장 색소한 남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게임 끝이다. 이제 당신은 연애의 신이라 할 수 있지 아니다. MAXIM을 읽어야 한다. 그게 나의 비결이다. 그리고 늘 신사적으로 행동하면 된다.

**당신은 이름표도 채우는 여자들과 연애를 했다. 커스틴 던스트, 니콜리 로프만, 테일러 슈워트, 리즈 위드슨, 그중 누구의 MAXIM 커버 화보가 가장 맘에 들었나?**

음, 거기에 관해서 할 말이 없다.

**좋아, 그럼 당신이 겪은 최악의 속회는? 왜 그런 연인과 보드카를 섞어 마신 다음 날, 완전 비추다. 절대 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18세의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공정적으로 살아, 인색아. 그리고 <버블 보이> <오스틴 파워> 제작사가 만든 엔지 코퍼레이션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나쁘지 않은 영화였어"



“아, 이 사람 참  
이 인터뷰 완전히  
신으로 가고 있잖아!”

N  
I  
N  
E  
B  
A  
L  
L  
Q  
U  
E  
E  
N

# 차유람

누가 그녀를 열광이라 말했나? 큐대를 내려  
놓은 그녀는 여신 그 자체다.

BY 김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고경희 FILM 김민욱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ASSISTANT 조유원



머리 장식 모자 제이미앤벨  
블랙 컬러 목걸이와 레드 컬러 팔미 모두 스외로보브스키  
시스루 티셔츠 코인크로즈  
깃털 모양의 스커트 가이아  
블랙 컬러 슈즈 게스

## 25세 토끼띠 숙녀 차유람

평범한 여자라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길 나이다. 그런데 당신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입학했다.

입학식에서도 어색했다. 나보다 어린 친구에게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하니 낯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배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요즘 미혼 여성에게는 "취직/취직+시집"이 대세다.

취직? 전혀 들어본 적 없다(웃음).

독실한 신앙인, 그것도 여자, 게다가 얼굴도 예쁜 당신이 당구에 입문하길 믿지 않았겠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보고 싶어 당구를 선택했다. 나 덕분에 당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말해주는 분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직업 당구 선수의 삶이 궁금하다.

일단 바쁘다. 세계 랭킹 포인트가 올라가는 대회만 따져도 6개다. 여7에 국내 종합 대회도 있다. 개인 시간이 거의 없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다른 종목 선수는 더할 거다.

아시안게임에서 당구 종목이 사라졌다. '국가 대표'라는 타이틀을 반납해야 하지 않을까?

올해 초 국가 대표 선발전에서 1위로 뽑혔다. 아시안게임에서 될 수 없는 건 아쉽지만 여전히 많은 국제 대회가 남아 있다. 그러나 '국가 대표'라고 불러도 된다(웃음).

10년 후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을 텐가?

당구는 선수 생활이 길다. 자기 관리만 잘하면 10년 후에도 현역으로 뛰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평생 당구만 치고 싶지는 않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 아닌가?

수입은 어떤가? 프로 선수는 은퇴하기 전까지 바박 돈을 벌어야 한다.

생각보다 적다. 상금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후원 업체가 꼭 필요하다(웃음).

대중은 편협하다. 당신의 실력보단 의외를 보고, 당신이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을 찾으려 노력한다. 그들을 상대할 방법을 찾았나?

나도 편협하게 대한다. 대신 난 그들의 좋은 면을 보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 노력한다. 그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편협이라는 게 다른 점이다.

알량, 당구라는 건장을 댄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좌) 민소매 상의 셀반클라인 진  
소츠 보브  
슈즈 게스  
팔미 스와로브스키  
반지 제이미앤블

(우) 레이스 웨비스 가이아  
반지 스와로브스키  
슈즈 게스

## 연예인 그리고 공인 차유람

어린 시절부터 프로로 활동한 이들은  
사람에 달고달아 비뚤 사선을 가진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의 행복을  
무시하는 어른들이 살고있고 실망스러  
웠다. 그런 어른이 될까봐 두렵다.

연예인의 부대 행사는 낱말한 수입원  
이다. 당신은 어떤가?

나는 공식적인 행사만 참여한다.

온전히 당신의 실력만으로 지금의 인  
기를 누릴 수 있었을까?

외모로 인기를 얻은 건 사실이다. 노  
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보너스  
이기에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외모 때문에 당신의 노력이  
평가되는 경우도 많다.

억울하게면 내가 받은 것이 더 많  
다고 생각한다. 아직 내 노력이 부족  
한 건지도 모른다.

독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집중력  
이 대단하다고 들었다. 너무 겸손한  
것 아닌가?

훈련량이 많아서 붙은 별명이다. 체  
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 훈련에 욕심  
부리다가 몸살이 난경우도 종종 있다.

이상형이 이수근에서 유재석으로 바  
뀌었다. 대세를 따른 건가?

내가 재미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좋다. 재미 있고  
유쾌하며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사람  
이 좋다. 멋진 외모는 그다음 문제다.

스포츠 스타는 춤과 노래에 능하다.

그쪽에는 재능이다. 하지만 코믹 댄  
스는 한번 취보고 싶대웃음.

〈스킵잇 기든〉을 보고 '주원일이' 를  
했다고 들었다. 지금 눈앞에 현인이 있  
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행동은?  
보디 체인지 그럼 현인은 당구 선수  
로 살고 있었지(웃음)

그럼 당신은 해방에서 구르고 있었지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당구 종목은?  
당연히 포켓볼이다.



## 진짜배기 당구 선수 차유람

**당신의 사구 점수가 궁금하다. 점수 매기는 건 하수나 하는 행동인가?**  
큐를 집은 순간부터 포켓볼을 쳤다. 사구는 쳐보지 않아 점수를 모르겠다.

**남자 친구가 당구를 몰라도 상관없나? 남자 친구와 당구장 데이트는 어떤 것 같나?**

제발 관심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정말 센스 없는 행동이다.

**당구 하면 내기가 빠지기 힘들다. 프로 선수끼리도 종종 내기 당구를 쳐?**  
가끔 밥 내기로 친다. 보통 재미로치고 마는데 돈을 묻어두고 진지하게 승부를 볼 때도 있다. 그때는 돈이 문제거나 아니라 누가 더 강한지 가리는 승부로 번신(?)한다.

**내기 당구에서 주위의 방해로 물리치고 경쟁심을 유지할 수 있는 팁을 알려달라.**

나는 시합 중에 관중이 많아 주위의 시선만해지면 의식적으로 눈을 테이블과 공에서 떼지 않는다.

**4월 14일은 솔로들이 자장면을 먹는 날이다. 당구장에도 자장면의 폭풍이 몰아칠 거다. 당신은 어떤 음식을 먹을 생각이나?**

자장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데이'라 불리는 상술에 휘둘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래의 남자 친구는 정말 편할 거다(웃음).

**당신도 시합에서 '뽕사리'가 날 때가 있나?**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날 때도 있다. 강하게 끌어 칠 때 힘이 들어가 제대로 당점을 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그럴 땐 애써 태연한 척한다. 민망하면 정말 지는 거다.

**프로는 정말 순화된 당구 용어만 쓰나? 나는 '미세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3쿠션 이벤트 시합 중 급한 마음에 큐미스를 '뽕'이라고 말해 민망했던 적이 있다. 이 기회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웃음).

**포켓볼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란 무엇인가?**

당연히 공을 포켓에 실수 없이 집어 넣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정확한 에이밍(조준)은 필수다. 잘못 집은 에이밍은 재앙으로 돌아온다.

**당구 만큼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다면? 테니스를 즐겨 본다.**

**당신에게 당구공은?**

공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최종 목표는?**

세계 최고 선수 같이 활동하는 선수들이 인정하는 실력과 성품을 갖춘 선수가 되고 싶다. 



(좌) 그레이 컬러 커디건 코인코즈  
그레이 컬러 민소매 티셔츠  
루키버드  
가죽 밴드 일비스틸루키버드  
원거 가이아  
빈지 제이미앤셀

(우) 비즈 티셔츠 셀빈클라린  
시몬 차마 클렘모니코  
팔미 소와로브스키  
슈즈 게츠

➔ **차유람이**  
좋아하는 3가지

---

**1 영화**

《트로이》 《타이타닉》과 '본 시리즈' 주로 액션 영화를 사랑한다.

**2 가수**

이적, 브라운 아이드 소울, 박병, 자기 색이 뚜렷한 가수가 좋다.

**3 큐대**

너무 재질 밸런스 무게 이치가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



드레스와 반지 제이미앤벨  
필리 스와폴브스키  
슈즈 에디터 소장



“ 당구장에서 데이트하고  
말하면 당장 헤어질 거다. ”



여신 보러가기



# 상속의 정석

우린 누구나 태어나면서 로또를 한 장을 들고 태어나지  
'상속'이라는 이름의 로또를 맡아, 패리스 힐튼이 별거나?  
일턴 호텔 상속녀라는 거 빼면 뭐, 그냥 색기 넘치는 빙탕녀지.

BY 유승민

가족 중 누군가가 죽는다는 건 참 슬픈 일이다. 하지만 슬픈 건 슬픈 거고...  
망자가 남기고 간 재산은 어차피 어디론가 가야할 터.

## 그래서 내 몫은 얼마인데?



## 상속의 순위

**1 순위 직계 비속** : 직계 비속이란 사망자의 자손을 말한다.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랑 삼촌, 고모들이 재산을 상속받는다. 만약 아버지도 삼촌도 고모도 안 계시면 당신이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는다는 거지, 오예~  
다만 할머니(사망자의 배우자)가 있으면 할머니도 상속 재산을 나눠먹게 된다.

**2 순위 직계 존속** : 직계 존속이란 직계 비속의 반대다. 부모나 조부모 말이다. 상속은 아래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다. 당신이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당신의 부모가 당신 재산을 상속받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네 마누라가 있다(망자의 배우자) 상속에 참여해서 재네의 재산을 재네 부모님과 재산을 나눠 갖게 된다. 괴부도 먹고 살아야지.

**3 순위 배우자** : 누가 죽었는데 직계 비속(1순위)도 없고 직계 존속(2순위)도 없다면? 이때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갖는 거다. 당신이 죽도록 돈 벌다 지식도 못 넣고 죽었는데,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다면? 당신이 남긴 전 재산은

마눌님 거다. 니 마누라가 숨겨놓은 새 사방만 신나는 거다. 사브...

**4 순위 형제 자매** : 이는 단어 나왔지? 사망자에게 자손도 조상도 없앤다고 없으면 이제 재산은 형제 자매에게로 간다. 돈 많고 시집 못 간 누나 있으면 핑수에 잘 해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누나가 죽으면 그 재산 다 지네거다. 물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누나의 재산은 부모님이 상속하겠지만 그 게 어디 가겠냐? 결국 재네 거지.  
죽은 누나의 영정 앞에서 "누나! 흐흫흫 시집도 못하고 이렇게 가버린 우리 누나!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하면서 뜨겁게 오열하는 걸 잊지 마라. 만약 누나가 시집을 가고 나서 죽었다면 더 가슴이 찢어질 테니까.

**5 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아, 진짜 말 참 어렵다. 죽은 사람의 삼촌이나 조카, 시촌을 말한다. 당신의 삼촌이나 사촌형제가 죽었는데 위의 1, 2, 3, 4순위자가 없다면? 그 재산은 오조리 당신 거다! 허쿠나 마타타!

## 상속판의 JOKER 배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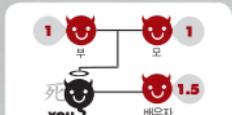
당신이 죽고 홀로 된 당신의 마누라, 즉 사망자의 배우자는 한마디로 말해 '상속판의 조커'다. 사망자의 배우자는 1순위에도 없고 2순위에도 간다는 건 앞에서도 설명했다. 이 때 배우자는 사망자의 자손이나 부모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간다. 우리 1배네!  
예를 들어 보자, 그림도 그려보자.  
우리 모두 머리가 나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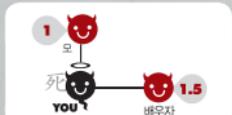
망자의 배우자와 자식이 1.5:1의 비율로 상속된다.



망자의 배우자와 자식이 1.5:1의 비율로 상속



망자의 배우자와 각 부모가 1.5:1:1의 비율로 상속한다.



망자의 배우자와 모가 1.5:1의 비율로 상속한다.

## 당신이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는 것



### ▶ 동순위는 똑같이 분배~

위 순위에서 동순위에 해당하는 상속권자가 때로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똑같이 나누어 줘야 한다. 혹시 아직도 말이들이 당신의 형이 더 우선한다거나 더 많이 받는다고 속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말이들이나 장손이 아니라 그런 거 없다. 사이좋게 머릿수만 가지고 반영, 삼정, 사정... 하는 거다. 민주주의니까.

### ▶ 입수 평등

혹시라도 자네가 외아들이라 누나와 여동생을 제하고 부모님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허황된 상상에 빠져있는 건 아니겠지? 아직도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오인'이네 뭐네 하면서 상속에서 제끼려는 집안이 있지 만 알뜰없는 소리다. 우리 나라의 남녀평등주의가 헌법에 보장되어있다. 아들이나 딸이나 돈 밝히는 건 똑같은데 송고한 아비이다. 앞에서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친가쪽 계보를 그리긴 했지만 외가쪽도 친가와 다를 것 없다.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이 자식이라 상속권도 같다. 친손주와 외손주도 똑같다. 만약 외할머니가 100억대 갑부라면 외손주인 당신은 얼마쯤에서 상당한 상속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재수가 역세게 좋으면 외삼촌이나 이 중사촌이 죽었을 때 당신도 상속재산에 합승기럭 쫓을 수 있을지 모른다.



## 유류분청구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여.

지금까지 배워 본 상속재산 분할 비율이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다. 이 분할 비율을 어려울 말로 '법정 상속분'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정상속분'은 부모가 유산 상속에 대해 별다른 유언 없이 죽은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부모가 죽기 전에 '내 재산은 어떻게 하도록 나누려'라고 유언을 했다면 우선 그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이 이뤄진다.

그렇다면 부모가 유언으로 "내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 물려준다. 나머지는 일어서들 먹고 살도록."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장남이면 신나겠지만 딸이나 막내라면 갑자기 욕이 하고 싶어질 거다. 당신이 딸이 아닐 '법정상속분'이 부모의 유언으로 인해 박탈된 결과가 발생했으니 당연하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하나는 꼭 알아둬라. 아무리 부모가 유언으로 상속자를 맘대로 지정한다 해도 당신의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남이 재산을 전부 상속 받았다 해도 당신은 장남에게 일정부분의 재산을 내놓으라

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얼마를? 만약 자식인 당신이 원래 받았어야 할 법정 상속분이 1억이었다면 그 반인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당신이 받은 게 겨우 2천만 원이었으면 나머지 3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어쨌거나 1억법정상속분의 반인 5천만 원만큼은 보장된다는 얘기다.

이렇듯 유언으로도 박탈할 수 없는 상속분을 법률용어로 '유류분'이라고 한다. 자손(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의 1/2인 유류분이고, 부모나 형제제매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의 1/3인 유류분이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스리슬쩍 누군가가 상속재산을 독차지했거나, 당신에게 유류분 만큼도 안 되는 재산만 던져줬다면? 참치 말고 바로 청구해라. MAXIMO 알려준 '유, 류, 분, 청, 구, 권' 상속재산을 놓고 형제끼리 추환 싸움을 벌이는 것 그보다 더러운이 되는 거다.





## 알아두면 쓸쓸한 막장 가족법

국회의원들은 이런 걸 만들고 있었다.



이런말 앞에 건 단어는 내용이라고? 당신은 친제이거나, 고시생이거나, 아칭드라마를 자주 많이 봤거나 셋 중 하나다. 아니면 당신의 집안에서 누군가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가? 아꼈거나 너무 쉬운 내용이라 상상했다면 미안하다. 어쨌든 쿵가루 냄새가 솔솔 풍기는 막장 아칭드라마 스타일의 상속법 되었다.

### ⇒ 너네 엄마 바람 났어?

혹시 모친께서 바람이 나서 아버지와 이혼을 했거나, 심지어 노래학원 강사랑 재혼까지 했어? 너무 슬퍼 마라. 슬퍼할 사람은 아버지뿐이다. 모친께서 아버지랑 살든, 이혼을 했든, 딴 놈이랑 재혼을 했든 죽고 나면 당신은 그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집 버리고 나간 모친이 새 애인과 재혼까지 해 버리면 또-글 곤란하다. 재혼을 해버리면 나중에 당신이 상속받을 재산의 상당부분이 새 배우자한테 넘어가기 때문이다. 말자의 배우자는 자신보다 1.5배 더 많이 상속한다는 건 알면서도 배웠어? 모친이 노래학원 강사랑 재혼 안 했어도 당신 몫이 10억인데, 기어이 재혼을 하면 그 중에 6억을 노래학원 강사자식이 챙긴다고! 어떻게 하나요? 막이이지! 재혼보단 동거가 좋다고, 아빤 뭐냐. 소부부 처라.

**"어머니 재혼안 하지 마세요! 재혼안 안 하시면 내가 그 분을 새 아버지로 인정하고 양자가 됩니까."**  
라고 말해라. 먹혔나? 자, 이제 엄마가 죽어도 그 자식은 엄마의 재산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거고, 거꾸로 당신은 그 자식이 죽었을 때 양자로서 그 자식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원상 투덜

### ⇒ 처음 보는 형제가 나타났어?

아버지가 죽자 갑자기 생긴 처음 보는 배다른 형제가 나타난다. 인제 까질라 놓으셨을까? 가끔은 당신의 아들보다도 어린 '동생'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 배다른 형제란 문제가 아니다. 싸다른 형제 혹은 쫓다른 형제라고도 부르는데도 문제다. 어머니가 죽자 난생 처음보는 형이 나타난다. 슈범! "내가 니 형이 아냐!" 평생을 내가 장남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아..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살박 언저리 까 두신 자식이 있었던 거다. 싸다른 형제는 생이 다른데 어떻게 형제-요? 그건 어머니께 여쭙 보라. 배다른 형제는 싸다른 형제든 당신의 상속재산을 갈라먹고 나타날 거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들은 당신의 당신과 똑같은 상속권순위를 작게비속을 하고 있다. 상속재산이 반토막날 위기가. 없애버려!

### ⇒ 부모님이 초콜 많아요.

당신이 품 한명이라도 수많은 양아버지를 많이 만듦이라. 양부모를 만든다고 친부모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다. 양기부모와 생기부모 모두에 대해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거대자, 사직해 볼까?  
**"사당님, 평소 사랑님을 아버지처럼 사랑하셨습니다."**

## 태아

태아 말 그대로 뱃속에 있는 녀석도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태어난 사람이라ung 똑같이 취급한다.



사람의 형상은커녕 이제 막 난자와 정자가 쏘안하여 지궁벽에 붙어 있는 고 녀석도 상속권이 있던 말이다. 물론 배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태생 밖으로 나오자만 기왕의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어쨌거나 벌써 크지만 한수정제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리를 안겨 주다니 우리나라는 참으로 휴머니즘이 살아있다.



아빠, 거기 여성 독자, 지금 보고 있니? 잘 생각해 보라. 오늘날 클리닉에서 한빈 같은 김주원 하나만 잘 고쳐서 그의 정자를 자체의 자궁에 착상시키면 당신의 뱃속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상속권자를 잉태하는 거만 일이 다. 암살의 위험을 피해 낳기만 하면 김주원의 재산은 김주원의 부모도 형제도 아닌 그대의 아이가 씩 다 갖는다. 겐짱지? 

### P.S 고시생 독자님께,

법을 상식을 보다 쉽게 전하려고 복잡한 단서는 다 빼버렸다. 원칙만 대략 설명한 거니 제발 MAXM 편집부로 예외적인 편지 좀 보내지 마라. 자꾸 그러다 나처럼 괴이하면 MAXM 에디터가 된다.

# SEX BOOSTERS

## 1탄: 발기부전 퇴치 작전

안 선다고 슬퍼 말라, 21세기 인류에겐 강한 남성을 만들어주는 신비의 모약이 있다.  
이번 달엔 시름시름한 고추를 뽀뽀하게 만드는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그러니까 울지 마, 죽지 마, 부활할 거야!**

BY 이영비  
PHOTOGRAPHS BY ARC STUDIO  
MODEL 최혜연 FILM 김진욱 ASSISTANT 김희성  
일약 공예 BY 이영비, 유승민, 장지현

※ 이 기사를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은 '성당중에서 일하는 전지현 님은 미녀 약사', '제약회사 열 리트 연구원이자 김자수(슈스케) 그놈 알고 달린티' 님은 유무니\*에게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 > 발기부전이란?

1998년 미국국립보건원은 발기부전을 '성생활에서 만족을 얻지 못할 정도로 발기가 안 되거나 발기 상태를 지속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서울대병원은 이 상태가 보통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발기부전으로 본다고 했지만 서울대라고 해서 다 맞는 말만 하는 건 아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보통 본인이 주관적으로 '몸휴가 안 서서 불안조스렵다'고 느낄 때 발기부전 증상을 겪는다고 한다. 발기발기 짖어 죽이고 싶은 이 증상을 임포텐스라고도 한다.

#### > 비아그라는 왜 피란책일까?

이중에 맞는 설명이 있다.

1. (비아타)의 나비죽 껍질을 벗겨 만들었다.

2. 스머프를 끓여 만들었다.

3. 삼성의 농간이다.

4. 건강한 남성성을 회복한다는 의의와 약용으로서 신뢰를 주기 위해, 그리고 눈에 잘 띄라고 정답은?

## 왜 나에게 이런 저주를!

제일 제일, 제일 심할, 심할, 심할! 백 번 안을 의처도 상행은 바뀌지 않는다. 이놈이 몸은 축 늘어뜨리고 길을 듣지 않는다. 겨우 세우긴 했는데 그냥 생7을 읽는다. 찢었던 시절 당신이 상처 했던 그녀가 당신의 몸풀이에 저주를 걸었다며 무덤을 찾아가 전에 당신의 품과 마음에서부터 원인을 찾아보자. 발기부전의 원인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 신체적 원인: 혈관, 해면체, 신경, 내분비 등 신체 이상 또는 약물 복용 때문에 생긴다.
- 정신적 원인: 우울증, 스트레스 등. 멘탈이 지랄 맞으면 곧바로 지랄 맞는다.
- 복합적 원인: 둘이 힘을 합쳐 당신 공휴를 주저한다.

고령, 음주, 흡연은 발기부전의 길들무다. 당뇨와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을 앓거나 혈압과 남성호르몬을 떨어뜨리는 고혈압치료제, 호르몬제제, 그리고 일부 항정신적 약물도 발기를 막는다. 발기부전 환자의 절반 이상은 신체적 원인 때문에 공휴에 비정상적이 커진 경우가. 조사 결과, 당뇨나 고혈압 환자의 40~70%가 발기부전을 겪으며, 과체중인 남자들이 미른 남자보다 발기부전 확률이 30% 높다. 미른 장작이 잘 탄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젊은 남성 중엔 직장이나 학교, 가족, 여자친구가 주는 스트레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때문에 공휴의 포스를 잃는 케이스가 많다. 에디터가 만난 남성 중엔 취업 스트레스와 신경질환이 겹쳐 아떨 수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불행한 사람도 있었다. 여자가 물을 주고 축삭 키워 꽃을 피우고 싶어도 안 사는 거다. 게다가 그 좌절감에 괴로워하여 공공 알다가 점점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망했다. 망했어.

## X들에게 희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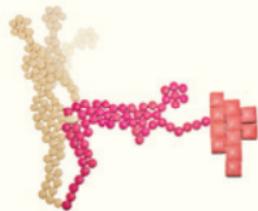
자, 말명한 사람도 고지가 될 것 같은 무사무신한 아이기는 이제 그만. 슬거운 아이기를 해보자. 푸른 다이아몬드 비아그라를 비롯해 시알리신, 레비트라, 지아네다 등 귀에 익숙한 알약들이 풀죽은 당신의 공휴를 살린다. 발기부전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이 이 약물들은 정상적으로 작용한다. 심지어 전립선 수술로 인한 고추 사망에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 약들은 몸속에서 어떤 요소를 부러뜨려 고추에 비함을 넣는 걸까?

1. 알약 속엔 수억 명의 소인국 사람이 살고 있다. 이 둘이 몸속에 들어가서 고추에 비함을 불어넣는다.
2. 생7에 흐르는 혈류량을 늘려 발기시킨다.

1번도 무척 그럴싸한 설명이지만 답은 2번이다. 비회를 돕기 위해 비아그라 탄생 비회를 들려주마. 1999년 영국의 화학자 제카회사 샌드위치연구소에서 발견한 협심증 치료 약물이 비아그라로 승천하자, 제약업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팔리는 약이 되었다. 협심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은 발기를 위해 충분히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여 발기부전을 몰리자는 셈. 벌써부터 시원하게 돌리는 게 너겨자나!

## 최음제와 정력증강제는 아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는, 약을 먹으면 곧장 공휴가 뿔뿔해진다고 믿는 것이다. 실제로 '발기부전제를 먹었는데도 안 된다. 이 사람이야'라며 의사나 약사의 머리표고를 잡는 환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 약은 환한 환자를 도울뿐 성적 흥분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비아그라를 먹어도 야한 상상을 하거나 키스, 애무를 하는 등의 성적 자극이 없다면 발기가 안 된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들은 "비아그라를 복용한 전후로 야한 생각을 일부러라도 하고 관계시 충분한 전의를 가지라"는 차치하게 친절한 복약 지도를 종종 준다. 물론 비아그라를 복용한 사람이 '섹스'를 떠올리지 않음은 없겠지만.



## ◆ 궁금해요! 비아그라!

약국에 가서 친절한 미녀 약사분에게 발기부전약에 대해 물었다. 그녀가 말했다. 일단 줄을 시라고.

### 정신안이 비아그라를 먹는다?

만약에 따르면 발기부전 없는 정상인도 비아그라를 복용하면 평소보다 발기력이 크게 느껴진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많았다. 참고로 초창기의 비아그라 용량 임상시험에 참가한 남자들 대부분이 무더기 기간이 끝난 후에도 비아그라의 처방을 원했다고 한다.

### 매일 비아그라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

내성이 생겨 생기가 떨어질 것 같지? 임상 결과는 내성이 생기지 않았다.

### 여자가 복용하면 X이 생가?

남 비아그라 설명서에는 "성인 여성이 소아 여성에게 사용될 수 없다"고 쓰여있다. 하지만 여성이 발기부전약을 먹으면 질내 혈액순환이 느는 효과가 있어 성감이 올라간다는 결과도 있다. 안 먹어서 잘 오를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치료 목적을 위해서도 전문 의문이 여성에게 발기부전제를 처방하기도 한다.

### 약국에 발기부전약을 타러 오는 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니?

중년 남성 중엔 "내가 쓸 건 아니네.."라며 사가는 사람이 꼭 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사용 설명서 꼭 해달라고 한다. 80년생 젊은 남자 손님도 있었다. 피부과에서 여자를 치료할 때는 환자들은 피부과 약이란 지어내다 처방 받아서 시켰다.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굳이 붙잡고 복약지도를 하진 않았다. 올 때마다 10일 이상을 사가는 이상한 여자도 있다. 비아그라 팩은 4명이 포장되어 있는데 그걸 "일박 다 잘라 달라"고 한다고 한다. 아! 참태이 야하게 생긴다!

### 당신이 본 가장 나이 많은 비아그라 유저는?

어린 할아버지가 비아그라 사던 다음날 푸르거 할아버지와 외사 다른 약을 탔었다. 그 할아버지와 관계해라고 신 건 아닌 것 같았다. 뭐랄까, 그 할아버지는 누군가와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무척 낮아보였다. 50원대 비아그라 고추 공수 어린 본인 환자 초고령 환자는 86세라고 했다. 참고로 할아버지들은 자제나 누나 시알리신, 레비트라를 처방해주면 안 좋단다. 편약 설명이 야-트-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 비아그라 안 주냐고 나한테 화를 내구나 다시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비아그라로 바꿔는 할아버지도 있었다. 광고의 힘은 대단하다."

**8,300**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판매되는 피린 알약의 수(2009년 통계. 너의 배도, 우리 부장님도, 옆집 할아버지도 반한 그 약.



발기부전 자체가 성인병의 신호탄이다. 발기부전 환자 중 12%에게 훗날 당뇨병이 찾아온다. 발기부전 환자의 심장마비 위험은 일반인보다 3.5배 높다. 고추도, 물도 모두 병신이 되어버린 7~10이야.



#### 발에 서는 남자

미드 (Sex and the City)에서 실컷이 남자가 자는 동안 욕봉에 우표를 싣막 같아봤다가 다음날 아침 우표가 떨어져있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온다. **경상권인 남자는 수면 중 4~6회 발기를 하는데 한 번 서면 보통 25~35분씩이나 지속된다.** 우표가 떨어지면 골유연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다. 병원에서는 싣막의 우표 검사보다 훨씬 진보한 아간을 경필기검사를 한다. 아간벨기가 정상 수준이면 신체적 원인이 아닌 정신적 원인 때문에 발기부전이 왔다고 진단한다. 병원에서 "남편이 시도해도 일이 X를 휘두르고 다닌다"며 아내가 위자료가 얽힌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간 등의 사건 재판에서 피의자가 무죄임을 주장하고자 할 때 아간을벨기검사를 받고 자신이 '서지 않는 남자' 라는 걸 만천하에 증명하는 증거로도 쓰인다. 그래, 너 잘났어요.



## 발기부전제, 어떻게 다를까?

매일 당신에게 쏟아지는 스펀메일 속 '비아그라/시알리스/레비트라/자이데나'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 간단히 비교해왔다. 일반적인 평가와 임상 결과, 제약회사 자체 실험 결과 등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늘 너무 탓하지 마라.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물어보도록. 배운 사람들이나 좀 다르지 않았겠?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자이데나 
성분	Sildenafil	Tadalafil	Vardenafil	Udenafil
평균 가격대 <small>*약국마다 가격 은 다를 수 있다.</small>	50mg 11,000원 / 100mg 14,000원	10mg 13,000원 / 20mg 16,000원	10mg 11,000원 / 20mg 14,000원	100mg 6,000원 / 200mg 10,500원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	30분 후	45분 후	10분 후 <small>발현 속도가 가장 빠르다</small>	30분 후
작용 시간	4~6시간	36시간 <small>그래서 방영이 주말의 보약 (Weekend PAF)이다.</small>	6~12시간	12시간
연세 먹나?	행위 1시간 전	2시간 전	30분 전	30~1시간 전
약물 협동 최고 농도 시점	복용 1.5시간 후	2시간 후	40분 후 <small>피크도 가장 빨리 온다.</small>	1.18시간 후
음식술과의 상호작용	술이나 고지방 음식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술과 음식은 나 마음대로	고지방 음식을 피한다.	자료 없음
특징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과 강한 브랜드 파워 가장 무난하고, 강하게 는 괜찮다는 평가	약효가 가장 오래 지속 되고 가장 비싸서 요새 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비싼물도 높다). 평균 수준의 발기 지속력	약효가 가장 빨라 느껴 진다. 비아그라보다 지 속시간은 길고 역효과 발 현 시간도 빠른 편	국산이라 가격이 저렴 하다. 비아그라보다 지 속시간은 길고 역효과 발 현 시간도 빠른 편

## 부작용은 무엇인가?

“일반하면 어떤 약이건 약은 안 좋다”고 말한 약사도 어떤 만큼 모든 약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다만 그 심각한 정도는 약에 따라 다르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발기부전제의 공통적인 부작용은 **두통, 인면홍조, 한기증** 등이다. 드물게 지속발기증(8시간 이상 통증을 수반한 발기)이 나타났는데, 4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되면 즉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어떤 음용 조치가 상한 다. 발기는 영영 남의 집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비아그라의 경우 100mg을 투여했을 때 약효 최고 시점에서 갑자기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드문 부작용이 있다. 3% 이상의 복용자가 호소하는데 2시간 정도면 사라진다. 소화불량으로 폭풍트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비아그라의 국내 임상시험 결과, **홍조, 두통, 시각이상** 등의 이상반응 발생을

이 외국 임상시험 결과보다 높다는 보고가 있다. 한국 남자는 임상생이(1%)! 시알리스의 경우는 근육통, 두통 통증이 있을 수 있다. 레비트라는 인면홍조가 10명 중 7명 꼴로 나타났다. 비아그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부분은 나이가 든 남자들이 성교 도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케이스다. 물론 약 때문에 실제로 사망할 수도 있다. 비아그라처럼 혈압을 조절하는 질환자들이 들어간 약물을 같이 쓸 경우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사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약사들이 입을 모아서 “**자혈압 · 고혈압 환자에게 발기부전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심혈관계 질환이 우려되면 무조건 의사와 상의한다. 물론 일반인이라고 해서 약국에서 그럴 박스처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발기부전제는 병원에서 가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전문약품이다.

## 발기부전제 사용 가이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품이다. 병원에서 가라. 부끄러워 말고 약사에게도 복약지도를 잘 받도록.

협업에 문제가 있거나 협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보라.

비아그라는 기증진 음식에서 약효가 더디다.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복용 2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비아그라를 먹어도 만족상태에서는 발기가 잘 안 된다. 쓸데 없이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먼저 정성애 먹자.

인면홍조에 너무 놀라지 마라.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인면홍조는 약효가 들고 있는 뜻이기도 하다. “얼굴이 붉어지면 신호가 온다고 생각하라”는 한 비뇨기과 의사의 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심하면 복용을 멈춰라.

자주 할 때 더욱 좋다. 비아그라의 실패율은 성적 자극, 오르가즘, 사정 등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정 후 다시 발기하는 시간은 줄어든다. 비아그라를 복용하는 안 먹은 그룹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도 다시 발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령은 돌아오는 게 비아그라를 먹으면 더 빨리 돌아오는 가!

타이밍이 중요하다. 약이 체내에서 빠져나간 뒤엔 죽은 아들 고추 만지는 것처럼 아무 효과 없다. 예를 들어, 당신의 발기 계획에 1시간이 동충하차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작용시간이 긴 시알리스를 먹어라. 복용 시점은 제 팔뚝로 따르니 기사 속 표를 참조하라.

부작용을 반드시 확인하라. 물론 부작용이 늘 그렇지만 보고나면 약을 먹기 싫어지긴 하다.

그리고 절대 인터넷에서 구입하지 마라. 자네, 비보험가!

“내가 쓸 건 아닌데...”



내용 보기

## 약만이 방법인가?

많은 의사들은 "약을 먹어서 성적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것으로 만족감, 성취감을 되찾아 정신적 원인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를 치유하기도 한다"며 "약으로 성 기능을 유지하는 게 약 먹는 게 두려워서 부부관계를 파하고 성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다. 발기부전을 숨기고 괴로워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평소의 자기 관리가 골휴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발기부전제를 쓰는 것은 마치 자기 자동차를 다른 차 배터리에 연결하여 3km 마다 시동을 다시 걸려는 것과 같다." 미국의 국민 약사 수지 코헨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약도 약이지만 평소에 잘 관리하라는 의미다. 아직 젊은 당신에게 성기능 장애가 온 것은 대체로 스트레스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성호르몬을 만들지 않고 파업을 한다. 대신 아드레날린과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든다. 성호르몬을 만드는 부신의 기능이 돌아오면 골휴의 동반 파업도 끝이 난다. 평소 잠을 꼭 자고 스트레스를 줄여라. 가기에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바야그라 필요 없는 찰진 골휴 가이'가 되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자. 골휴야, 힘내



# K-9 전장의 제왕 자주포

자주포에도 '급'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제작한 K-9은 명품 자주포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스타급' 자주포였다.

## 전쟁 무기의 으뜸은 대포노님



느닷없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포탄은 자살의 모든 것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 그 만큼 대포는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다. 이런 대포 중에서도 스타급인 녀석이 있으니 바로 자주포다. 자주포는 차량에 탑재해 이동이 가능한 대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녀석이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 중인 K-90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문에 명품 자주포로 소개됐지만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시범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걸로 모자라 최근 자체 결함까지 불거지면서 씩씩 자주포란 명망을 잃게 되었다.



## 남북한은 포병 덕후

연세 맞짱을 붙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남북한은 서로를 압살하기 위해 '미친 수준'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막강한 포병 전력을 보유 중이다. 세계 군 사력을 평가하는 (일리프리 밸런스 2010)을 기준으로 각각 포병이 보유한 각종 포의 수를 비교하면 1위 러시아(26,121여 문), 2위 북한(17,900여 문), 3위 중국(17,700여 문), 4위 인도(11,258여 문), 5위 한국(10,774여 문), 6위 미국(9,137여 문) 순이다. 남북한의 포병 전력은 각각 세계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다. 핵폭탄 따위 없이 온전히 포병 전력으로만 맞짱을 떠도 한반도는 불바다가 되고도 남는단 예가다.

## 대포 개발의 역사



우리나라는 고려 말 최우선 이 흑색 화약을 개발할 정도로 대포 개발에서는 일간군이 있었다. 육군도 포병 전력의 국신화를 위해 1970년대 초부터 105mm, 155mm 견인포를 직접 만들어왔다. 1970년대 미국의 군사 원조를 무로담형 175mm 자주포와 8인치 자주포를 운용했고, 미국이 1978년부터 배차한 155mm 자주포 M-109A2를 공동 생산하여 1983년부터 K-55 자주포라는 이름으로 약 1,000여 대를 배치했다.

적어도 연평도 사건에서 어리바리 까면서 짝퉁포로 전략하기 전까진 그랬다. WORDS BY 김재영 IMAGES Getty Images



# 진짜배기 국산 자주포 K-9

1980년대만 해도 북한에 비해 우리의 포병 전력은 열세였다. 북한은 수적 우위뿐 아니라 절반 이상을 자체 생산했기에 기동성도 뛰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은 포병 전력의 양적 열세를 질적 우위로 극복하기 위해 KH-179 견인포와 K-55 자주포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자주포 개발에 착수했다. 1999년부터 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약 10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탄생한 K-9 자주포는 삼성 테크윈, WA, 풍산, 한화, LIG넥스원 등 100여 개 업체가 개발에 참가했다. 1999년부터 이전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우리나라가 세상에 자신 있게 내놓은 국산 자주포다.



## K-9 자주포의 위엄



K-9 자주포는 3분간 최대 6발의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K-55 자주포의 3배 이상의 화력을 자랑한다. 52구경장약(8m)의 155mm 포신을 채용해 사정거리도 40km 이상 늘어났다. 무엇보다 포탄의 자동장전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격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 자동화된 사격통제장치 덕분에 표적 위치만 입력하면 사격 재원을 계산하여 포탄과 포신이 사격에 맞맞는 각도로 움직인다.

## 세계의 자주포 - 1

헤어선 한 곳발 하는 자주포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미국 / M-109A6 팔리던

1983년 최초로 생산된 미국의 M-109 자주포는 40년 이상 개량하며 사용 중이다. 자주포의 베스트셀러로 1만 대 이상 생산되었고 20개국에서 사용했다. M-109 자주포의 개량형인 M-109A6 팔리던 자주포는 미 육군이 현재 운용 중이며 주한 미군에 배치되어 있다.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에서도 투입됐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 K-9 자주포와 비교하면 화력, 기동성 등이 떨어진다. 참고로 육군의 K-55는 M-109A2를 한국 상황에 맞춰 개량하고 국산화한 것이다.



### 독일 / PzH-2000

명동 자주포 PzH-2000은 1980년대 말 냉전시대에 개발을 시작한, 현존하는 자주포 중 가장 뛰어난 녀석이다. K-9보다 사거리, 발사 속도, 방호력도 뛰어나다. 8차만 최신 시스템을 탑재해 대당 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데, 방어력도 포탄의 방재능을 늘려다 보니 중량이 많이 나갔다는 게 흠이다. 독일 역시 현재 1254대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국방비 삭감으로 185대를 주문하는 걸로 그쳤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스도 PzH-2000을 현재 운용 중이다. K-9 자주포 역시 PzH-2000에 사용된 52구경장주포와 1000마력 대용엔진을 채용했다.

# K-9 전장의 제왕 자주포

빠어난 기동력  
견고한 방호력은 기본



K-9은 1,000마력의 디젤엔진을 탑재해 톤당 20마력 이상, 최대 67km/h까지 달릴 수 있다. 사실상 K-1 계열 전차와 동등한 수준의 기동력이다. 자주포로는 드물게 유가압 현수장치(지상 주행 시 진동을 상쇄하는 완충장치)를 적용해 안전성과 승차감을 높였고, 지면에 자주포를 고정하는 장치 가 없어도 사격이 가능하다. 전차만큼은 아니지만 고강도 장갑판을 사용했기 때문에 적 포탄의 파편이나 중기관총, 대인 지뢰 등에 대한 방호력을 갖추고 있다. 화생방전 대응 능력 역시 갖춰 승무원의 생존 능력도 업그레이드됐다.

K-9는  
한마디로  
킹왕짱



K-9은 대당 가격이 40억 원에 이르는 고가의 무기다. K-55 자주포(약 10억 원의 4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하지만 미국이 보유한 M-109A6 필라딘이나 영국의 AS90보다 성능이 우수하며 세계 최정상급 자주포라 불리는 독일의 PzH-2000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터키는 K-9의 기술을 도입해 T-155 FRTINA 자주포를 생산해 운용할 정도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이 벌어지면서 전군 최초로 연평도의 해병대에 배치되었다. 자주포 같은 신형 장비가 육군 주력 부대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 그 자체다.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가진 K-901었지만 지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의 대응은 실망스러움 그 자체였다.



## 세계의 자주포 - 2

해외에서 한 곳밖 하는 자주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영국 / AS90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로 영국 육군이 200여문을 운용하고 있다. 보스니아 내전에 최초로 투입되었고, 이라크전에서는 사막 환경에서 우수한 직접 성능도 인정받았다. K-9 자주포와 비교해서 화력 기동성 등의 성능은 떨어진다. 차세대 자주포의 후보로 50구경정이 각광받고 있다. 39구경정 포를 장착한 AS90 자주포는 수출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K-9 자주포는 AS90 자주포에 최초로 사용한 유가압 현수장치로 재평해 개발되었다.

# 연평도에서 K-9이 멸망한 이유



K-9이 배치된 지 이미 10년 이상이 지났다. 이런 고가의 장비는 10년이 지나면 집중적으로 정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산화된 전자나 자주모의 외주 장비가 적체되면서 K-9 역시 육군 소속 2대만 제대로 된 정비를 받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K-9 자주모의 외주 정비 미지션도 10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났다. 정석대리라면 연평도의 K-9 자주모는 중합 건강 검진을 받고 새로 태어났어야 하지만 그럴 기회를 놓친 셈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무기 체계의 개량에 스크루지 영감만큼이나 인색하다. 전장의 환경은 시시각각 변한다. 이에 맞춰 무기체계 역시 끊임없이 개량해 발전해야 한다. K-9 역시 앞으로 최소 20~30년을 사용해야 하는데 적절한 개량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K-9의 굴욕은 결국 무기 자체가 아니라 운용하는 이들이 원인이 된 것이다. 세상에 완벽한 무기는 없다. 무기를 운용하는 이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무기는 완벽해지는 것이다. K-9 역시 마찬가지다.



김대영

영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언론 분야에 종사했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 합진인 아미진(ARMY2N)에서 영화 속의 전쟁을 기고했다. 현재 네이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획물을 연재 중이며, 인텔넷자주모에서 국방조사팀 팀장을 맡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 북한의 GPS 교란 작전

덕분에 애꿎은 민간인들이 개피를 봤다지?



북한이 우리나라의 GPS를 교란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군사적 부분은 별다른 타인이 없었지만 애꿎은 민간인 GPS만 먹통이 되어 개피를 본 사람이 많았다. GPS를 활용한 휴대전화 시계가 맞지 않거나 통화 품질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했다.

GPS 위성 신호는 군사용(PW) 코드와 민간용 CA 코드로 나뉜다. 군사용(PW) 코드는 정밀도가 높고 암호화되어 있어 사용 허가 를 받은 이들과만 접근이 가능하다.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교란 작전에 대한 대비가 잘되어 있는데, 민간용 CA 코드는 사실상 무명비 상태다. 우리나라 GPS 체계를 뜻 먹이라는 북한을 저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냐 미사일로 교란 장치를 파괴하는 거지만 남북한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능에 가깝다. 차선책은 지름 사용 중인 GPS 칩을 진파 방해에 강한 내성들로 교체하는 거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그럼 어쩌라고? 군에서 개발 중인 E-Bomb (전자기 펄스 폭탄)을 사용하면 된다. 전자기 펄스 폭탄은 강력한 전자파를 방출해 적의 전자기기 체계를 무력화한다. 이 녀석을 정밀유도무기에 결합해 사용하면 북한의 교란 장치를 꼭 집어 타격할 수 있다. 오호.



DIORA



# THE EXPLORER

바이츠로 볼, 볼, 볼이다. 아메리칸 뷰티 다이오라 베어드가 황우지 같은  
당신의 마음에 화려하게 피었다. 당신은 그저 물만 주면 된다.

BY JESSE BRUKMAN PHOTOGRAPHS BY TONY KELLY

말뚱에 열쌍 청바지만 입은  
라틴계 남자 정원사랑 촬영한다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절단기 맛 좀 보세요?





브라운 컬러 디노 Macpherson  
 핑크 미니 메네스 Minnie's  
 스텝스 Nina West

(오른쪽 페이지)  
 맨티 Victoria's Secret  
 무드 Marc Jacobs  
 크레이지 Topshop

**눈**에 들어온 건 순간이지만 오래도록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여자가 있다. 다이오라 베어드가 바로 그런 여자다. 2005년 (웨딩 크래세)에 이 글발 미녀가 침대에 내던져진 장면이 나오는 순간. 모든 남자 관객의 노래에 그녀의 몸타주가 박혔다. 새로운 섹스 심볼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유명세가 축복이자 저주였다. 이후 6년 동안 늘 뻔한 글발 섹시 미녀를 연기해야 했으니. 그런 그녀가 이제 드디어 비키니가 아닌 '웃'을 입고 등장하는 여배우로 성장했다. 축하를 해야 할지, 아쉬워해야 할지 혼란스럽냐? MAXIM이 활짝은 다이오라의 화보를 준비했으니 아쉬워 말라. 그녀는 여전히 이토록 화끈하니까.

**MAXIM과 촬영한 지 꽤 오랜편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트랜짓) 촬영을 마치고 막 루이지애나 주 배턴루지에서 돌아왔다. 재미는 있었지만 다시 가고 싶진 않다. 그게... 아의 촬영을 하던 때가 8월 한여름이었는데. 내 의상은 가족 재킷에 타이트한 긴 바지였다. 음... 그리고 우린 그 덥고 눅눅한 날씨 때문에 서로의 양복을 참고 견뎌야 했다.

**악간의 액션이 필요한 촬영이었는데 소감이 어떤가?**

확실히 나는 맞는 것보단 때리는 데 소질이 있다. 물론 맞기도 많이 맞았다.

**액션 영화 <하울링 포 유(Howlin' For You)>에선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다.**

내 안에서 악당의 모습을 발견했다! 흥. 브래이지! 너지 무슨 킬. 킬. 섹시한 여자...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배역이 예전과 달라졌다. 기분이 어떤가?**

아직까지는 "도대체젠 자기가 뭐라고 자질이 살치는 거야? 데려가서 다시 비키니로 갈아 입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도 난 아직까지도 습관처럼 이렇게 계속 묻는다. "그래서 내 웃을 짓고 벗기는 장면은 언제 촬영하나요?"

**당신 몸에 새긴 문신엔 어떤 의미가 있나?**

타투에 관한 한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충고는. 남자 나부랭이의 이름을 몸에 새기지 말라는 거다. 절대. 난 두 번이나 했다. 두 번이나 둘 다 지금 자우는 중이다. 말도 못하게 아프다!

**문신에 언급한 두 남자 말고도 수많은 남자가 당신에게 작업을 걸 텐데 귀찮지는 않나?**

그렇지 않다. 평생엔 수수하게 입고 다닌다. 게다가 메이커업을 지우면 좀 평범해 보인다. 아일랜드 혈통 특유의 청백한 얼굴에 주근깨도 있다. 물론 사진에선 안 보일 거다. 나도 발견하지 못하니까. 한번은 비디오 가게에서 내가 나온 (엑셀티드)(전환적인 미국식 저급 코미디 영화-울거이름 뒤죽박죽)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오더니 나에게 그 영화에 대한 농담을 걸었다. 그래서 '내가 이 영화에 나온 사람이다'고 말했는데. 말걸지 않는 거대 자기는 이 영화를 무려 3번이나 봤는데 그럴리가 없다고 말았다. 자. 첫째. 내가 다른 영화도 아니고 대체 왜 (엑셀티드) 같은 영화에 출연했다고 뺨을 치겠다? 둘째. 그리고 이 남자는 -비록 내 영화긴 하지만- 왜 이런 영화를 세 번이나 본 건가?

**때로는 사람들이 당신을 못 알아보는데 귀찮지는 않나?**

그런 것 같다. 내가 작품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지 뭐. 나라는 배우는 이 정도다. 다음 작품에선 내가 심지어 흑인 꼬마 연기에 도전한다... 그해 이긴 뺨이다. 아아. 미안하다! 너무 수준 낮은 능동이었다. MAXIM 독자 여러분.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말한 내용의 99.9%는 비꼬아 반장대는 거였어요! 인터넷에서 저주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 나는데. 나 좀 혼나야겠지?

**다이오라 베어드, 난 대체 누구?**  
 그녀에 대한 짧고 강렬한 정보

- **생년월일:** 1983년 4월 6일
- **대학:** 2004년 시트콤 <더 투로 캐리>에 게스트로 출연
- **13,200명**의 팔로워를 지니 트위터에서 dlorabaird를 검색하려면
- **녹색 인간:** 2009년 (스타 트레에) 그린 우연(녹색 여인)으로 등장했지만 슬프게도 편집당했다.
- **마이애미 소녀:** 그녀는 아이(100)에서 테어나 구세가 되던 해사로 이사했다.



시즌의 비지 American Apparel

구두 Steve Madden

(오른쪽)

시즌 American Apparel

“아직도 난 이렇게 계속 물어본다.  
‘그래서, 내 옷을 찢고 벗기는  
장면은 언제 촬영하나요?’”





저것만 없으면  
저것만 없으면



## SWEET WHITE DAY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MAXIM PARTY.

이번엔 아예 독자 100명을 초대해서 함께 놀았다!

BY 김희성 PHOTOGRAPHS BY Kaipaparazzi

COOPERATIONS CLUB ANSWER, ESCAPE KOREA

화이트 데이 파티 초대권을 주면 에디터한테 사탕 주겠다더니 최다 땡이었다 하긴 충분히 그럴 만도 하다. 3월 12일 클럽 앤써의 수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았으니까 이날 앤써는 당신을 비롯해 섹시한 누님들이 사탕을 마구 뿌린다는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로 동이 트도록 북적였다.



화이트 데이 파티  
참여하기



## READER'S DIGEST

### ▶ 독자들이 말하는 "내가 파티에 가야 하는 이유"

- 사랑 삼 들은 있는데 사랑 줄 여자가 없어서
- 25년 만에 처음 벨런드워테이 초콜릿 받아보나 했는데 2월 5일에 처어서
- 친구가 곧 포경수술을 하기 때문에
- 외로워서
- 전역 날이라서

### [만면 남자 에디터들의 속을 쓰리게 하는 이유도 있겠다]

- 파티의 수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난 키 198cm의 명문대 출신 훈남)
- 여친이 죽순이만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 여친이 요즘 날 힘들게 해서
- 여친이 흥풍으로 출장 가는 날이라서

### ▶ 파티에 오기 위해 독자들이 던진 무리수 TOP 4

- 파티에 안 보내주면 화이트 데이는 에디팅 보낼 거다.
- 파티에 보내주면 24개월 정기 구독하겠다.
- 저순 대례로 3호가 MAXIM을 구독하겠다.
- 파티가 무르익을 때쯤 스테이지 중앙에서 장기 자랑을 하겠다.





# EUROPEAN NOISE PARTY



2월 28일, W호텔 WOOBAR에서 유럽을 주제로 한 파티가 열렸다. 파티 콘셉트만 봐도 각이 딱 나오지 않나. 왠지 '나 감강 좀 있소' 하는 예쁜이들이 죄다 모일 것 같은 느낌 실재로도 이날 파티는 어여쁜 여인네들이 넘쳐났다. 이날 여기 온 수컷들은 멍점은 가지 파티에 참석하지 못한 남자 에디터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자신들의 우애함을 탓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더라. 이 페이지를 보는 순간, 당신의 가슴도 후회로 가득 찼겠지

술직히 처음엔 따분할 줄 알았다.  
하지만 이날도 역시 에디터는 광란의 밤을 보내고 왔다!  
BY 김희성 PHOTOGRAPHS BY raccoon  
COOPERATIONS W HOTEL WOOBAR, KOLABO ENTERTAINMENT





## DJ SHARAM JEY

아닐 어여쁜 그녀들을 춤추게 만든 건 바로 디재이 사람 제이 (SHARAM JEY)였다. 장르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의 터프한 디재잉에서는 록 공연의 티프함과 일렉트로닉의 광기를 무려 한 번에 느낄 수가 있다. 고 한다. 사실 에디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저 신이 나서 몸을 흔들었음 뿐.

BLADE LEARNER  
MAXIM 무기도감



# 刀劍

도(刀)를 아십니까? BY 김성현  
아니면 검(劍)이라도...?



### 도(刀)는 무엇인가?

한쪽 날을 가진 길이며 상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베는 무기다. 일본도가 유명하지만 전장에서 일본도는 창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보조무기에 불과했다. 창이 목을 한 번에 잘 만큼 예리하면 뭐하든 칼날이 쉽게 무너져서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다. 오히려 페르시아에서 사용한 샴쉬르나 발복도의 일종인 쿠크리가 실전에서 활약을 훨씬 뛰어났다. 하얀 흰 열도의 구리는..



### 검(劍)은 무엇인가?

도와 달리 양날을 가졌다. 대신 검의 날은 도처럼 날카롭지 않다. 베는 게 아니라 (스파르타쿠스)에서처럼 장차 패듯 상대를 몸통이를 분해하거나 몸 안에 찔러 넣는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위력은 도가 사정잡히는 창이 더 낫지만 검은 언제나 남자의 로망이었다. 검은 쇠가 많이 들어가서 돈 꽤나 있는 놈이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다. 무협지에서 괜히 검을 만병지왕이라고 부른 게 아니다.

### 도와 검이 맞붙는다면?

검은 상대를 찌르거나 때려라(?)하고, 도는 상대를 베어야 한다. 검수라면 최대한 검을 맞대면서 도의 날을 무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테고, 도주는 상대의 공격을 요격할 때와 면서 한 방에 지렁이를 입히려고 용을 쓸 거다. 문제는 일단 일 상형에서 서로의 빈틈을 노리기라 그리 녹록하지 않단 거다. 사무라이처럼 일격에 끝났다는 건 안봐도나 가능한 일이다. 아니면 양키 검수와 일본 도수가 맞붙으면 열도 흰 송이가 딱실실 당할 수밖에.



### 도(刀)! 해쳐 모여!

#### ➔ 쿠크리 [법목도]

길이: 40~80cm, 무게: 0.6~1kg

법목도에서 발전한 구르카 용병의 원소 무기다. 날이 < 모양으로 휘어져 있다. 칼끝이 날카롭고 손잡이 쪽으로 갈수록 무거운 게 특징이다. 쿠크리는 다루기가 쉽지 않아 시름을 썰려면 훈련이 필수지만 본인의 힘을 훌쩍 뛰어넘는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구르카 용병이 이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 마체테

길이: 0.5~1m, 무게: 0.4~1kg

영화 <마체테>에서 주인공 형님이 사용한 무기다. 법목도의 한 종류로 도산이 격하게 휘어져 있지만 칼의 무게를 이용해서 수물을 해치는 용도로 사용했다. 물론 영화 속 마체테 형님은 마체테를 사람 목을 해치는 용도로 사용했다.

#### ➔ 청룡도

길이: 1m, 무게: 0.8~1kg

당나라(7~8세기) 시대에 유행한 무기다. 일본도는 막부가 무사에게만 소지를 허가해서 귀티가 나지만 중국은 청룡도의 소지를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잡배가 신나게 들고 다녔다. 덕분에 청룡도의 이미지는 개떡이 됐다. 중국 영화에서 동네 양키들이 자주 들고 나오는 칼이 이 녀석 뒤사겠다. 사실 당나라 시절에도 활과 창을 비롯한 원거리용 무기가 중심이 된 상태였기에 산



자대, 호수 등지에서 주로 사용했다. 도지만 끝부분이 꼭져서 해머처럼 휘둘러도 꽤나 위력적인 무기다. 품은 안 나지만 청룡도는 이미 더 따위를 따지는 무기가 아니다.

### 이도류는 강하다?

문, 딱이다.

이도류의 달인 미야모토 무사시는 한손은 배인 무기, 한손은 짧은 단검을 들었다. 그리고 짧은 단검은 수비용도 로만 사용했다. 양손의 무기를 교체해서 적의 무기를 받아낼 수도 있고, 적을 양손으로 동시에 압박할 수 있으니 효율적이지 않나? 개뿤을 찌는 건 자유다. 하지만 고작 그런 이유로 이도류를, 그것도 정장 종류라면 고집한다면 싸우는 도중에 팔과 다리 힘이 풀려 상대에게 목을 바쳐게 될 거다.





### 일본도

길이: 0.9~1m, 무게: 1~1.2kg

일본도는 손잡이가 길쭉해서 한손으로도, 양손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도신이 격하게 휘면 칼집에서 뽑기가 힘들기에 삼쉬르민족 도신이 휘진 않았다. 애도 막부 시절에는 약 70cm로 도신의 길이를 제한했지만 이런 것 따위 무시한 일본도가 많았다. 사람을 베는 용도 외에 장식용으로도 많이 제작됐다. 참고로 도신이 민화나 예나메이션에서 본 멋진 사무라이가 일본도를 화려하게 휘두르는 모습은 100% 구라다. 그 시절 일본은 일본도와 키 차이도 별로 나지 않은 피리뚱뚱한 사무라이가 전부였다.

### 삼쉬르

길이: 0.8~1m, 무게: 1.5~2kg

페르시아의 대표 무기인 날이 흰 원도로서 검옷을 입지 않은 이를 포차렘 또는 용도로 사용했다. 영어로는 시미타라고 부르는데 청룡도 등도 여기에 통으로 여한다. 가장 큰 특징은 휘어 있는 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굽인 손잡이다. 손잡이가 날과 반대방향이어서 상대를 벨 때 힘을 실기 한결 편하다. 도신은 앞면도 그레이트 톱을 비롯해 베고 찌는 부위에 도를 밀어 넣어 가르기 쉽기 때문이다. 이놈을 가지고 무기를 상대할 생각은 버려라. 날이 버티질 못한다. 방패나 본인의 화피신공을 최대한 발휘한 후 일격을 가하도록



같이랑 안 놀아 이제

### 검(劍)! 해쳐 모여!



### 에스톡 스톱

길이: 0.8~1.3m, 무게: 0.7~1kg

피리기에 올인한 검이다. 언뜻 보면 왕비늘처럼 생겼다. 사슬로 된 갑옷마저 꿰뚫을 기세지만 갑옷을 뚫고 나서 회수할 수 있던 보장은 없다. 게다가 전장은 일대일 승부를 벌이는 곳도 아니다. 그래서 이놈은 갑옷의 틈새에 밀어 넣어 몸을 포차마냥 꿰뚫어 버리는 용도로 주로 사용했다. 일반적인 검처럼 자르기 위한 날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 브로드 스톱

길이: 70~80cm, 무게: 1.5kg

17세기 이후 유럽에서 사용된 참격용 한손검으로 기병이 마상전투에 애용했다. 도신이 날쭉한 게 특징이다. 기병은 전장에서 브로드 스톱을 어깨에 슬쩍 걸친 채 적에게 달려 나가 후라뒤를 때리며 사용했다. 사실이 즈음에는 총이 등장해서 몸을 갑옷으로 돌돌 감싸는 것 자체가 무의해졌다. 그래서 갑옷도 가벼워지고, 검도 피리기에 좋은 레이피어 종류가 유행했다. 그렇다고 기병이 잃은 레이피어만 들고 피리기만 할 순 없는 노릇이다. 물론 피리기에 특화된 기병용 검사벨도 따로 있었다.



나랑 계약해줘

### 구르카 용병의 위엄

쿠르카는 요렇게 쓰는 거임

전직 구르카 병사 비슈누 쉬렉스 타가 영화 《아저씨》의 실사편을 찍었다. 2008년 9월 2일, 그가 열차를 타고 징검 자역을 자살 때 40여 명의 패강도가 난입해 승객을 탈기 시작했다. 비슈누는 자신의 지갑과 핸드폰이 탈될 때까지 끝까지 참았지만 두목이 형제 시체를 부도 앞에서 던져서 하자 쿠르키 나이프를 뽑아 들었다. 그는 두목을 던쳐 인건형째로 살은 후 징검을 든 강도를 발목부터 베어 냈었다. 다른 잉여 강도가 시체를 인질로 삼자 그놈과 두목에게도 쿠르키의 말을 따르하게 보였었다. 그의 때는 할라에 자일이 오그라든 강도는 약할지도 내버려둔 채 도망가기 급급했다. 상황 종료 후 그는 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적과 싸우는 건 군인이야” 한 일었고, 이런 강도와 싸우는 건 인종차이에 한 일일 뿐”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 남재 래일 수있다.

### 이 녀석 참 특이해세

#### 참마도

사람이 아닌 말을 노린 무기다. 말을 뺏는 건 구라고, 다리를 참마도로 후려쳐 적을 무력화시키는 용도로 사용했다. 게다가 잃은 배강도하면 어떤 야군의 전력이 되기 때문에 말을 노리는 공격은 일석이조였다. 하지만 장수나 사무라이급의 인건군은 이런 공격을 추접스런다는 이유로 꺼려했다. 그래서 반병이나 용병이 주로 참마도를 사용했는데 이런 중량의 무기를 다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병사라는 걸 의미했다. 이런 참마도 병사는 말을 탄 장수의 목을 따만 하면 등반색에 올라앉았기 때문에 그들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참마도를 활용했다.

### ◆ 레이피어 소드

길이: 0.8~1m, 무게: 1.5~2kg 정도

팬션 검을 떠올려라. 언뜻 보면 겉멋 투 무기로 차투하기 쉬운데 레이피어가 판을 치던 시대는 이미 총과 대포가 흥한 시절이었다. 갑옷이 두꺼워도 이들을 당해낼 수 없으니 명확해지자 장비는 더욱 건조화됐고 그만큼 가벼워졌다. 이런 적을 해치우기 위해선 그만큼 가볍고 조준이 쉬운 피로기 전용 검이 필요했다. 브로드 소드처럼 큰 검을 가진 적을 상대로 간격을 제어 여러 번 공격할 수 있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적을 재빨리 제압하지 못해 칼끼리 부딪히는 상황이 오면 끝장이다. 그때부터는 '검 vs 적수공권'의 싸움이 되니까 말이다.

### ◆ 사벨 소드

길이: 0.7~1.2m, 무게: 1.5~2.4kg

피로기 용도로 사용된 가벼운 검이다. 칼끝이 살짝 휘어 한타입과 작도로 나뉜다. 작도 타입은 앙기 스타일대로 우직하게 밀을 타고 달려 그 추진력을 겁에 삼는 형태고, 한도 타입은 밀을 탄 적을 옆에서 겁이 넘기기 위해 변형된 형태다. 18세기는 여기서 변형된 커틀러스란 검이 등장했는데 해적들을 비롯한 뱃사람이 주로 사용했다. 좁은 배 위에서 사용된 검이라 도신이 유독 짧다. 해적 영화에서 '커틀러스'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이제 반갑겠지?

### ◆ 바스타드 소드

길이: 1.2~1.4m, 무게: 2.5~3kg

중세 후기에 갑옷이 두꺼워져 방어력이 높아지자 한손검으로 데미지를 주기가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양손으로 후려갈려 적을 보낸버리면 되지?"라는 의도로 탄생한 검이다. 바스타드(흔히라는 이름답게 한손검과 양손검을 합쳐놓은 어중간한 생김새가 특징이다. 양손검이 필요하지만 허리춤에 찔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마다했던 기사들이 특히 좋아하는 무기다. 밤패를 들고 싸우다가 여자하면 밤패를 버리고 양손검 모드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편하겠



### 이 녀석 참 특이할새!

#### 그레이트 소드

그레이트한 사이즈의 검이다.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크기의 검이라 들고 다닌 단인이 실존했는지 의문이지만 역사상에 개관된 과거의 인물이 어떤 과력을 발휘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만화속 에니메이션에서는 그레이트 소드를 레피어처럼 가볍게 들고 다니는 괴물들이 넘쳐나지만 일반인은 이런 검을 드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탈출하는 고통을 맛보게 된다. 상대에게 검을 내리찍으면 그걸로 끝이다. 문에는 적을 분쇄한 검이 땅에 처박히면 이걸 화수인데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다. 생각만 해도 피곤한 검일 세 그려

#### 플랑베르주

16세기 이후 등장한 플랑베르주는 불꽃의 도검이라 불린다. 플랑베르주는 프랑스어로 화염을 뜻하는 '플랑브와르'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설이 있다. 두엔드와 레이피어 타입.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 가장 큰 특징은 플랑브와르의 칼날. 플랑베르주가 나올 때 즈음 이미 도검의 인기는 한풀 꺾기만 이 녀석의 실상과 지름은 빼어났다. 이런 모양의 날에 예면 살이 갈라져 되기 때문에 회복이 늦다. 검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넘겨 벌리기까지 하니 필리핀 정갈 X된다.

## 검의 몸통이는 왜 폭풍 다이어트를 했을까?

지금은 갑옷이 흔하지만 일반 철검을 만들 때는 '강철' 예가만 들어도 칠집 쓸 정도였다. 이때는 검의 강도를 높여려면 죽어라 철을 두드려야 했다. 철을 밀고구, 물에 식히고를 반복하면 표면 강도는 높아졌지만 내부의 강도를 높이지 못했다. 그래서 전장에서 검을 맞대보면 휘가 튀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막으려고 검의 이렛부분을 날찍하게 만들어 강도를 보완했는데 그래서 검의 몸통이 더 가벼워졌다. 하지만 갑옷이 등장하면서 강도는 유지한 채 알고 놀리한 검 제작이 가능해졌다. 당연히 검의 몸통도 다이어트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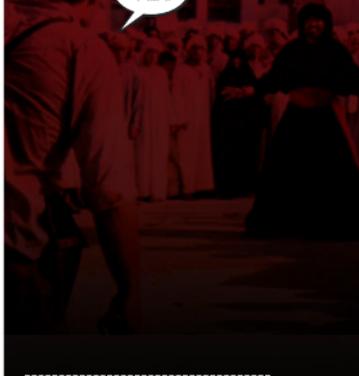
## 도는 왜 당신 마음처럼 날이 휘어 있을까?

심수면, 천봉도, 일본도 모두 휘어진 건 형태다. 이렇게 만든 건 사람의 몸과 날이 미끄러져서 배어 남기기 위해서다. 날이 굽은 도보다 날은 면적에 상충할 낼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이지만 두꺼운 검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예외를 더하기 위해 날 부분은 강철로, 대신 칼등은 부드러운 금속을 이용해 부러지는 걸 방지한다.

## 칼 VS. 총

(인디애나 존스)에 검을 끝났다.

넌 이미 죽어났다.



# HOT & WILD in FAST & FURIOUS

## ELSA PATAKY

폭발적인 스피드와 온몸 액션으로 팬들을 열광시킨 〈분노의 질주〉 그 5번째 시리즈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가 엔진 광음을 내며 출발선에 서 있다. 그리고 영화에 속도감을 주는 섹시한  
스페인산 액션 엘사 파타키가 당산을 향해 달려갈 출발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다.



스페인 여배우 엘사 파타키는 2000년 TV 드라마로 데뷔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유명해진 계기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 때문이다. 2006년 엘사는 〈스테이크 온 어 플레인〉에서 매혹적인 외모로 관객을 사로잡고(사실 연기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 MAXM 미국판의 화보를 장식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미국을 비롯해 유럽, 남미에서 활동한 그녀, 그 배경에는 모국어인 스페인어는 물론 프랑스어, 영어, 루마니아어, 이탈리아어의 5개국어에 능통한 언어 구사 능력이 있었다. 엘사 같은 세련한 원어인 교사가 있다면 통 썰 시간 아껴가면서 외국어 공부에 매진했을 텐데 그래도 너무 아쉬워 말자. 그녀는 지난해 12월 한 남자의 아내가 됐으니깐요. 그래, 어차피 못 먹는 떡, 질러보지도 못할 떡, 구경이나 해보자.

5



**〈분노의 질주〉 시리즈엔 어떻게 출연하게 됐나?**

사나리오를 읽고 오디션을 봤다. 그날 그 자리에 빈 다젤이 있었다. 그가 행운을 가져다준 것 같다.

**당신이 연기한 엘레나 네브스는 어떤 여자인가?**

도마네(빈 다젤) 일당이 브라질에서 한탕 하려고 풀 워커(브라이언 오코너), 미어(조너니 브류스터) 등 전편 시리즈에 등장한 사람을 모은다. 그를 잡기 위해 출동한 터프가이 홈즈(드웨인 존슨)가 그 지역을 잘 알고, 통역도 가능한 현지 경찰을 팀에 합류시키는데 그녀가 바로 엘레나다. 엘레나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울 줄 아는 강하고 자긍심 강한 여자다. 과거도 있다. 그녀를 연기하는 게 아주 재미로웠다.

**빈 다젤은 어떤 남자인가?**

그는 정말 완벽한 배우다. 준비도 철저하다! 우리가 맡은 캐릭터 시에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는데, 그는 그런 면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

**반했나 보군. 영화 속 또 다른 근육 영어리인 드웨인 존슨은 어땠나?**

드웨인은 매력적이다! 같이 작업하는 것도 무척 즐거웠다. 게다가 그는 액션 영화 경험도 많아서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

**이 영화에 출연하기 전에도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좋아했나?**

당연하다. 자동차 액션이 특히 끝내주지 않나? 내가 원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굉장히 좋아한다.

**오, 심생활에서 또 액션을 즐기는 여자인가?**

사실 스피드를 즐기는 편이다. 하지만 액션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트레이닝 받는 것도 재미있었다. 아쉬운 것도 있다. 나는 걔 가듯이 댄트 두키티(Duce)를 타고 싶었는데

**그럼 당신은 필 땀나?**

커다란 쿠르카(Kurka)를 땀다. 그것도 재미있었다!

**액션 촬영에서 여자라고 봐주거나 하지 않았더라면, 남자와 똑같은 강도의 액션 연기를 소화한 건가?**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다. 이 영화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여성들이 등장한다. 남자와 똑같이 액션 연기를 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촬영하는 건 어땠나?**

두 달 정도 푸에르토리코에 있었는데 정말 좋았다. 촬영이 없는 날엔 해변에 놀러 가고 했다.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했다. 정말 행복하고 멋진 경험이었다.

**당신의 고향인 스페인도 멋진 곳이지 않나?**

푸에르토리코는 스페인과는 다른 특별한 매력이었다. 거기 곳곳에서 라틴의 향기가 느껴졌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 참고로 음식이 무척하게 맛있단! 애들한테서도 촬영했는데 거기도 좋았다. 푸에르토리코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도시다.

**촬영 장소가 재미있어도 감독이 재수 없으면 말랑 황이다. 저스틴 린 감독은 어땠나?**

이 시리즈가 특별한 이유는 감독이 액션뿐 아니라 캐릭터에도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일 거다. 저스틴은 자신이 원하는 스토리와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끈임없이 갈고 닦는다. 흐지부지하게 이야기를 끝내는 적이 없고 항상 깔끔하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다.

**다음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 출연할 의향이 있나?**

물론 관객의 사랑을 받는 멋진 시리즈에 출연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 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아주 좋아하고 스피드를 즐긴다. ”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 또 출연할 생각이 있냐고? 물론이다!”

# FAST & FURIOUS KIMI

[평행이론]

## 분노의 질주&김상현 에디터

모든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MAXIM 김상현 에디터로 통한다! 알고 있나?



### 분노의 질주

이 시리즈에 출연한 미아 역의 조네라와 5만에 나오는 엘사 피타키 모두 MAXIM과 화끈한 화보를 촬영한 바 있다.

〈분노의 질주〉 7편 촬영 도중 주연 배우 빈 디젤은 스티븐의 코를 부러뜨리는 위험한 '실수'를 저질렀다. 스티븐은 다행히 그를 패거나 욕하지 않았다. 무서워서 그랬겠지.

2009년 〈분노의 질주: 더 오리진〉에 등장하는 배우 존 유언은 고소공포증이 있었다. 감독 저스틴 린은 "영화에서 그가 침몰에 매달리는 장면이 배우 자전 스펀다"며 만족스러워했다.

### 김상현 에디터

김상현 에디터는 지난해 11월호의 카스방 체험 기사를 쓰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본인이 아니라 동료 직원과 독자들 얼굴이) 사진을 촬영한 바 있다.

지난 1월호에 MAXIM 김상현 에디터가 SM을 떠난 영웅재중을 동방신기 멤버로 기재한 위험한 실수를 저질렀다. 동방신기 팬들의 지옥 같은 질타를 받았지만 다행히 실해당하지 않았다.

김상현 에디터는 주짓수 관련 기사를 위해 사진을 찍던 도중 주짓수 선수 이기 최에게 조르기기를 당하다가 실제로 기절할 뻔한 적이 있다. 기절 직전에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한 그의 사진을 보며 당시 MAXIM 직원들은 "무척 자전스펀다"며 즐거워했다. 이에 김상현 에디터는 큰 상처를 입고 한동안 동료 에디터에게 빠져 자전대지극도 심상해한다.



〈도로 드리프트〉를 찍다가 파손된 차량 수는 100대가 넘는다. 돈이 아주 썩어나는구나.

마감 플러인이 극에 달한 김상현 에디터가 앉은 자리에 서 해지우는 이문도 개수는 시간당 100원이 넘는다. 그 는 하루에 대해 포장으로 2봉지 이상의 이문도를 흡입하여 위장을 파괴하고 있다.

귀찮다. 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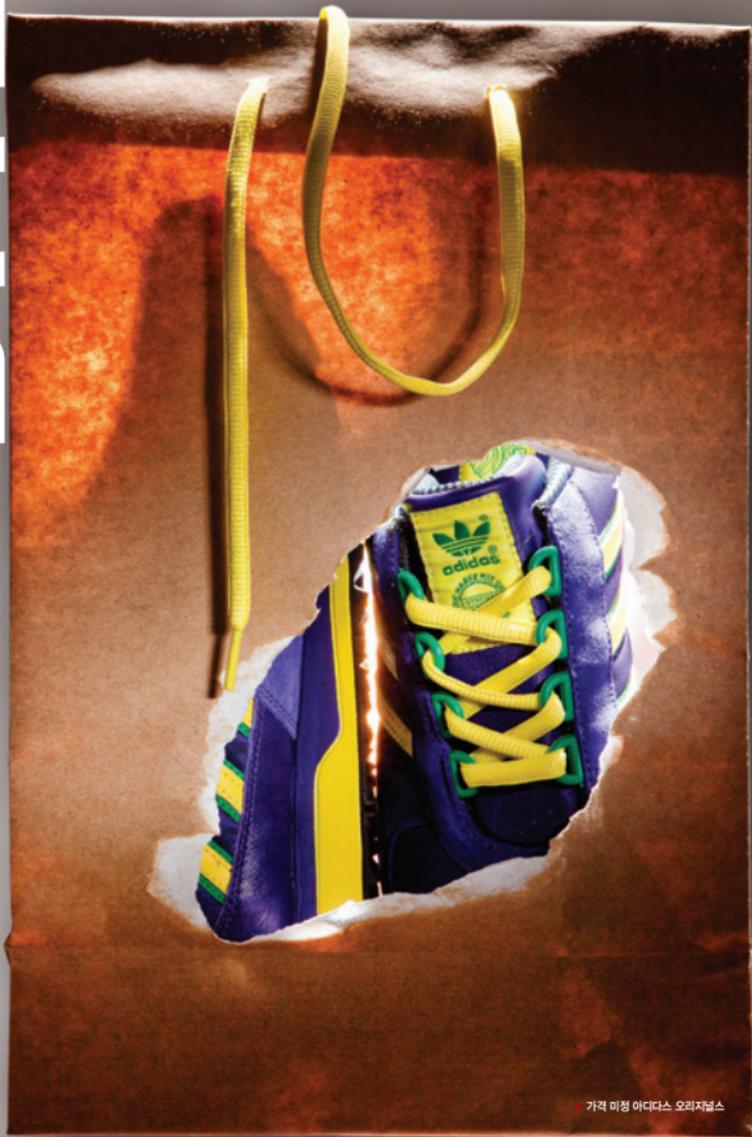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는 4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한다!



〈분노의 질주〉  
예고편 보기

# STYLE

BY 23811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 23811



가죽 미팅 아디다스 오리자널스

# SHINY SHOES

편해서 신나고? 아니, 예뻐서.

TIP

## 나발에 꼭 맞는 운동화 고르기

- ① 발이 붓는 오후 5시쯤 손에 가서 직접 신어본다. 여차피 게을러서 일찍 나간 생각도 없겠지만
- ② 두 발 모두 신발을 신고 서 있는 상태에서 발 길이보다 10~20mm 더 크고, 발볼은 5mm 정도 여유 있는 것을 고른다. 작아지면 발이 큰 쪽에 맞춘다.
- ③ 발가락이 구부러지는 3분의 1 부분은 부드러운 가죽이나 탄력 있는 소재가 좋다.
- ④ 발바닥 중앙, 족목 둘레 부위를 받쳐주도록 쿠션이 올라와 있는 것이 편하다.
- ⑤ 지나친 쿠션은 체중의 분산을 불균형하게 만들어 발목에 무리를 주고, 너무 가벼운 운동화는 관절이나 근골격계에 통증을 유발해 건강을 해친다.



강정석 스모클레스  
500,000원대 토포  
유광 차원 재킷  
99,000원 크리조함바인 코넬  
젊은 남성 마블의 가격 미장 용법  
강정석 인무니 반스퍼 티셔츠  
99,000원 사스털음모  
무릎 길이 팬츠  
325,000원 스톤아일랜드  
강정석 가죽 운동화  
100,000원대 크리에이티브 레크레이션





브렌드 로고를 새긴 검정색 패치로  
포인트를 중 점업 재킷  
969,000원  
하버지 부분에 로고를 담아  
실용적인 바지  
가격 미정 오뚜기 스톤아일랜드  
매달 느린의 운동화  
239,000원 이스파릭스



머린 장식이 눈에 띄는 마스크  
가격 미정 발렌누보  
브렌드 수고로 포인트를 준 후드 진압  
가격 미정 **레팅클라인** 진  
군번중 모양의 목걸이  
205,000원 수인 브스키  
팔뚝에 찬 장식  
80,000원 발렌누보  
염 소재 배기팬츠  
89,000원 크레즈 컴바인 슈팅  
백진생 반도가 통쉬이는 언더웨어  
55,000원 **레포리온** 이브이내 언더웨어  
발렌누보의 포인트를 준 화석 워커  
100,900원 빈스



지퍼 장식의 검정색 조끼 295,000원  
중요 모양의 열보상이 포함된  
반스매 티셔츠 195,000원  
은색 워싱 진 325,000원 모두 시스템유르  
검정색 가죽 목걸이 165,000원  
군번용 모양의 목걸이  
205,000원 모두 스텔라보스키  
검정색 가죽 손목시계  
328,000원 넥슨 by 갤러리아클럽



경향채 컵

40,000원대 폴라우스

동원 위생의 용인/대남

219,000원 빈폴진

다방(이)투송물시계

772,000원 니스 by 겐러리어플라

경향채 소니카모

47,000원 빈버스 워터일터

# SPRING

봄볕에 밖으로 내쫓긴 머느리도 이젠 안 잊으면 된다.

BY 고경희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S 박현우·최주영



## 1 [오딧세이]

### 블랙 에센스

평생 20대의 탱탱한 피부를 가질 순 없어도 나이 보다 젊은 피부를 만들 순 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고 건강식을 챙겨 먹는 건 자취생 인 당신에게 어렵다는 거다. 이것만 열심히 할라보자. 40대가 되도 쓸리지 않는 정 싯력만큼 피부도 늘 젊게 **50ml 50,000원**

## 2 [게스트맨]

### 24h 하이드레이팅 플루이드

에센스와 끈적임 줄 일았는데 의외로 끈적임이 나 번들거림 없이 시원하게 밀리고 촉촉하다. 손가락 끝으로 얼굴 전체에 고루 바른 후 톡톡 두드려주자. 고농축이니 여분채는 조금만 바로 자. **75ml 47,000원**

## 3 [앤스니]

### 오일 프리 모이스처라이저

가볍기 많은 음식을 먹은 후 시원한 물을 들이 켜야 속이 편한 것처럼 당신 얼굴도 마찬가지다. 알로에베라, 캐머미일, 자몽, 레몬. 만다린 성분 이 당신 피부에 물을 주고 진정시켜며 피부 재생 을 돕는다. **70ml 44,000원**

## 4 [러쉬]

### 픽스엔리브즈 / 샌드스톤

성경에 무회과 씨앗과 알레로 상처를 치료했다 는 예기가 나온다. 무회과 알과 씨앗이 박혀 있 는 픽스엔리브즈는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 라서 제품 중 가장 보습력이 뛰어나다. / 브라질 마녀 의 피부가 끈적한 이유는 해변의 고온 오래가 피 부 각질을 제거하고 매끈한 보디라인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우리도 샌드스톤으로 뽀뽀한 피 부를 만들어보자. 스킨을 이용하거나 직접 물 에 윤질라도 된다. **각 100g 7,600원/ 7,400원**

## 5 [팬즈클래식]

### 다들 아예트 비비크림 SPF40 PA++

여자 앞에선 깨끗한 피부를 보여주고 비비크림 을 사용하면 흔적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 티나지 않게 피부 톤을 고르게 만들면서 로션처럼 부드럽 게 밀리는 데다 뽀뽀해도 가려움과 진정시키는 효과까지 있다. 비비크림과 폼 클렌저, 로 셴까지 한 세트나 다른 건 눈요기할 필요도 없을 듯. **43.5g 29,000원**

## 6 [아이오메]

### 브라이트닝 선 에센스 SPF 50+ PA+++

겨울 내내 집에 처박혀 있어 연약해진 피부는 자 외선을 막는 오존층이 얇아진 봄볕에 속수무책 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자외선만 차단하 는 게 아니라 아이오메 선 에센스는 수분 보충과 마력 기능을 더해 피부를 지킨다. 물과 맑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촉촉하고 부드럽게 밀리 고 끈적이지 않아서 좋다. **60ml 30,000원**

## 1 [가스비]

### 벨런스 업 스킨

약산이 있는 줄 알았나? 천만에! 스킨 로션, 스킨 크림, 기름종이, 데오도란트, 세이빙 제품... 있을 건 다 있다. 생긴 것처럼 사려고 싼뜻하게 벌린다. 무겁지 않은 노안을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170ml 12,000원

## 2 [키엘]

### 웨이셜 퓨얼 에나자이징 웨이스 워시

키엘인을 마실 줄만 알았지 피부에 양보해야 할 줄은 몰랐다. 키엘인과 더불어 시원한 멘톨 성분도 함유한 젤 타입 폼 클렌저로 지친 얼굴에 활력을 주자. 상쾌한 느낌에 우수한 세정력을 지녔으며, 특히 아침에 사용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 250ml 25,000원

## 3 [피티토마스루스]

### 카모마일 클렌징 로션

여자 화장품처럼 생겼고 누구나에게 양보하지 마라. 로션처럼 생겼지만 당시에 매일 쓰는 폼 클렌징과 사용법이 같다. 물과 함께 손으로 비벼 거품을 충분히 내어 세안해보자. 로션 타입이라 더욱 촉촉하고 부드럽게 보인다. 세정 후에도 촉촉한 기분이 남아 있어 로션 바르는 것을 꺼려할 것이다. 탄은 거품이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큰 용량이 정돈 밀라가는 지갑을 위한란다. 250g 52,000원

## 4 [몰리란스]

### 에프티 에이브 에나자이저

상쾌한 냄새처럼 촉감도 상쾌하다. 설이 뜬 거 피가 난 상처에 밀라 보았는데 하나도 쓰러지지 않는다. 면도를 하다 피를 보더라도 이제 당대에 얼굴에 화장품을 마구 뿌릴 수 있던 예가다. 24시간 내내 수분을 지켜주진 않았지만 대체로 만족스럽다. 100ml 35,000원

## 5 [오리란스]

### 닥터와일 포 오리란스 플렌티도트 메가 머쉬룸 웨이스 클렌저

일반 폼 클렌저로 대중 썼을 얼굴엔 선크림이나 불순물이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 폼 클렌징을 하기 전 머는 피부에 마사지하듯 빌라주. 티슈로 닦아내거나 물로 헹개도 된다. 여자 친구의 진한 메이크업도 속속 지워지니 당신 집에 늘 리오(하룻밤을 함께 보낼 계획)의 그녀의 인모를 볼 자신이 있다면 권해보자. 150ml 37,000원

## 6 [비오렐름의]

### 웨이셜 스크럽

뿔을 맞이하는데 착착한 안색이 무슨 말인가! 일 주일에 1~2번만 연도 잔여 사용해보자. 세안 후 물은 얼굴에 가볍게 마사지하면 된다. 예민한 눈기는 피하라. 부드러운 여친의 손가 못지않은 피부를 가지게 될 그날까지 화이팅! 150ml 34,000원



COOPERATIONS 오트세이, 아이오세(030-023-567) 가스드림(02-882-770) 맨스네(02-346-225) 러쉬(044-257) 멘즈클래세(02-2066-093) 가스비(02-7-7843) 피티토마스루스(02-3479-6060) 몰리란스(02-39-2919) 오리란스(02-3440-2783) 비오렐름(080-022-3332)

# It's For Your Business



흔한 비즈니스맨인 당신을 위한 쇼핑 아이템

BY 고경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ILLUSTRATIONS BY 장미연 ASSISTANT 조유림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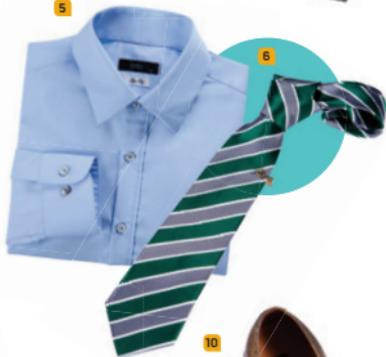


- ① 일하다 지칠 때 휴식 취해주자. 따라 웃다가 무슨 소릴 들게 될지 모르겠지만, 33,000원 MERRY MARRY
- ② 3피스 슈트의 클래식한 것을 아는 남자는 매니저 좋아 보인다. 재킷 348,000원, 베스트 178,000원, 바지 198,000원 지미크
- ③ 아가일 무늬만큼 클래식할 잘 소화하는 높은 드물다. 3개 묶음에 12,000원 유니클로
- ④ 약어 이빨처럼 날카롭고 현명한 지출은 아야 안 될 가아. 지갑을 꺼내 보여주고 싶어진 데다가 169,000원 CK 칼빈클라인
- ⑤ 진정한 멋쟁이는 블루 셔츠를 입는다. 게다가 신뢰감도 높여준다니 화이트 셔츠에 대한 사랑이 식은 이유를 알 것 같다. 98,000원 지미크
- ⑥ 뽀이 왔으니 상그라운 녹색을 시도해보자. 무당벌레 모양의 타이 핀은 덤. 58,000원 지미크
- ⑦ 남자는 시계로 말한다. 신중하고 고급스럽게 이 시계처럼 198,000원 타이팩스 by 갤러리아몰락
- ⑧ 여자인 가방에 목숨 건다? 천만에! 남들과 차별화된 차가운 도시남의 이미지를 보여주자. 가격 미정 킨복앤더슨
- ⑨ 디자인이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바지춤에 손을 가져갈 때마다 뿌듯할 거다. 198,000원 CK 칼빈클라인
- ⑩ 동대문에 걸려 있는 구두는 흥내도 못 낼 색이 당신의 품격을 높여준다. 300,000원대 소다 율모

COOPERATIONS MERRY MARRY([www.merry-marry.com](http://www.merry-marry.com))  
 갤러리아몰락, CK 칼빈클라인, 지미크, 소다 율모(02-546-7764)  
 킨복앤더슨(02-54-0833)



5



6



7



8



10



9







귀여운 프린트가 발광해 보이는 노란색 후드티셔츠  
79,000원 코데즈함바인 라이커  
안타행이 세트  
15,800원 키스리퍼블릭



생명한 브랜드 후드 티셔츠  
158,000원 리코스테  
지퍼가 가슴까지 내려가는 상재 후드 티셔츠  
95,000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상급한 비취색 후드 잠입의 원모습  
89,000원 에릭  
보라색과 생명한 하늘색의 조합이 돋보이는 후드 바람막이  
99,000원 캔버스



화려한  
스타일  
구성하기

부드러운 촉감의 원색 카디건  
265,000원 시스텔유즈  
김정석 언더웨어 모델 소창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준 파란색 카디건  
200,000원 타켄자티  
빨간색과 남색의 대비가 심명한 카디건  
198,000원 프레드페리  
감성색으로 포인트를 준 흰색 카디건  
150,000원 데 헤이스  
스트라이프 카디건  
295,000원 시스템유르

# CLUB STYLE



##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클럽 미녀들이 가슴 벌려 환영하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직접 물어봤다. BY 김희정



조쉬 하트넷

볼테 안경, GOOD!



비니, BAD!  
머플러, BAD!

저스틴 팀버레이크



에쉬튼 커처

선글라스, SO SO!  
부츠컷 청바지+  
갈색구두, BAD!

내가 뻥신 같나?



잭 에프론

올 블랙 코디, SO SO!

매너가 좋을 것 같다. 27세 뽀빠녀  
신사동 가로수 길에 당신 같은 스타일 널  
줬다. 지겹다. 26세 일산 하의실종녀  
저렇게 댄디한 스타일의 남자가 연락처  
를 물어보면 안 가르쳐줄 여자가 없다.  
24세 강남역 택시신녀  
볼테 안경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다.  
여자의 화장품 같은 존재지.  
29세 영접 이쁜이

감정색 옷은 사람을 있어 보이게 한다. 그런 남  
자에게 번호를 안 알려줄 이유는 없지 않겠나?  
29세 반쯤녀  
평상시에 먹먹지도 모른다. 그런데 캄캄한 클럽  
에선 땀만큼 생기진 않고서는 벽으로 오해할지  
도 모른다. 22세 나뭇모방생  
올 블랙으로 입고 온 남자한테는 한 번 더 눈길  
이 간다.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24세 조선반 여대생  
지옥에서 온 장의사 같다. 무섭다.  
21세 도곡동 신성녀

부츠컷+갈색 구두의 조합을 혐오한다. 아직  
도 저렇게 입는 사람 있나? 20세 레깅 육녀녀  
동물 모양의 머리띠는 롯데월드 안에서만  
써야 하는 것처럼, 뒤는 프레임의 선글라스  
라스도 클럽이라 봐준다.  
28세 마포 상공이  
옆에 다가올까봐 무섭다. 23세 우윳빛 속살녀  
스키나진만 입었더라도 같이 술 한잔 정도  
는 할 수 있었을 텐데. 30세 청담동 노숙녀  
웃은 그들도 쳐도 클럽 안에서 선글라스 끼  
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 22세 모태술녀

아무리 잘생겨도 클럽에서 비니 쓴 남자는 다 변태로 보인다. 28세 5년째 자취녀  
공공 싸매고 춤 추러 오진 않았을 테고, 여자 구경하러 왔나? 23세 82라인녀  
클럽 안으로 들어오면 뱀을 거지? 비니도, 머플러도, 재킷도 다?  
그렇다면 놀아줄게. 27세 샐리의 신  
거울에 스님이 목도리 두른 것 같다. 22세 인천 핏배초



로버트 패티슨

이런 스타일의 남자가 말을 걸어준다면 완전 땡큐다. 그런데 아직 클럽 문지방도 밟아보지 못했다. 거기 가면 이런 남자들 많나?

20세. 11학년 새내기

클럽에서는 사이키 조영이 흰 옷에 반사돼 흰 옷 입은 남자밖에 안 보이더라. 외모가 어떨든 일단 눈에 확 들어온다. 손잡고 클럽 밖에 나 외사야 옷밖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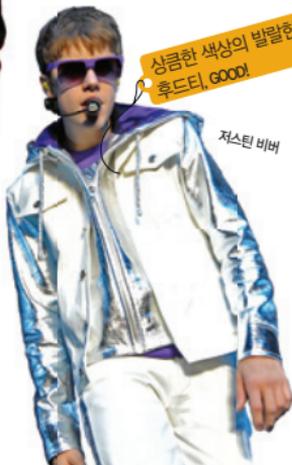
27세. 생기 발달 업가녀

밤일 잘할 것 같다. 32세. 상임직 잡혀녀

여자 고쳐서 바로 MT 직할할 것 같은 스타일.

25세. 백의의 천사

클럽 온다고 진득 꾸민 티 나는 남자는 존스럽다. 무심한 듯 가족 재킷만 걸치는 게 가장 섹시하다. 22세. 황태 죽순이



상큼한 색상의 발랄한 후드티. GOOD!

저스틴 비버

갓 스무 살 된 애기들이 후드 입고 놀면 그렇게 상큼해 보일 수가 없다. 누나가 더 사랑해. 26세. 편의점 색시입버녀

후드티 입고 신나게 놀던 연하남에게 반해 후드맨 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다. 저우주 전자 같은 은박지 옷만 빼면.

25세. 입구정 D집녀

후드빨에 캠퍼 속아 넘어간 적이 여러 번 있다. 후드 입으면 10명 중 8명은 귀여워 보이더라. 딱 내 스타일."

23세. 소주 한 병 환생녀

복학생 이상은 저러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22세. 백에쁜이

가족 재킷. GOOD!

MAXIM 스타일 정보

전환한 MAXIM 패션 에디터가 당신의 스타일을 진단하고 처방한다. 해지키 않아요~

**Q.** 키 17cm에 몸무게 48kg인 신체 건장하지 못한 대학생이다. 키가 큰 편도 아닌 데다가 몸이 남들의 반박이 안 돼서 웃을 때가 괴롭다. 몸이 가벼워진 톱카피라도 될 수는 스타일을 알려주라. -나혜

**A.** 여자 연예인의 프로필상 신체 조건보다 더 우월한 존재여 스카니 진이 편을 치고 있는 세상에 감사하라. 본인의 스트레칭을 많이 받았지만, 다행히 말라깽이가 풍뎉은 사람보다 옷밖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라. 근데, 당신 음식을 먹긴 하는 건가?

미운 체형에 어울리는 코디법

어저든 남존스 스카니진3이 대체다. 저거를 만드 한데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미운 몸을 무조건 가리코만 들지 마라. 스카니한 몸매를 최대한 가시해도 나쁘지 않다. 스카니진에 니트나 긴 티셔츠를 입어 영영에게 휘어진다는 가시를 가려주면 사이키의 인기를 당신이 좀 거둬갈지도 모른다. 레이어드룩도 오직 머는 사뭇진1이 멋들어지게 소화할 수 있는 코디법이다. 풍중한테 깨요면 안 돼지 굶어 보이잖아. 지금부터 당신은 무조건 2개 이상의 옷을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몸이 나서 살이 더 빠질지도 모른다든 단정히 입자만...아름답지 않다. 그런 심때우는 방법을 물어봐라. MAXIM에 전문가가 득심하니까 그렇다고 아무거나 깨요면 곤란하다. 셔츠+셔츠만 타카카카. 티셔츠+셔츠+조가+ 재킷. 티셔츠+티셔츠+조+잠깐. 똑같은 걸 손에서 바꿔가며 입어보자. 오늘은 이게 아니, 내일은 아유리. 그러다 보면 서로 다른 느낌의 스타일링이 나온다. 어차피 옷도 별로 없잖아? 티셔츠 2장 입는 게 영 애매하던 안에 얹는 티셔츠는 검정색이나 흰색부터 시도해보자. 잠깐 약속해지면 화려한 색상의 티셔츠로 색 배합을 맞춰보는 거다. 자, 당신의 감회가 느껴져? 그런데 후드나 카디건은 무엇을 사야 하나? 친정할 133 쪽에 글라 보라.

TIP

- 옷은 밝은 색으로 고른다. 어두운 색은 수축색이라 당신을 더 왜소하게 만든다.
- 액세서리를 적극 활용하라. 액세서리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포인트 색상이나 독특한 디자인의 모자나 가방이나 시계 또는 이어폰도 좋다.
- 무조건 화려한 옷을 고집하지 마라. 어깨선조차 잘 보이지 않음은 겸자미한 옷은 당신을 더 왜소해 보이게 할 뿐이다.

스타일링에 대한 고민은 무었이든지 털어놔라. 거창한 고민도, 사소한 고민도 마찬가지야. 패션 에디터가 친절하게 상담해준다. 이 열곡, 이 열매에 어떤 헤어스타일이나 옷이 잘 어울릴지도 저히 모르겠다던 아예 시즌을 봐도 배워라.

alice@maximkorea.net

로 보내거나 QR 코드를 스캔해 댓글로 달아라. 그럼 당신의 고민을 가슴 모아 기다려겠다.



고민 상담하러 가기

# MAXIM BUYER'S EDGE



## 바비, 삼성 센스 노트북에 우아함을 불어넣다

삼성전자는 센스 X70 바비 스타일 에디션 2를 선보인다. 에디션 1이 핑크와 블랙 컬러 바비 아이콘을 배제해 화려함을 강조했다면, 이번 제품은 순백색의 바탕에 우아한 콘셉트의 바비 디자인을 채택한 게 특징이다. 문의 02-6230-6418

## 소니, HDR-CX560와 함께라면 매 순간이 영화가 된다

HDR-CX560는 64GB의 내장 메모리를 탑재했으며, 한층 더 완벽한 풀 HD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 이전 핸디캠 모델에 비해 혁신적으로 발전된 소니의 세계 최고 영상 기술을 탑재했다. 이미지 퀄리티, 사운드 퀄리티 및 촬영 편의성 면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탑재하는 등 첨단 기술을 집적했다. 문의 080-777-2000



## 씨게이트, 3TB 하드 드라이브 바라쿠다 XT 출시

하드 드라이브 선두 기업인 씨게이트에서 데스크톱용 3TB 하드 드라이브인 바라쿠다 XT를 출시했다. 중점 사항은 편의성이다. 하드 드라이브를 이용하기 위해 별도 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없이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다. 64MB 캐시와 SATA 6Gb/s 인터페이스, 3.5인치 크기, 7200 RPM의 성능 등은 홈 서버와 워크스테이션 작업을 수월하게 해준다. www.seagate.com



## 타임포스, 레이싱 TF3125M02

'타임포스'의 '레이싱 TF3125M02'는 프로 레이싱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36L 스테인리스스틸 소재 사용, 크로노그래프 기능 100M 방수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계로, 블랙 계열의 시크한 멋까지 갖춰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다. '타임포스'는 전 세계 40개 나라에 4000여 개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로, 스포츠 스타들과 엔지니어들 계층을 맞아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가격 329,000원 문의 02-757-9866 www.milimatch.co.kr



## 프레드 페리, 50 컨템퍼러리 아티스트 프로젝트

패션 브랜드 프레드 페리는 20여년 인간 기쁨으로, 각 분야에서 활약이 활동하고 있는 50명의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4월 오픈하는 팝장에서 선정된 인물들의 작품과 음악, 한끼, 관심사 등을 볼 수 있는 인터뷰와 포토콜리움을 감상할 수 있다.

www.fredperryartists.com

## 아우디, 'NEW Audi TT' 출시

2011년형 뉴 아우디 TT가 찾아왔다. 티보 차집 기술과 가솔린 직분사 기술이 결합된 2.0L TFSI 엔진을 탑재, 최고출력 211마력, 최대토크 35.7kg·m의 강력한 파워로 100km에 5.6초 만에 도달한다. 아우디의 풀타임 사륜 구동 시스템 콰트로를 장착한 이번 모델은 근육질을 연상케 하는 단단한 외관까지 갖춰 한층 스포츠 카에 가까워진 느낌이다. 문의 6009-0000 www.audi.co.kr



## 한국타이어, 독일 타이어 테스트 통해 세계 최고 기술력 재입증

한국타이어의 초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Ventus S1 Evo)'가 독일 전문지 '아우토 자이팅(Auto Zeitung)'이 3월에 실시한 타이어 성능 비교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인 '강력 추천' 상봉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세계인 권위의 '독일 자동차 클럽(ADAC)'의 타이어 성능 비교 테스트에서도 유럽 수출용 타이어인 '옵티미 K75'가 미쉐린, 컨티넨탈 등과 함께 우수 등급인 '굿(Good)'을 받았다. 다양한 노면 상에서의 핸들링, 제동, 연비, 승차감, 마모, 소음 등 다양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타이어는 지속적인 R&D 투자를 기술력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다크 액세서리의

### Wood Stock 라인 공개

다크 액세서리(DARKS Accessory)에서 도시적인 모던함을 풍기는 우드 스톡 라인으로 심플한 미학을 추구한다. 슈링크 소가죽을 사용해 깊고 온전한 광택과 부드러운 감촉을 느낄 수 있다. 크로스, 서퍽가방, 토트, 카메라백 등 다양한 종류로 선보이는 이번 라인은 절고 활기찬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3441-4944



### 모델 유행과 구은애의 FAAS 스토리

푸마는 러닝과 FAAS 300° 출시와 함께 FAAS is the Fastest 라는 주제로 모델이자 DU로 활동 중인 유행과 파섹조 매력을 지닌 구은애의 일상 생활을 담은 온라인 영상을 공개했다. 낯선 디자인으로 발라미는 DU로 변신한 유행과 세팅하고 시렁스피어 모델 구은애의 프로다운 일상과 함께 두 남녀의 러브 라인이 담겼다. 영상에 등장하는 FAAS 300은 전곡 푸마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cate.naver.com/pumamania](http://cate.naver.com/pumamania)



### ALO + JUUN.J 컬래버레이션 아이웨어 'OVERLAY'

패션의 최정점인 ALO와 JUUN.J의 첫 컬래버레이션 아이웨어가 탄생했다. '오버레이'로 디자인된 안경과 선글라스는 디자인과 프레임, 색상, 터치로 각각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JUUN.J의 컬렉션에서 선보인 컬래버레이션 아이웨어는 5월 라미타드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3446-9949

### 루드와이웅과 함께한 클럽 모니코 파티

지난 2월 19일, 런던 파카디의 서커스에 위치한 'The Royal Academy of Art'에서 세계적인 셀레브리티 스타 '브라운즈(Browns)'와 파티나임을 통해 영국 및 유럽 첫 진출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클럽 모니코 여성 컬렉션은 이번 두 달 동안 브라운즈의 shop@monico에서 만날 수 있고, 남성 컬렉션은 브라운즈 맨즈 스토어 1층 전면에 판매된다. 문의 070-7600-4274



### 당신 차들의 BODY GUARD

주인조차림 탄탄한 복근과 세련한 차콜은 실용 실용에 뒤떨어 있을지라도 아찔한 그녀 앞에서 비행기 그려진 시각펜티를 보여 줄 수는 없는 법이다. 파플과 화이트, 레드와 블랙의 세련된 컬러 배색과 로고를 심플하게 프린팅 한 아웃핏들은 당신의 스포츠 애호가와 남성미를 엮고자 하는 해커에게 충분하다. 가격 2천 원 문의 070-7404-2778



### 2011 F1 코리아그랑프리 그랜드 론칭 쇼 개최

2011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남 영암에서 개최되는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인 F1 코리아 그랑프리 경주 대회의 론칭쇼가 3월 2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 MBC 스포츠포럼에서 생중계한 이번 론칭 쇼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시범 코스를 통해 F1 코리아그랑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추후 측은 티켓 가격의 인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사설을 확충함으로써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대회를 약속했다. [www.koreangp.kr](http://www.koreangp.kr)



### 사라 바렐리스 첫 내한 공연

플라티넘 히트 싱글 (Love Song) (King of Anything)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아이튠즈 다운로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한 싱어송라이터 '사라 바렐리스'가 첫 내한 공연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 매력적인 라이브를 가가이서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첫 내한 공연 무대는 오는 5월 14일 (토) 저녁 7시 흥대 비이엠(V+live)에서 열린다. 문의 02-332-3277

### 오아시스, 제2막이 열린다 BEADY EYE 내한 공연

2009년 공식적인 해체를 선언한 '오아시스'의 멤버인 노엘 갤러기가 기존 멤버들과 팀을 재창설해 '비디 아이'라는 새로운 밴드 이름으로 다시 한국을 찾는다. 오아시스는 'Live Forever' 'Don't Look Back in Anger'와 수 많은 찬가를 만들어내며 90년대 브릿팝 밴드로 미국 시장을 정복한 전 세계적 국민밴드다. '비디 아이'의 내한 공연은 5월 16일 저녁 7시 흥대 비이엠 코리아에서 열린다. 문의 02-332-3277



## 제6회 마크 오브 리스펙트 수상자 안성기 선정

지난 3월 9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6회 로열 살루트 마크 오브 리스펙트에서 2010년 가장 존경받는 문화 예술인으로 국민배우 안성기가 선정되었다. 이날 시상식은 미디어 아트와 영상의 합성적인 조합이 돋보이는 무대가 펼쳐졌으며, 안성기는 상금 5,000만 원 전액을 유니세프에 기부해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주는 사업에 쓰도록 했다.



이 레깅스 권선녀



## 재미 있는 축제 월드 DJ 페스티벌

매년 5월 국내 음악 축제의 첫 시즌을 일러온 월드DJ가 이번에도 아낌없이 더욱 다양한 즐길 거리로 우리를 찾아온다. 이번 2011 월드DJ페스티벌은 좋은 공연 시터 양행과 만나내며 커진 축제 규모, 7개 스테이지, 2억 3921의 관람이 함께하는 빅 이벤트다. 제10만 여과 최고의 라인업까지 선보일 이번 월드DJ페스티벌은 5월 6-8일 강도 양명 강상체육관에서 열렸다.

문의 02-3141-1011 [www.worlddjfest.com](http://www.worlddjfest.com)

## 미쉐린, 슈퍼카용 타이어 '파일럿 슈퍼 스포츠' 출시

미쉐린이 내놓은 이 초고속용 타이어는 포르세, BMW, 페라리 등 세계 최고의 자동차에 이터와 함께 개발한 작품이다. 극한 주행 조건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트로몬 소재 등 3가지 혁신기술을 적용한 '파일럿 슈퍼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 미쉐린은 지난 2월 20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대대적인 콘서트쇼를 가졌다.

문의 미쉐린 코리아 02-6340-6518

## MSI, 새로운 샌디브릿지 노트북 FX420 출시

커피슬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하세 간지를 울고 싶다면 이번엔 출시되는 샌디브릿지 노트북 FX420을 들고 가세요. MS FX420은 14인치 화면과 2배대 코어 프로세서를 샌디브릿지 칩을 탑재해 성능까지 향상시켰다. 외관 면 각자꾸나 코팅을 적용해 지문, 먼지도 방지할 수 있으니 다원용이 있는 친구도 만조도 걱정없다.

가격 15만 원 [www.ncdigitech.com](http://www.ncdigitech.com)



## 세계 최초 눈부심 방지 스탠드 3M™ 파인룩스 LED

좋은 스탠드와 함께라면 몇 시간이고 미친 듯이 공부할 수 있다. 3M™ 파인룩스 LED 배미지/프라이즘 스탠드는 눈의 피로 개선과 시력 보호에 탁월하다. 형상지공의 열광이 없다면 좋은 아이디어로 공부 시간을 늘려보자.

가격 58,000원 문의 080-033-4114



## 렉서스, CT 200h로 새로운 도약

고급 브랜드가 하이브리드를 만들면 다르다. 타사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환경에 지중했다면 렉서스 CT 200h는 운전하는 맛과 즐거움을 더해 하이브리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500개 이상의 엄격한 개발 표준과 차세대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환경을 지켜주며 EV, 하이브리드, 스포츠의 4가지 주력 모델과 더불어 온로드 드라이빙 모델과 운전의 즐거움을 보장한다. 가격 4,900만 원(트렌드), 4,700만 원(렉서스) [www.lexus.co.kr](http://www.lexus.co.kr)

INCASE



## 인케이스, '알로이 컬렉션' 출시

신중한 디자인과 실용적인 기능으로 패션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인케이스에서 알로이 컬렉션 (Alloy Collection)이 출시되었다. 믿을 만한 내구성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였고, 패브릭 코팅으로 구겨진 듯한 질감을 표현했다. 사랑도 들어갈 만한 완벽한 수납공간은 인케이스가 가장 최고의 자랑이다.

가격 17인치 23만 원, 15인치 16만원 [www.incasesstore.co.kr](http://www.incasesstore.co.kr)

## 타코벨, 커피&브런치 메뉴 런칭

신선한 멕시코an 푸드를 선보이고 있는 타코 벨코리아는 2일부터 네스카페의 원두 커피와 브런치 메뉴 2종을 런칭하고, 피크닉 인가게 메뉴를 제공한다. 100% 아보카도 원두 커피를 풍성하는 기념으로 한 달 기간 메리라는 1만원 1000원 판매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판매하는 브런치 메뉴 2종도 2500원에 선보인다. [www.tacobelkorea.com](http://www.tacobelkorea.com)



## 모바일 CCTV 뷰뷰(ViewView)

빈조잡이범의 극성 탓에 동네 불나들이 가기도 마음 편치 않다. 모바일 CCTV 단말기 '뷰뷰'는 휴대용 연동으로 언제 어디서든 집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설치비 없이 단말기 구입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집 안 어느 곳든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집안이 안전한 민안정을 핑계로 여자 친구 집에 '뷰뷰'를 설치하자. 문의 02-2105-0011  
www.view-view.co.kr



## CITIZEN, Eco-Drive Gent 출시

팔목 노출의 개념이 돌아왔다. 이번 시티즌(CITIZEN)의 신제품 '에코 드라이브 젠트'는 기본적으로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시계를 작동케 하는 에코 드라이브 기능과 100M 방수와 문베이지 날방 창으로 고급스러움을 대변하. 진력 충전 부족 경고 기능을 탑재해 시계가 진력 부족으로 멈추는 일도 없다. 가격 85만 원 문의 02-3894-1300



## TIMEX, 스포츠 시계 'Ironman'

미국 대표 시계 브랜드 TIMEX에서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스포츠인을 위한 'Ironman 50-Lap Mid 시리즈'를 출시한다. 어두운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디글로브 나이트, 100-hour 크로노그래프 펌 타임 및 스피드 트림 속성 50-lap 메모리 리콜 기능 등을 탑재해 아웃도어 시계로 활용하기엔 부족함이 없다. 가격 124,000원 문의 02-3284-1300 www.gallerystore.co.kr



## 머텔, 배어풋 시리즈 티프 글로벌 출시

머텔의 '티프 글로벌'은 발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준다. 발가락 부분을 따라 유연하게 굴곡진 디자인 때문 가볍고 앞면 쿠션이 외부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준다. 이러한 디자인과 기능적 특성을 통해 배어풋 슈즈 '티프 글로벌'은 발과 다리의 근력 강화 및 밸런스, 민첩성을 향상시켜준다. 문의 02-516-5611



## 최고의 DJ 사샤, 서울 단독 파티 개최

실리마 일렉트로닉스 대제이 사샤(Sasha)가 한국을 방문해 첫 단독 파티인 '월드클래스 대제이 사샤 파티 인 서울'을 진행한다. 모그 인터랙티브에서 진행되는 '모그 컬처 프로젝트 2011'의 첫 행사로, 오는 4월 2일 토요일 서울 강남의 플레트 콘서트홀에서 저녁 9시부터 열린다. 만 19세 이상만 입장 가능하며, 티켓은 스탠딩 기준 44,000원한 판매에 55,000원이며, 인터파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2-742-0883



## 5가지 맛의 열정과 즐거움 '미니머처 팩'

음추려던 몸을 일으켜 불러내며 맛과 향과 함께 밖으로 나오자. 페르노리카에서 출시한 호세쿠엘보, 칼라비, 말라부, 해바나 클럽 이스페셜블렌드 각 50ml 미니머처 병으로 구성된 '미니머처 팩'은 180세트로 이마트에서 한정 판매한다. 당신의 주머니 만큼 귀여운 사이즈에, 뒷면에는 초보지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도 포함되어 있으니, 라키킬로 제대로 이쁜 한잔 받아보자. 가격 49,000원

## 2011년의 대세, 콜롬비아 '빌로써티'

'빌로써티(Viboclay)'는 '속도감'을 뜻하는 영어로, 2011년 새출근 계절과 맞는 아웃도어 활동 트렌드다. 아웃도어 활동이 활발한 미국, 일본 등에서는 속도감을 즐기는 빌로써티형 아웃도어 활동이 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2010년 아웃도어 활동의 트렌드가 플레쉬, 트레킹이었던 2011년에는 속도감을 즐기는 콜롬비아 '빌로써티'가 대세 가격 178,000원 문의 010-7566-9789



##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 블렌드 출시

그 이듬해 마초적인 남자의 커비 조지아가 프리미엄 라운을 선보였다. '에메랄드 마운틴'은 아리바카 원두 중에서도 엄선된 상위 2%의 원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오로지 조지아를 통해서만 '에메랄드 마운틴'을 맛볼 수 있다. 조지아가 콜롬비아 커비 생산자 연합과 독점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역시, 조지아. 문의 070-8240-2022

<p><b>6</b> 개월 정기 구독</p> <p>정가 32,400원</p> <p>할인가 29,400원</p> <p>3천원 할인 + 1000씩 적립</p>	<p><b>12</b> 개월 정기 구독</p> <p>정가 64,800원</p> <p>할인가 57,800원</p> <p>7천원 할인 + 2000씩 적립</p>	<p><b>24</b> 개월 정기 구독</p> <p>정가 129,600원</p> <p>할인가 114,600원</p> <p>15천원 할인 + 4000씩 적립</p>	<p><b>36</b> 개월 정기 구독</p> <p>정가 194,400원</p> <p>할인가 164,400원</p> <p>3만원 할인 + 6000씩 적립</p>	<p><b>48</b> 개월 정기 구독</p> <p>정가 259,200원</p> <p>할인가 209,200원</p> <p>5만원 할인 + 8000씩 적립</p>
----------------------------------------------------------------------------------------	-----------------------------------------------------------------------------------------	--------------------------------------------------------------------------------------------	-------------------------------------------------------------------------------------------	-------------------------------------------------------------------------------------------

➔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 1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 2 무통장 입금(예금주, 주식회사) 아이디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3904 국민은행 186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316

**※** 약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약=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XIM의 정기 구독 사은품!**



사은품은 조기 품절되는 경우가 많으나, 끊임없이 새 선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시점의 사은품물 확인하려면 위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FX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채널이다.



FX 채널 만들고  
과월호 받기

**FX** 남자의  
모든 것

tcast

channel   SCREEN  FluxusN  Cinef  FOX  foxlife  FX

[www.fxchannel.co.kr](http://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 MAXIM

KOREA

## ICON: JAKE GYLLENHAAL

'질문할' 이라고 읽으면 돼.

### 상속의 정석

바이그라/시알리스/자이데나/레비트라  
누가 최강자인가?

### LOVE GUIDE

꿀피부와 산뜻한 봄옷으로 사랑받기  
클럽에서 먹히는 스타일  
연애의 신이 밝히는 직업 스킬

### BLACK DAY SPECIAL

Metal Holic Watch  
Black Smart Gear  
스미노프 블랙 보드카 칵테일  
블랙 컬러 코디법



왕년의 스타 자주포 K-9

### PRETTY FACE 바네사 허진스

APRIL 2011



www.maximkorea.net